

MAXIM

KOREA

SPORTS SPECIAL

각본 없는 야구만화 <프로야구 카툰>의 최훈
 백처서 특별기획, 올림픽 오심 총정리
 도박? 스포츠 베팅에 관한 MAXIM의 고찰
 8년 만에 돌아온 풍운아, 프리스타일 농구
 2012 프로야구 그리고 HITE의 저주
 ROAD FC 파이터 vs. MAXIM 에디터 현피 뜨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의 열애설 G컵녀 독점 화보
 UFC: 누가 벤 헨더슨의 승리를 포함하는가.

SEX

그녀의 친구들은 네 모든 걸 안다
 여자 떨궈내는 이벤트

MOTOR

1,200마력 괴물 컨버터를 부가티 베이론
 캠리 타는 남자에 관한 여자들의 수다
 2011 미스 맥심 이명희의 빈티지 모터사이클
 윤행하급 유도탄 고속함 승선기

GEAR

극강의 VGA 6대천왕 특집
 컴맹의 그래픽 카드 입문
 펜탁스에 김영일씨 계세요?
 하늘을 나는 거대 율행이
 저승에서 가장 HOT한 시계
 기가바이트 노트북 왜 삼?
 PC통신 하이텔 단말기 즐까

AKON

에이콘 내한 공연
 독점 인터뷰

FREESTYLE
 Futsal

ARIANNY CELESTE

전세계 모든 수컷들의 로망이자 여신
 UFC 옥타곤걸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MAXIM 에디터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달랑 축구공 하나 들고
 한국으로 날아온 이유가 궁금한가?

MAXIM BEACH PARTY

MAXIM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치 파티가 가능하다.
 한여름 밤의 꿈만 같았던 7월 21일 대천해수욕장의 밤,
 식상한 파티들과 그저 그런 페스티벌들을 올킬하다.

MISS MAXIM

올해 마지막 예선 통과자의 란제리 배틀
 2012 미스맥심 콘테스트 8강전 스타트

2012년 9월호
 정가 5,600원

ISSN 2233-4270 비콘드는 뒷면에



멀 리 서
보 기 만 해 도
눈 에 띈 다
가 까 이
다 가 서 니
심 장 이 띈 다



PEUGEOT RECOMMENDS TOTAL

Pure Emotion, New PEUGEOT **RCZ**

- 터보 가솔린 직분사 엔진 장착 200마력의 폭발적인 주행 성능
- 스포츠 스티어링 휠, 19인치 알루미늄 휠, 헤드 레스트 일체형 버킷시트,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 제논 라이트 기본 장착
- 엔진 사운드 시스템으로 다이내믹한 엔진 배기음 선사
-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더블-버블 루프 디자인
- 제 25회 국제 자동차 페스티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 선정

New PEUGEOT **RCZ**

MOTION & EMOTION



PEUGEOT

푸조 한국 공식수입원 **한불모터스(주)**

서울 강남 02545-0936 서울 서초 02587-0063 서울 송파 02424-5100 서울 용산 02319-4100 서울 강서 02091-9870 분당 031701-3008 일산 031695-3008 수원 031224-300 인천 032438-9008 부천 032625-8071 현안 041621-0200 대전 042633-3008 광주 062395-0407 광주 043280-508
 전주 063222-2428 창원 055263-0608 대구 053742-7700 부산 051626-0088 경남 창원 0551-1111 서울 동대문 02-2631-1111 서울 강남 02-545-0936 서울 서초 02-587-0063 서울 송파 02-424-5100 서울 용산 02-319-4100 서울 강서 02-091-9870 분당 031-701-3008 일산 031-695-3008 수원 031-224-300 인천 032-438-9008 부천 032-625-8071 현안 041-621-0200 대전 042-633-3008 광주 062-395-0407 광주 043-280-508
 전주 063-222-2428 창원 055-263-0608 대구 053-742-7700 부산 051-626-0088 경남 창원 055-1111 서울 동대문 02-2631-1111 서울 강남 02-545-0936 서울 서초 02-587-0063 서울 송파 02-424-5100 서울 용산 02-319-4100 서울 강서 02-091-9870 분당 031-701-3008 일산 031-695-3008 수원 031-224-300 인천 032-438-9008 부천 032-625-8071 현안 041-621-0200 대전 042-633-3008 광주 062-395-0407 광주 043-280-508

CONTENTS

88 ARIANNY CELESTE

지상 최고의 라운드 걸이자
〈프리스타일 풋살〉 모델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MAXIM 한국 스태프와
축구장에서 함께 구르며 땀으로 온몸을
촉촉하게 적셨다. 그 덕에 모두들
아직까지 촉촉한 꿈을...



CIRCUS MAXIMUS

- 14 하늘을 나는 거대 올챙이의 비밀
- 16 남과 여: 내가 생각했던 고백은 이게 아니야
- 20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풀인 라면, 맛있냐고?
- 22 보고 반성 좀 해라! 당신보다 잘 사는 동물들

24 HOURS TO LIVE

- 24 인생을 군대 말년처럼: 만화작가 이말년

HOT SAUCE

- 26 누군가 당신 고만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 MAXIM은 벗고 나선다. 헐벗은 미녀의 인생 상담.

RATED

- 28 T-바이러스에 박친 앨리스, 안 죽고 또 왔네!
- 30 추석 특선! 납치영화 종합 선물 세트
- 31 초가을에 듣기 좋은 찰진 앨범들
- 32 〈배트맨〉 3부작을 낳은 그래픽노블 6권

GAME

- 34 프리스타일 농구가 8년 만에 새롭게 돌아왔다! 이제부터 진짜 SHOW TIME!

SPORT

- 36 야구보다 더 재미있는 야구 만화 그리는 사나이: 〈프로야구 카툰〉 최훈
- 38 본격! 뽀쳐서 기획했다! 올림픽 오심에 너도 울고 나도 울었다.
- 42 도박일까, 아닐까? 스포츠 베팅에 대한 진지한 고찰

MONEY

- 46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멤버 중 약 빨다 뒀진 놈도 있다고?

CONTENTS

DEPARTMENTS



104 SUNNY DAYS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의 열애설, G컵녀, <슈퍼스타K> 보컬 디렉터 출신... 이 화제의 인물들이 다 그룹 써니데이즈 멤버였다. 연관 검색어에 '맥심' 추가요!

STUFF

- 48 펜탁스의 새로운 미러리스 김영일군
- 50 궁극의 그래픽카드 6종
- 56 맥심 만물 상화: 응답하라 aidt 01410
- 58 MAXIM이 지른 물건: 기가바이트 노트북

SMOKE&DRINK

- 61 '하이트의 저주'라고 들어봤어?
- 62 세계 맥주 기행: 기네스의 고향
- 64 딱딱한 게 좋아도 가끔은 생각나는 그것

MOTOR

- 66 1,200마력의 괴물 부가티 베이론 16.4
- 68 MAXIM 시승기 #18: 캠리 뒷담화
- 72 빈티지 모터사이클 '로얄 엔필드'를 타는 미녀

STYLE

- 80 저승에서도 먹어줄 때갈 고운 시계
- 82 밤의 황제 에디터가 추천하는 나이트 크림

ICON: AKON

- 96 충남 보령에서 만난 글로벌 메가 히트 메이커 에이콘과 주고받은 깨알 같은 섹드립

FIGHT

- 98 누가 벤 헨더슨의 승리를 모함하는가?

MAXIM vs. ROAD FC

- 112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사내들과의 한판

ONE NIGHT ONLY

- 116 <사이퍼즈> 미소녀 군단과의 하룻밤

MUSIC

- 120 MAXIM 사무실을 뒤집어놓은 Koxx 이현송의 지랄 발광 록 페스티벌

MISS MAXIM #7

- 122 올해 마지막 예선 통과자 2명의 란체리 베를!

MILITARY

- 128 파워풀한 운영하급 유도단 고속함 승선기

ALI COBRIN

- 132 <아메리칸 파이4>의 화룡점점 섹시 미녀

LOVE

- 138 상상 이상으로 센 그녀들의 잠자리 뒷담화

FROM MAXIM MEXICO

- 142 섹시함의 끝을 보여주는 뜨거운 남미 미녀

PARTY

- 150 진짜 '강남 스타일'이 뭔지 보여줘?
- 152 MAXIM BAR&MAXIM BEACH PARTY



SWISS + MADE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

The Luminox Field Automatic 1809 : 43 mm, Stainless Steel brushed case, Automatic Day-Date Movement, tempered scratch resistant sapphire crystal, see through case back to view the movement, black leather band, 1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LUMI-NOX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루미노스 판매처

공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밀리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미림시계) 02-772-3181 /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미림시계) 02-2143-1920 /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미림시계) 053-660-3122 /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1층(미림시계) 051-678-4039
특약점 강변 테크노마트 1층(TM시계백화점) 02-3424-0793 /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입2) 02-3424-7073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입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메션존) 02-3398-7527 / 성내동(다이비스쿨) 02-565-9897 / 상계동 하이엘빙상가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영우상사) 02-2272-2688 /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라자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탐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시프) 02-2118-8075 / 대현동 APM&핑몰 1층(타입사모) 02-6373-7743 / 잠실 롯데월드 웰빙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장동 단암빌딩(중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7층(스포츠킴) 02-389-8718 / 왕십리 민자역시3층(원타임) 02-2200-1355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사) 031-466-1014 / 부천 심곡동(특목)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입2)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킴) 031-710-1260 / 수원 그랜드백화점 1층(타입클락) 031-201-7100 / 안산 고잔동(타입루트) 031-487-9057 / 평택 평택동(유빈) 031-658-6883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인천 흥플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입타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대미널점 4층(스포츠킴) 042-615-1234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와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가(복워치) 043-223-1333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전주 세이브존 1층(예진시계) 063-287-2325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나상사) 062-971-8523 / 포항 벨류플러스(조이핑)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킴) 054-480-1234 / 구미 원명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나상사) 055-542-8521 / 창원 롯데마트 1층(원나상사) 0505-555-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하고싶다!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대리 김희성 alicem@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사원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사원 조동재 wj@maximkorea.net
 사원 이영환 lyh@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대영 storm@maximkorea.net
 이용수 yong24@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일러스트 주임 전영준 ziroqoo@maximkorea.net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신숙희 ssh@maximkorea.net
 주임 전은경 eun@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옥 14k@maximkorea.net
 매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매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교열

신선경 kshin0111@daum.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주임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사원 안진호 jh@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헌
 팀장 서정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가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영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팀장 김도훈
 어시스턴트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자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3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9월호 통권 제29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ITALY Paolo Gelmi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Mike Bleibtreu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SERBIA Nebojša Prijčić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Alexander Zhekov	INDIA Vivek Pareek	POLAND Krzysztof Paplińsk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남자들의 판타지가 시작된다!

퀸스블레이드
 GRAND OPEN



퀸스블레이드



ALBA

POSITIVE & SMART

ALBA 직영매장 세이코부터의 스타시티점 02454-8400 / 갤러리아 콩코스점 02390-7322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2-4144 •면세점 롯데 / 신라 / 위키윌 / 동화 / 파라다이스 / JDC / JTO / KTO •백화점 롯데 / 현대 •수입원 심정시계(주) 02511-3182
ALBA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치(771-7033) / 롯데본점(772-3124)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정신사(741-967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롯데점심(2143-7282) / 타임존(411-0829) 강동 골드시계(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관악 타임(6299-7168)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타임2(3424-7073) / TM 시계백화점(3424-079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계(971-5334) / 롯데노원(950-2139) 인천(032) 남동 롯데인천(450-2153) /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6) 부평 롯데부평(452-2168) 경기(031) 고양 티파니(931-5300) / 롯데일산(909-3293)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맨아클락(201-7100) / 지지컬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시(245-1230) / 불랑(245-7965) / 롯데명복(678-3155) / 타이머블(919-4704) 해운대구 롯데센텀(730-3235) 부산진구 롯데서면(810-4138) / 플라오(922-2068) / 프로포즈(818-6573) / 동해사(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상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88) / 바젤(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가(255-6940) / 켈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시(422-3002) 북구 롯데대구(660-313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필(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어(253-8855) / 스위스(255-6292) 충북(043) 청주 명공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옥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롯데한창(535-5767) / 연비(255-628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현안 티파니(561-9438) / 알파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6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5) / 현대제일사(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룩(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컴투(285-7596) 제주(064) 순금사(758-1717)

LETTER FROM MAXIM

말의 맛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우리 문학 중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를 거의 외우다시피 좋아했다. 황 진사가 주인공인 화자의 집에 찾아와 좋은 약을 주겠다고 무슨 흙가루를 앞에 떡 놓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다. “거, 쇠뿔 위에 개똥 눈 겠네야, 아주 며, 며, 명약이유.”

그걸 본 화자가 ‘뭔 개소리냐, 닥쳐라’는 식으로 가우뚱하자 실췌해서 잠자코 있던 황 진사가 외친다.

“꽤앤히 모르고들 그래!”

김동리가 황 진사의 성품을 그럴 때 동원한 수단 중엔 행동거지 묘사나 옷차림, 표정도 있지만, 역시 백미는 황 진사의 뻔뻔하고 악아빠진, 한편으로는 듣는 이의 동정을 일으키는 그의 말이다. 이렇듯 사람의 말에서 느껴지는 캐릭터와 특유의 맛은 그 무엇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황 진사가 “그것은 소 대변 위에 개 대변을 토평한 것인데 아주 명약입니다” 또는 “괜히 모르는 소리들을 하는군!”이라며 또박 또박 바르게만 말했다면, 뭘 재미가 있겠나?

MAXIM도 실생활에서 쓰는 말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읽는 맛을 독자께 드리려고 애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에디터들이 쓰는 기사의 대부분은 실제 본인의 말과 아주 흡사하다. 예를 들어, 세상 그 어떤 것을 들이밀어도 섹드립이 가능한 능력자(섹드립 외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킹 오브 리비도’ 유승민 수석 에디터는 자동차 시승기든, 법률·경제 관련 기사든 하여튼 뭘 시켜도 전부 ‘섹’칠을 하는 패악을 부린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쓰고 암컷이라고 읽는다)스러운 성격의 김화성 에디터는 평소 말투와 기사 속 어투가 거의 같다. 매사에 “억!”, “즈헛”, “이럴수가!” 같은 만화적인 추임새를 말도 안 되게 자주 쓰는(어쩔 땐 짜증이 난다) 송종민 에디터의 기사엔 그와 같은 표현이 즐비하다. 얼굴은 곱상하나 입이 걸레인 박한빛누리 에디터 역시 짧지만 강한 “시발!”, “쫘” 등의 대사를 기사에 깨알 같이 박아 넣고 혼자 미친놈처럼 웃는다. 역시 입에 쫘를 물고 사는 사람답다. 말이 풍부한 사람이 글도 잘 쓴다고, 평소에 쓰레기 같은 말장난과 상호간의 저열한 인신공격 및 신성모독을 즐기는 MAXIM의 에디터들은 MAXIM에 어울리는 살아있는 표현을 짹짹 잘 뽑아낸다. 동시에 인쇄 매체이니만큼 바른 우리말, 어법에 맞는 말을 써야 한다는 의무도 있다. 그래서 매달 우리는 ‘교열’의 도움을 받는다. 소 몸

똥이에서 갓 썰어온, 선혈이 낭자한 생고기를 먹으라고 던져주는 건 무책임하다.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게 최소한 겉면이라도 익혀야 탈이 안 난다...는 의미에서 MAXIM에게 교열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MAXIM의 교열자 신선경 씨는 그 이름처럼 ‘신선’의 인상을 풍기는 점잖은 분이다. 이번 9월호 교정 작업을 하던 중,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가 나에게 물어본다.

“편집장님, 이거 외래어 고칠까요? 야마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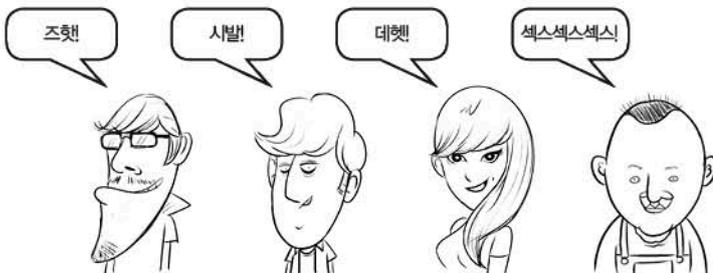
그녀의 새하얀 얼굴이 속삭이듯 차분하게 야.마.돈.다.고 말할 때 웬지 섬뜩한 기분이 들과 동시에 묘하게 즐겁다. 바른 국어 생활의 대명사인 교정 전문가가 저 상스러운 왜구의 말을 입에 담다니! 2010년 5월호부터 지금까지 함께 잡지를 만들어오면서 MAXIM이 그녀에게 스며든 것을 확인하고는 혼자 웃는다.

“뚜껑 열린다, 꼭지가 돈다, 이런 건 맛이 안 살잖아요. 원래는 고쳐야 하는데, 이건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MAXIM의 맛을 걱정하느라 그녀가 ‘야마돈다’를 허했다. (물론 우리도 그녀를 통해 교정되고 순화된다. 어제는 내 원고에 적힌 ‘쫘까’가 ‘쫘’로 교정되어 있었다. 어머, 이걸 쫘이라고 써야해!)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MAXIM엔 못된 말, 시니컬한 유머가 잔뜩 있다. 일단 “티아라 네X들 때문에...” 트윗으로 악플을 몰아드신 이말년 작가와의 인터뷰는 그 존재만으로도 와장창 빅재미가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오랜 팬이었던 <프로야구 카툰>의 최훈 작가가 엘지에 대한 애증을 표출한 기사도 재미있었다. 올림픽 때문에 빠진 에디터의 오심에 관한 분노 기사, 지가 산 물건을 지가 끼는 새로운 코너 ‘거기 왜 샀어’, 하이트와 여인 프로야구 팀은 멸망한다는 ‘하이트의 저주’,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욕을 기사에 마구 쫘는 박 에디터의 ‘MAXIM vs. ROAD FC’도 무척 흥미롭다(하지만 누리씨의 정서 상태는 심히 걱정된다).

여러분의 한 달을 또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111번째 MAXIM 한국판 매거진. 이번 달에도 깨알 같은 활자와 말들이 독자님께 MAXIM의 참 맛을 전달하는 즐거운 도구가 되길 바란다. 그럼 맛있게 읽어서라.



p.s: 본인 입맛이 좀 안 맞아도 너무 화내지 마시라. 아리아니 셀레스티의 가슴을 저렇게 보여줬는데 뭘 더 바라냐, 이 사람이?

2012년 9월 편집장

이영희



이것이
당신의 캐릭터다!



MAXIM 블로그: 맥심코리아 사옥 내부 공개 포스팅

MAXIM이 베일에 싸여있던 MAXIM KOREA 사옥 내부를 대공개합니다. 두둥! MAXIM을 만드는 풀아이들의 집합소(수용소)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회사에서 거두지 않았다면 분명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었을 인간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직장인으로 만들어 놓은 공을 국가에선 언제쯤이나 인정해줄까요?

MAXIM KOREA 빌딩의 대문임다. 최첨단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출입할 수 있다지만 직원들의 지문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건지 3번 째는 찍어야 통과시켜준다는... 차라리 열쇠가 낫겠어. MAXIM의 의상, 소품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치마와 타이트한 핫팬츠는 아마 여기에 다 모여 있을겁니다. 간혹사 코스프레 같은 거? 당연히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잡지사에서 누구도 끌려가고 싶어하지 않는 바로 그 곳, 편집장실을 엿보도록 할까요? (포스팅 중에서...)

*MAXIM 편집장실, 게임룸, 의상-소품실, 샤워실(...!)이 궁금하다면
[blog.naver.com/maximkorea1로!](http://blog.naver.com/maximkorea1로/)*

MAXIM ONLINE POLL

MAXIM 독자들이 뽑은 비키니가 가장 잘 어울리는 누나는?



1위

백문이 불여일견! **강예빈**
(1983년생, 50.1%)



2위

재색 경비! **곽현화**
(1981년생, 15%)



3위

구관이 명관! **이효리**
(1979년생, 14.9%)

압도적이다! MAXIM 독자의 절반이 선택한 비키니 누나는 다름 아닌 강예빈이었다. 얼마 전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비키니를 입고 알로예를 팔던 그녀. 편집부의 모 에디터는 TV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혈류가 급격히 신체의 어느 한 부위로 몰리면서 입가에는 스물스물 병신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다고. MAXIM이 선택한 멋진 여성 곽현화는 또 어떻게? 그녀가 비키니를 입고 (수학의 정식) 연습 문제를 풀이해준다고 상상해보라. 전국의 수컷들이 일제히 대동단결해서 수학의 7대 난제까지 모조리 풀어버릴걸? 한편 4, 5위는 근소한 차이로 조여정(1981년생), 정가은(1978년생)이 차지했다. 자, 우리 다함께 유승준처럼 외쳐보자. 영원히 사랑해 누나!!!



THE LAST WINNER...



2012년 8월호 MAXIM INSIDER (p.14)의 MAXIM 화보 모델 폴라로이드 사진 받기 이벤트 결과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블로그에 8월호 MAXIM 기사를 스

크랩하신 장현식님이다. 광현화의 'BITCH' 화보를 '바나나학개론'이라 칭한 센스가 돋보였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레이템 중의 초레이템인 MAXIM 모델의 폴라로이드 증정 이벤트는 이번 달로 종료된다. 관한 치기로 응모해도 선물은 없으니 참고하시라.

MAXIM 네이버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maximkorea1

미안하다. 파워 블로그가 될 자신은 없다. 그래도 '서로 이웃'은 받아줄 테니 이런 우리라도 괜찮다면 제발 와줘.

섭의 요청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그녀는?



HOTTEST REQUEST

한때 인터넷을 떠돌던 김사랑 안습 팬미팅 사진을 기억하는가? 누군가에게는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훈훈하게 포장해버린 건 역시 그녀의 착한 얼굴과 착한 몸매 덕분이겠지. 그 성운을 MAXIM 독자들에게도 내려달라!

QUEEN  BLADE



여자들의 **MMORPG**

퀸스블레이드 GRAND OPEN



LETTERS

아리따운 여성 에디터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돌아오는 밤꽃 내용
충만한 활자들에게 거듭 상심하던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사연별 전담 마크 에디터 1:1 상담!!

에디터에게
1:1로
상담받기



앤 해서웨이_노모_폴버전.avi



MAXIM을 창간호부터 즐겨 보고 있는 이라고. 드디어 MAXIM이 변화하고 있소. 제목이 '앤 해서웨이, 가슴을 열어라!'인데 아래에 앤의 가슴을, 그것도 모자이크하지 않은 채로 발간한 것이 아니겠소(지난 8월호 p.32). 이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요(편집자의 실수라는 발언은 듣지 않겠소). 심지어 감동까지 먹었소. MAXIM이 이를 발판 삼아 더욱더 뜨끈한 자료를 모자이크 없는 채로 내보내길 바라오. 부탁이오.

FROM 유카타귀청소, 모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앤 해서웨이의 가슴 노출. 그거 일부러 모자이크 안 한 겁니다. 편집자의 실수라니요. 에디터가 모자이크 하자는 걸 편집장이 나서서 없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아이디어가 '유카타귀청소'인걸 보니 MAXIM 애독자 맞으시군요. 몸소 귀청소방에 다녀온 박한빛누리 에디터는 "진짜 귀만 파주는 곳"이라고 몇 번을 거듭 강조했지만, 여자의 직감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카타귀청소님의 뜨거운 후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약 뻥 여자가 좋아

얼마 전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처자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소. 근데 이 처자, 매력적이긴 한데 행동이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소연을 해보오. 일단 온몸에 문신이 꽤 있는데 자신만의 세계가 분명한 것 같소.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죽음 관련된 글이나 자신을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고, 대화를 해보면 몽환적인 느낌이 마구 드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확실히 그동안 보던 여자들과는 다른 부류요. 어떻게 하면 좋소?

FROM 나왔다햇다리, 모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대통령 손녀만큼이나 만나기 어렵다는 최고 난도 레벨의 몽환녀를 만났군요. 그녀와 대화가 통하려면 그녀처럼 몽환적인 남자가 되어야 하오. 우선 3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다섯 번 연속 자위를 한 뒤 카카오톡을 켜시오. 어느새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당첨 비위가 악한 게 죄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술을 먹고 MT를 갔습니다. 달아오른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애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랫도리를 손으로 어루만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서 만졌는데 비위가 악한 저는 손가락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걸 본 여자친구는 잠시 왜 그런가 하는 표정을 보이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옷을 입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FROM 박은수,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종재

가만히 읽다가 회사에서 아랫도리를 내릴 뻔했습니다. 독자 사연인지 아설인지 알 수 없는 이만 고결의 글을 투고하시다니, 너 이 자식, 감사합니다. 구성애 선생님의 강의 폴버전을 두루 섭렵한 에디터가 리얼 돌이라도 가져다 놓고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세요.

내 몸이 널 사랑해

가끔 찾아가는 저점 알바 여성분이 너무 예뻐서요. 전 갈 때마다 음료수를 놓고 가곤 합니다. 제가 썩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인데요. 용기를 내서 고백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너무 썩스러워서 얼굴은 못 보고 짧은 바지 입은 다리랑 몸만 생각나지만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FROM 르자, 이메일 사연



시금 4,700원 받아요



에디터 송종민

〈솔직하게 고백하기〉 널 좋아한단 말야! 결혼해줘! 야, 이름도 좀 알려줘.	〈더욱 솔직하게 고백하기〉 난 별로 안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자가 널 사랑하고 있어.
네 얼굴을 보니, 나한테도 막 자신감이 생겨!	임신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보셔요. 그리고 앞으로는 YES24나 알라딘을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Time to Try는

젊고 새롭게 변화하는 **트라이**의 도전정신을 담은 슬로건입니다

TRY

Time To TRY

함께 보면 참 좋는데



올해 1월부터 정기구독을 시작한 독자입니다. 6월에 양약을 조졌는데 마취 풀리고 MAXIM 일곱 달치를 몰아보다가 코피도 흘려봤네요.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 누나가 처음엔 "잡지 그

만보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다가 나중에 "재밌냐, 나도 보자"하고 빌려달라 했지만 안 보여줬어요. 따로 보는 건 몰라도 남녀가 함께 MAXIM을 보는 건 좀 아니죠... 불끈불끈,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당첨시켜주세요!
FROM moneyouj, 이메일 사연



에디터
이영환

이런 우매하고 무딘 신경의 소유자 같으니라고, MAXIM을 함께 보여 식어가던 애정 전선을 다시 불태우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순백의 천사께서 그것도 MAXIM을 같이 보자는데 그걸 마다하다니... 한심하고 한심하다. 다음번에 또 그녀가 안정을 취하라며 다가오면 일곱 달치 MAXIM을 몰아보던 열정을 그녀에게 쏟길... 네가 말한 불끈불끈 회복은 이런 시시한 이벤트 당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로맨티스트야 22세기형 호구야?

최근 어떻게 알게 된 처자가 있는데,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예쁜 얼굴과 쿨한 성격이 마음에 쏙 들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직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확답은커녕 연락마저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왜 저는 미련이 남는 걸까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야 낙담 사연권은 은나 요양공이

FROM 취준생, 이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저와 같이 묘자리나 알아보러 다니십시오.

혼자 하는 사내 로맨스



본인은 모 기업에서 보안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파릇파릇한 남성입니다. 1년차 직장인인 본인은 벌써부터 회사일에 지쳐 아직 궁리만 하고 있던 중,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경리팀의 아리따운 후배한테 반해버렸소. 갓 대학을 졸업한,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후배와 잘 지내고 싶으나 워낙 숫자가 없는지라 말도 못 걸겠소.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를 제시해주세요.

FROM securityma,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용재

회사에 예쁜 처자가 있으면 회사에 다닐 맛이 나는 법이지요. 하지만 언젠가 그 아리따운 처자가 같은 팀의 남정네와 사내 연애를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순간, 아직 욕구는 200% 상승하게 됩니다. 잠깐 근데, 후배가 여자는 맞죠?

교회 오빠보다 싫은 아는 오빠

본인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모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의 탱글탱글한 남성입니다. 알다시피 요즘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에 갈 일이 없소만, 오히려 그게 고통스럽기만 하오. 사실 조금 맘에 드는, 씬을 탈 정도로 학기 중에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있었소. 그런데 어찌 된 게 방학이 되고 나니 그렇게 자주 하던 연락도 뜸해지고, 요즘은 아예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있오. 본인은 그저 '학교에서만' 아는 오빠에 불과했던 것이오?



아는 오빠 주변
교회 오빠는 진짜 안돼

FROM Hoguwart,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네, 아직은 '아는 오빠' 수준인 것 같네요. 하지만 아는 오빠에서 친한 오빠, 친한 오빠에서 우리 오빠 되는 건 다 남의 역량입니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설부른 연락을 시도하지는 마세요. 여자 쪽에서 지레 놀라 도망갈 겁니다. 일단 개강을 기다리십시오(후, 이렇게 또 한 컷을 막았네).

독자 사연 응모

MAXIM은 여러분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사디스트 같지만 정말 그러하다!

응모 방법

- ▶ 우편 접수: (02-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방문접수

9월 방문은 이렇게 하자: MAXIM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통과해야만 한다. 뺨을 눌러도 소용없다. 질생까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영지원팀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입구 자리를 지어 여장군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AXIM 사옥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편집장실이 있는 흡연 테라스 쪽을 향해 갈고리를 발사해라. 편집장은 열심히 강경대며 올라온 당신을 웃으며 맞이할 것이고 과월호 몇 권을 쥐여주며 돌려보낼 것이다.

이건 나가 사세요.



독자 선물

이번 달 독자 선물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의 **스웨거 헤어 스티너 왁스**다. 평소 머리카락이 아근에 지친 에디터의 몸처럼 축축 처져 있다면 그 완벽한 보정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누가 내 몸도 좀 곧추세워줘...



CIRCUS M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1

넉넉한 탑재량

아르고스 원은 거대하게 부푼 대가리 아래 위치한 주머니 안에 대략 15kg의 탐지 장비들을 탑재할 수 있다.

2

위험적인 머리 형태

기존 비행선보다 기동성과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적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정자 모양 디자인이다.

3

탁월한 신축성

공기를 빼고 나면 표준 규격의 포장 상자에 안전하게 접어 넣을 수 있다. 추운 날에는 더 쪼그라들겠지?



이거 안 놔?
확 수정시켜버린다.

안 돼! 오래 살고 싶으면
애국가를 불러!

날아다니는 거대 올챙이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이 생소한 스파이 비행선이 낯익은 이유는 왜...왜지?

DESIGN 서윤정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군사 기술에 비해 군 무기의 디자인은 늘 쌍팔년도 수준이었다. 하지만 월드 서베일런스 그룹(World Surveillance Group)의 신상 비행선 '아르고스 원'은 다르다. 그리스 신화 속 100개의 눈을 가진 괴물 '아르고스'에서 착안한 이름이 암시하듯, 이 거대 비행선은 군용 광역 정찰기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한다. 또 탁월한 기동성과 원격 조정 기능은 제우스의 거시기에서 금방이라도 발사된 듯한 이 생김새만큼이나 놀랍다. 만약 이 거대한 물건이 북한산 여근석에 추락하기라도 한다면 여성부에서 비행선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도...

THE ULTIMATE SMOOTH PREMIUM BEER



IT'S *Miller* TIME.

남과 여 로맨틱한 고백의 실체

당신이 계획한 고백이 과연 영화처럼 감동적일까?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전은경



음식 속의 반지



계획
 맛있는 음식 속에 반지를 숨겨두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반지를 발견하는 순간, 엄청나게 감동하겠지?

의자를 가져!



현실
 그녀가 모르고 반지를 그냥 삼켜 버려 위세척을 위해 응급실행.

선물로 배달된 남자친구



계획
 그녀가 이 상자를 열면 "짜잔~!" 하고 놀래줘야지.

현실

그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상자 안에서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쓰레기차에 상자째 실려 간다.



고백 D+24

큰 곰 인형



계획
 그녀보다 큰 곰 인형을 선물한다면 매일 밤 날 생각하며 인형을 끌어안고 자겠지?

더우면 벗던가...



현실
 곰인형이 너무 무거워서 같이 옮기는 도중 싸워서 헤어짐.

인형 탈



계획
 예쁜 인형탈을 쓰고 그녀를 꼭 안아줘야지.

벗지 마!!!



현실

인형 탈 안은 찜통X100. 탈을 벗는 순간 당신의 얼굴은 땀 범벅으로 못생긴 오징어가 되어 있을터.



HELL DIVER

1942 SB2C



헬다이버 | <http://www.helldiverwatches.com> |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총판 프로워치 02.779.6964

서울 - 사 또(동대문) 02-2118-8075 | 타임랜드(은평) 02-350-8417 | 이츠와치(홍대) 02-323-0980 | 와와치(반포) 02-537-8977
이타임월드(신촌) 02-313-4108
경기 - 샤론주얼리(안양) 031-463-9788 | 시계상자(안양) 031-441-0158 | 보석상자(안양) 031-466-1014
탐타임(안산) 031-413-7656 | 티파니(일산) 031-931-5300 | 뽕끼통(부천) 032-662-0686
인천 - 워치보이 070-8632-5300 | 타임런 070-7516-4545 | 청주 - 복와치 070-8721-9731 | 부산 - 왓씽 051-919-4704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촛불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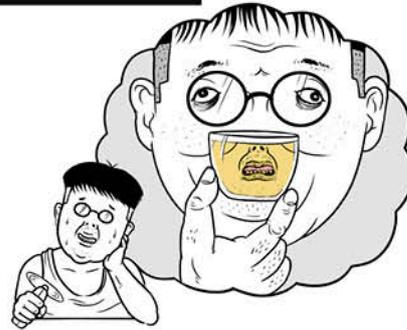


계획
그녀가 오는 길목에 촛불로 길을 만들고 마지막 자리에 하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꽃다발을 쥐어야지.

현실
촛불이 불길로 번져 홀랑 타버린 집.



내 머릿속의 지우개



계획
그녀와 적당히 취했을 때쯤, <내 머릿속의 지우개> 정우성처럼 "이 술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고 고백해야지.

현실
긴장한 탓에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김. 다음 날 온몸이 토사물로 범벅이 된 자신을 발견.



정의의 사도



계획
그녀가 불량배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야, 이 자식들아 그만두지 못해?" 하면서 구해줘야지.

현실
진짜 불량해 보이는 건장한 청년들이 앞에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고 모른 척 도망가기 바쁨.



비를 맞으며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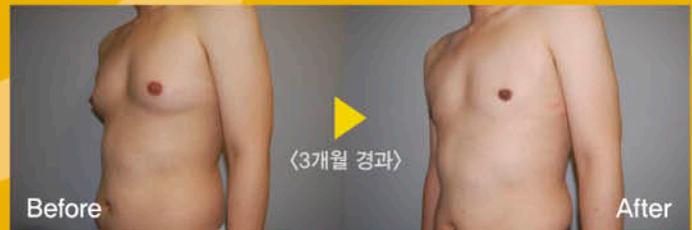
계획
몇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며 기다린 내 모습에 감동하여 그녀의 마음이 변하겠지?

현실
그녀가 싫다면 싫은 거다.



2012년, 자신감 있는 바디 실루엣을 찾아라!

여성형 유방증,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만나보자.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운동을 통해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면 가슴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성형 유방증은 가슴 안에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운동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이 복잡했으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편의점과 마트에서 만든 라면, 그 맛은?

너네도 꺼달라고? 알아어.
BY 누들러 DESIGN 신속희

최근 동네 마트나 편의점 진열대엔 자기네 가게에서만 판다는 PB(Private Brand) 상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예로부터 패스는 사비, 운전은 범블비, 정액은 홀아비, 그리고 최저가는 PB라지만... 싼 게 비지떡인 세상 속에서 그나마 건질 만한 PB 상품이 대체 있기는 한 걸까?



맛있다!

이 정도면 신라면이랑 붙어도 승산이 있겠다.

olleh!



박스프, 김면발

박스프 달고 안 매운 초딩 입맛을 지향 /하고 싶은 말: "나와 같이 어린 허를 지닌 형제 자매들이여, 김면발의 주장은 다 개소리다. 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김면발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라면을 선호 /좋아하는 라면: 나가사끼 /싫어하는 라면: 치즈라면 /없는 것: 여자친구 /가진 것: 시간과 정액 /좋아하는 아동 배우: 사토미 스키



박스프의 추천

세븐일레븐 김치송송 칼국수



박스프

면 두께만 본다면 우동인지 칼국수인지 오라가락하지만, 맛은 "한 칼국수 하실래예?"를 외칠 만하다. 뜨거운 물을 붓고 만능 세트 전 자레인지님께서 2분 30초간 돌려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덕에 국물이 면 속으로 짹짹 흡수된다. 건방진 조리 과정이지만 맛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만하다. 술값만 잔뜩 쓰고 별 소득 없이 끝난 당신의 불금을 위로해줄 최고의 해장 라면.



김면발의 추천

GS 공화춘 짬뽕



김면발

뜨거운 물을 부어본다. 푸짐한 건더기 블록이 물속으로 녹아들더니, 그 위에 올라간 불그스레한 고추기름이 지글거린다. 면발의 굵기와 탄성은 물론 국물까지 흡집을 데가 없다. 새우강도 아닌데 자꾸만 손이 간다. 소비자들의 나트륨 부족을 지나치게 우려한 GS의 배려로, 조금 짠 것이 흠이라면 흠. 올해만큼은 MT 갈 때 신라면이 아닌 공화춘을 한 박스 사들고 떠나자.



정말 맛없다!
돈 주고 이따위 걸 먹어야 하다니!



골 때리는
라면 광고
보러가기



에마트
라면이라면



홈플러스
**얼큰한 맛으로
소문난 라면**



헤미리마트
배터질라면(얼큰한 해물 맛)

김면발

라면이 지켜야 할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국물도 건더기도 그럴듯하지만 무언가 허전하다. 오투기가 기스면에서 중요한 비법 몇 가지와 박유천을 빼고 준 듯한 맛. 탕양저장 맛도 그렇다. 어느 모로 보나 그냥 기스면이 낫다.

박스프

오투기와 에마트가 공동 연구 끝에 만든 라면. 그러나 누가 봐도 에마트가 만들라고 시켜서 오투기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어낸 것 같다. 흰 국물에 간간이 보이는 실고추로 풍미를 더했고, 국물부터 면발까지 딱히 모난 곳은 없지만 딱히도 드라지는 매력도 없다.

김면발

홈플러스가 동네 슈퍼 다 밟아 부수는 걸로 소문난 건 알았어도, 얼큰한 맛으로도 소문난 줄은 몰랐다. 직접 벗겨보니 과소문이었다. 그녀의 숨가가 모두 뽕이었을 때의 허탈감이랄까. 식약청에서는 '얼큰'이라는 단어를 상품에 함부로 쓸 수 없게 하라.

박스프

혹여 누가 홈플러스에서 5개짜리 번들을 집거든, 살포시 손을 잡으며 옆의 것을 권하길. 분명 처음 구매하는 사람일 테니까. 수중에 돈이 500원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야동 서너 개 덜 받고 몇 백원 더 써서 다른 라면을 사 먹는 게 낫다.

김면발

면발은 일을 막 끝낸 존슨처럼 힘이 없고, 국물에서는 삼류 요리사가 실패한 해물탕 맛이 난다. 이걸 스티븐 시걸에게 권한다면 나는 아마 총에 맞아 죽겠지. 투!

박스프

평소 곱빼기, 사리 추가, 무한 리필 같은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걸신들을 위한 라면. 기존 사발면에 비해 면의 양이 15%나 더 많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배를 터지게 만들 만큼은 아니다. 그냥 맛있는 거 두 개 머경. 🍜

누, 누구세요?

이달의 별첨 스프



두레 쌀라면

몸에 좋은 라면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은 귀감을 살 만하나 쌀이니, 감자니, 곤약면이니 하는 것들을 첨가하며 웰빙을 약속하는 라면치고 맛있는 라면 못 봤다. 전국 두레 생협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줄 평: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라면까지 몸에 좋은 걸 먹나.

라면 시먹게
오백 원만...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고?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다. 작년보다 나아진 것 하나 없이 시간이나 축내고 있었다면, 이 기사 보고 정신 좀 차리자. DESIGN 신숙희



◀ 너보다 쓸모 있어 마멋 '필'

평소엔 쓸모없는 짓거리로 시간을 보내다 1년에 딱 한 번 사람다운 일을 한다면,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MAXIM 에디터거나, 아니면 기상예보관 다람쥐. 양키들은 매년 다람쥐와 동물인 마멋(그라운드 호그)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굴 밖으로 나와 자기 그림자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봄이 언제 올지 예측하는 그라운드 호그 데이 행사를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칩과 같다. 이날 '핑크서토니 필'이라는 이름의 마멋이 굴 밖으로 나오는 걸 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적중률이 60%밖에 안 되는데도 여전히 많은 호구 인간들은 이 쥐새끼에 열광한다. 설마 이날을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보다 부자아 마르티스 '트러블'

남의 무릎 위에서 궁둥이 살랑대는 것만으로 천만장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덟 살 먹은 마르티스 개 '트러블'은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인 주인 레오나 헬슬리에게서 1,200만 달러를 물려받았다. 헬슬리의 손자, 손녀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 이 개새끼의 1년 유지비는 약 2억 7천만 원. 트러블은 잦은 납치, 살해 협박 때문에 전용 여행기를 타고 피난을 다닌다고, 임마, 너 한국이었으면 말복 무사히 넘기긴 힘들었을 거다.



너보다 의지가 강해 양친구 신월동 뱀 때

얼마 전 서울 주택가에 출몰한 야생 뱀 한 무리가 우리나라를 발각 뒤집었다. 남의 집 담벼락에서, 안방 TV 뒤에서 노닐다 잡힌 구렁이 중엔 멸종위기의 황구렁이도 있었다. 23마리의 뱀이 동네 건강원에서 탈출했는데, 이 중 13마리가 잡히고 4마리는 죽었다. 아직 6마리는 여전히 동네 마실 중이라는 얘기. 뱀술로 담길 운명을 거슬러 '프리즌 브레이크'를 시전하다 잡히거나 죽다니, 그 운명 꽃뱀보다 더 독하구나.



너보다 인기 많아

브롱스 동물원의 이집트 코브라

미국에도 대탈주극을 벌인 코브라가 있다. 지난 7월, 동물원을 탈출한 이집트 코브라에게 트위터가 생겼는데, 팔로워가 탈출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었다. 탈주 루트를 알려주며 인간과의 숭배꼭질을 즐기고, 세련된 뉴욕커 유머를 구사하던 코브라는 얼마 후 동물원 우리 근처 구석에서 발견됐다. "트위터 로고(새)가 바뀐. 여전히 맛있어 보임.", "모히토 시킨 지 1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 굶픈 동물원 직원님?" 등,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트윗을 하고 있다. 사실 트위터는 딴 사람이 했는데 관심은 지가 다 받다니, 뱀같이 아비한 놈이다.



너보다 용감해

다람쥐원숭이 '미스 베이커'

암컷 다람쥐원숭이 '미스 베이커'는 우주여행에서 살아 돌아온 최초의 유인원이다. 1959년 미스 베이커와 함께 우주선에 실린 '미스 에이불'은 지구에 온 지 4일 후 수술 중 마취 사고로 죽었고, 혼자 살아남은 베이커는 이후 우주여행의 아이콘이 되어 잡지 커버도 장식하고, 나라에서 상도 받고, 쏟아지는 선물과 팬레터에, 생일마다 딸기맛 젤리, 치즈 등을 선물 받았다. 베이커는 두 마리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 1984년에 사망했다. 아직까지도 그녀의 묘비에는 늘 추모객들이 헌납한 바나나가 놓여 있다고.

성난 황소를 피하는 법

1.5톤의 황소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돌진할 때 살아남는 방법.

1. 자살 충동이 들거나 제대로 미치지 않은 이상, 가만있는 황소를 뺨치게 할 일은 없겠지?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당신의 가늘픈 육체를 빨간 천 삼아 투우를 하게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2단계로 넘어가자. 자신의 멍청함을 탓하고 있기엔 시간이 없어!

2.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거대한 녀석은 언제든지 뺨을 세우고 불알을 흔들면서 달려들어 당신을 휴잇조각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무조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숨을 곳을 찾아라. 없어? 선불리 도망가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 셔츠를 벗어라. 이미 벗었어? 그럼 바지라도 벗어서 최대한 멀리 던진다. 멍청한 황소가 옷가지들 따라 돌진할 때 신속하게 주변을 살펴 달아나도록. 이 작전이 실패해도 슬퍼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이미 바지를 벗고 있기 때문에, 응급요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거다. 고자는 면해지지. 안 그래?

ILLUSTRATION 전영호



투우는 괴로워 람보르기니에 치이면 돈이라도 받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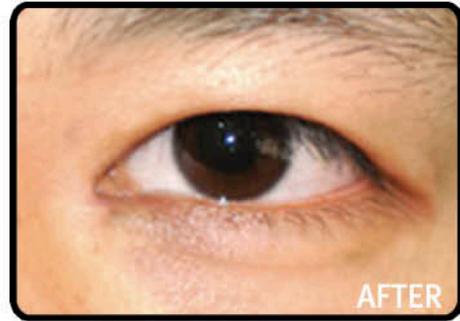
홀리오 아파라시오는 황소에게 목을 찔러 입으로 뿔이 들어가는 기적을 행했다. 두 번의 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다.



후안 호세 파디아는 소의 뿔이 얼굴 반쪽을 관통해 실명했음에도 치료 후 애꾸는 기막으로 활동하는 대인배적 패기를 보여줬다.



एंढिंग이 예쁜 페드로 무리엘은 황소에게 치이고 애인한테도 차일 뻔했으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 고자를 면했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



강냉이 털리고 싶어?

거친 남자 이말년

죽음을 24시간 앞둔 인터뷰에서도 이말년의 입은 거칠었다. 입에 걸레를 물지언정 이 형이 틀린 말은 하진 않잖아?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ASSISTANT 손안나



자, 어떻게 죽고 싶나?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죽는 빨찌 같은 것 말고 그냥 자다가 편하게 죽고 싶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필사의 유작을 남기는 건 어떨까?

휴... 그림은 싫다. 게임 좀 하다가 산책 끝나고 자면서 죽으면 안 되나? 죽기 전인데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 죽기 전에 삼정 주인한테 가게 오픈할 거냐고, 피씨방 사장한테 컵라면 물 받을 거냐고 물어볼 건가?

죽기 전에 기안84(패션왕) 작가) 걱정은 안 되나?

고작 24시간 남았는데 거기서 또 쪼개서 기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안 할 것 같은데.(웃음)

기안과 많이 친한 걸로 아는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원래는 그렇게 안친했는데, 같이 작업실을 구하다가 결국 같이 살게 되면서 친해졌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산거다. 원래는 동거할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이 엄청 미인이다. 결혼하고 달랠진 게 있나?

설거지를 내가 안 하게 됐다. 기안과 살 때는 내가 설거지 담당이었다. 그리고 라면 먹는 일이 좋았다든 점.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추천하나?

물론이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당신 독자들도 가히 정상은 아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만화 평점을 "7.4로 맞추자! 6.9로 맞추자!"며(74는 질내사정을, 69는 성행위 자세를 의미) 게시판에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나도 "결혼은 섹스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독자들한테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지금 평점은 어중간하게 7.1인가로 바뀌었다.

전부터 궁금했다. <이말년 시리즈> 한 편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아이디어 짜는 것 빼면 한 8시간. 나는 적게 걸리는 편이다. 다른 웹툰 작가들은 일주일 내내 원고를 잡고 있다. 그런데 8시간이나 걸려서 그린 그림을 보면 그만큼 오래 걸려서 그린 것 같지 않아서 가끔 좀 열 받는다.

하긴, 에디터도 대충 그린 줄 알았다.

손이 느리고 수정하는 게 많아서 오래 걸리는 편이다. 누가 블로그에 "되게 잘 그린다. 어떻게 마우스

로 이렇게 그리냐'라는 글을 남겼는데, 나 엄청 비싼 태블릿 쓰거든?

당신의 그림 실력을 놓고 '잘 그린다vs못 그린다' 논쟁이 뜨겁다. 건국대 시각디자인학과면 보통 재능은 아닐 텐데, 실제 그림 실력은 어떤가?

못 그린다. 학창 시절 클럽 활동으로 만화부에 지원서를 넣은 적이 있었다. 반에서 세 명 넣었는데 선배가 나만 따로 부르길래 '아 나만 붙었나 보다' 했는데 선배가 건네준 쪽지를 보니 '귀하는 5대 1의 경쟁률에서 열심히 그렸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린 놈들이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그냥 떨어졌다고 하면 되지 재수없게.

<마구마구> 제작자들에게 "도도새가 운영해도 너희보다 잘하겠다."라고 비방한 사건이 유명하다. 게임 관계자들이 결혼식에도 왔던데, 화해한 건가? 결혼식 때 <마구마구> 개발팀 두 분이 화환을 들고 왔다. 축의금으로 게임 머니를 약 30만 원 어치 정도 주었다. 그래서 화해했다.(웃음) 근데 그 뒤로 <마구마구>를 한 적이 없다. 더 재밌는 게임이 나왔거든.

얼마 전 트위터에서 H.O.T를 언급했다가 팬들에게 물매를 맞았다. 누가 이말년을 욕하면 당신 팬들도 나서줄까?

아예 신경 안 쓸 것 같다. 나 팬들은 미래알 같다. 잘 몽쳐지지도 않고 그냥 만화만 본다.

이번 티아라 사건에 "티아라 미친X들아, 너희 때문에 올림픽 기사가 묻히잖아."라고 일침을 가한 일은 정말 통쾌했다.

그 건은 좀 억울하다. 맨처음 남긴 트윗글은 '미친 남'이었는데, 그게 기사로 바뀌면서 내가 무슨 쌍욕을 한 것처럼 변질됐다. 그래서 내가 악플러의 집중 포격을 맞았지.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사가 난 건가?

솔직히 쓰면서 내심 감이 왔다. 트위터 한 지 1분 만에 RT가 솟구쳤다. '아, 이거 기사 나겠다. 또 천하의 개쌍놈 되겠다.' 생각했지. 근데 뭐 기사가 나가고 "사실은 그때가 마강 전날인 터라 저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해명하기도 웃겨서 가만히 있었다.

당신 아버지께서 제조하는 '삿뽀로 라멘' 과자에 이말년 일러스트가 들어 있다. 혐의한 사항인가?

원래는 다른 그림을 그려서 드렸는데, 굳이 내 모습을 그린 일러가 들어가야 잘 팔린다고 우기셔서 과자와 어울리지 않는 노란 얼굴의 그림이 들어갔다. 그때는 꽤 팔렸었는데 일본에서 원전이 터지고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망했다. 충북 음성에서 제조한 과자인데, 괜히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웃음)



이상한 기사 좀 작작 써!
기자놈들아!

근데 왜 당신을 이말년이라고 부르는 건가?

군대 시절 내가 직접 지은 호다. "군대 말년이 편하니까 인생 말년은 얼마나 편할까? 꼭 해야 하는 일 없이 넉넉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다. 근데 이렇게 쉬질 못하고 일만 할 줄이야. 젠장.

묘비명엔 뭐라고 적고 싶은가?

난 흔적 남는 게 싫어서 화장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한다면 비석에 만화 한 컷을 넣고 싶다. '외장창' 한 컷 넣으면 예쁘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 그림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여기에 그린 사람이 묻혔나?' 하고 알아봐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

당신의 표현력은 정말 기가 막힌다. 흑시 글 써볼 생각은 없나?

글 쓰는 것 좋다. 예전에 '한 페이지 소설'에 공모한 적 있었는데 <고등어>라는 작품으로 30만 원을 탄 적도 있다.

그럼 소설의 내용도 이말년스럽게 구성할 생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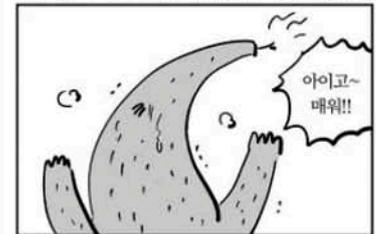
어제 이태원에서 보니까 흑인 두 명이 힙합 차림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장수 막걸리를 병째로 마시고 있었다. 근데 흑인이 하얀 술을 마시는데 묘하게 어울렸다. 그런 느낌의 소설을 쓰고 싶다. 이말년스러움과 진지함이 묘하게 어울리는 그런 소설 말이다.

죽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웹툰'을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자. <이말년의 4컷 스페셜>을 수요일과 목요일 연재하는데 참 재밌다.

지금 죽는 마당에 자기 웹툰 광고를 하다니, 저승에서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만!

이말년의 4컷 스페셜 글/그림: 이말년 재미할기



이말년이 강력 추천한 쫄나 웃긴 만화

H

Women,
Dating,
Sex, and
More Sex!

T

SAUCE

The Helpful Hottie

갈팡질팡 방황하는 당신을 위해
미녀 로렌이 당신의 이정표를
곧추세우러 왔다. DESIGN 신숙희

**여자를 꼬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
까요? - JEROME GREEN**

헬스클럽은 섹시한 여성이 모이는 핫 플레이스죠. 운동으로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넘칠 때, 땀에 살짝 젖은 섹시한 남자가 다가와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그걸 거절할 여자는 없을 걸요?

**허브 농장을 하는 건 너무 여성스럽나요?
- BRENDAN GOLD**

전혀요! 허브를 키운다는 건 당신이 요리에 관심 있다는 얘기겠죠? 요리를 잘하는 남자는 너무 섹시해요!

여자들은 말로는 로맨틱한 남자들을 꿈꾼다지만 현실에선 그런 부류와 잘 만나주지 않아요. 왜죠? - DAVID BE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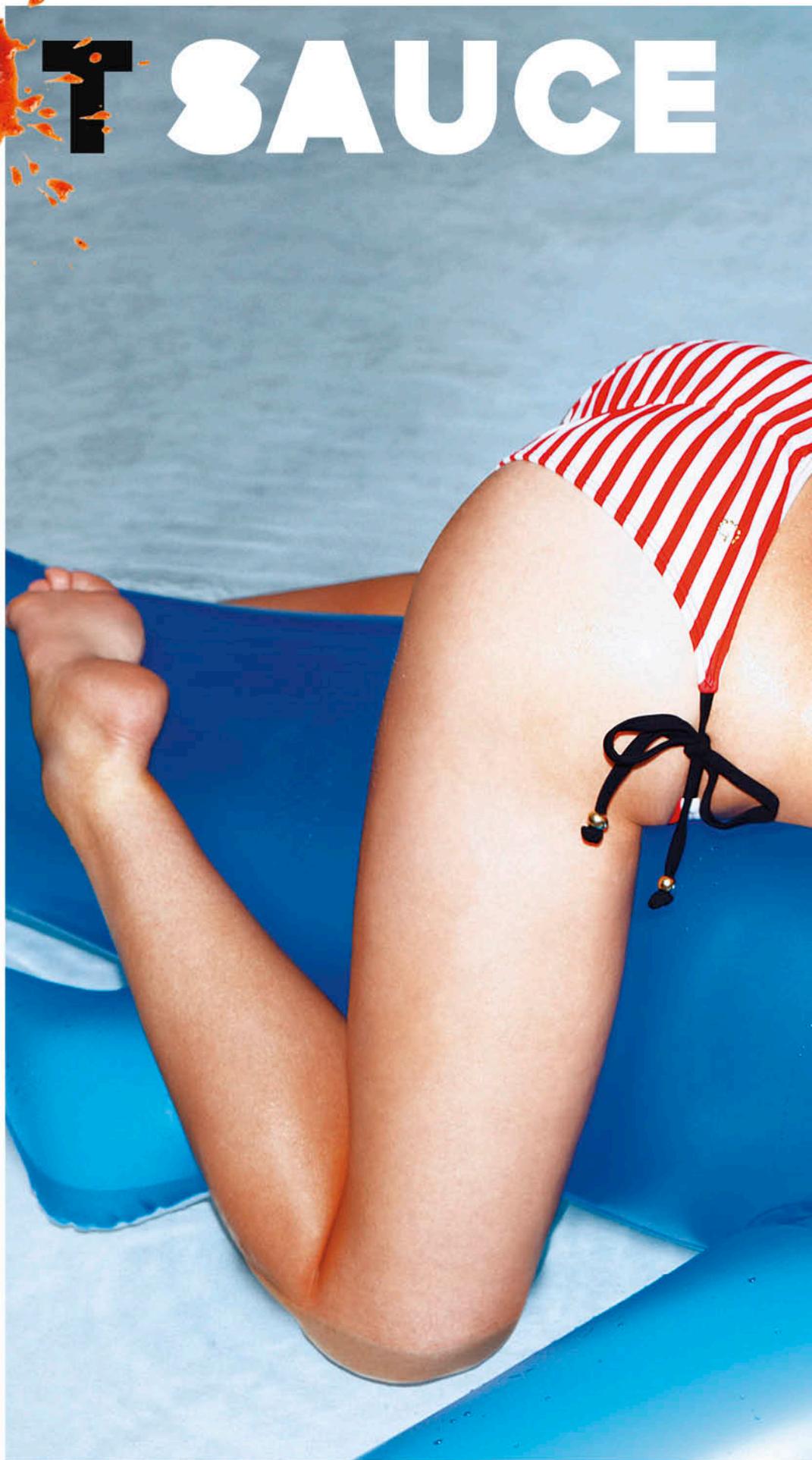
남자들은 종종 '로맨틱한' 것과 '소름끼치는' 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매일 꽃을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건 듣기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벤트 같겠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스토커에 불과하지요.

회사를 땡땡이 치는 관습은 방법이 없을까요? - PHILLIP CIRIC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하세요. 아마 상사도 불쌍히 여길 거예요. 사망 기사가 날 것도 아니고, 누가 개 사체를 보겠다고 따라올 것도 아니니까 딱 좋지 않나요?

저는 왜 팔꿈치에서 심장 박동이 느껴질까요? - ADAM ALBERTON

저라면 이걸 읽을 시간에 119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상태가 꽤 심각해 보이는데...





이 돌고래 튜브는
촬영 내내 이상하리만치
부풀어 오르다 거의 터지려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가까스로
구조했다.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레지던트 이블 5: 최후의 심판

T-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앨리스, V3보다 무섭다
BY 손안나 DESIGN 신숙희

점점 망작이 되고 있다는 초창기 팬들의 불만과는 달리 갈수록 흥행은 잘 되고 있는 영화 <레지던트 이블>. 이번에는 좀비들이 무기까지 집어 들고 작정했다던데... 뭐, 그래봤자 밀라 요보비치한테는 이쑤시개를 든 햄스터 정도로 밖에 안 보일 테지만.

9월 13일 개봉

캠프 파이어?

얼마아아아아악!

밀라 요보비치의 파란만장한 연애사



1992년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 크리스천 슬레이터와 영화 <초보 영웅 컵스>에서 만나 눈이 맞았다. 이를 시기한 소녀 팬들의 '저 요망한 년 죽인다'는 원성이 대단했다.



1992년 영화 <멍하고 혼돈스러운>에서 만난 남자 주인공 손 앤드류와 라스베이거스로 야반도주 후 결혼에 골인했다. 이때 그녀 나이 16세였다. 어렸을 때부터 발랑 까졌었구먼.



1994년 부모 몰래한 결혼 때문에 유럽으로 강제 유학을 가게 됐다. 거기서 만난 자미로라이의 전 베이시스트 스튜어트 찰더와 런던에서 2년간 동거했다.



엄브렐라의 본사는
대전에

**이달엔
사만없다**



대전 정부청사



엄브렐라 코퍼레이션

"누나가 널 모레 마흔이다,
시끼들아!"

뭐지, 이 소름끼치는 싱크로율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만든
이유가 전세계 프리메이슨들에게
엄브렐라 본사가 대전으로 이전했
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소문도
있다. 그럴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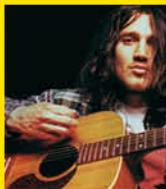
예고편
보기



1997년 영화 <제5원소>에
서 만난 감독 킵 베송과
16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
하고 결혼했다. 하지만
2년 뒤 또다시 이혼 크리.



1998년 그렇다고 연
상만 좋아하는 건 아
니다. 연하도 만났다.
다섯 살 어린 영국
뮤지션 애노 바킨이
그 주인공.



2002년 그러던 중
레드햇칠리페퍼스의
기타리스트 존 프루
시안테와 양다리를
걸쳤다. 난 년이네,
정말...



2009년 <레지던트 이
블>의 폴 W.S. 앤더슨
감독과 결혼했다. 토끼
같은 딸까지 낳고 아직
까지는 지지고 볶으며
잘 살고 있는 듯.

납치 영화 종합 선물 세트

뭐든 납치하고 본다. 그것이 스릴러의 정석! BY 이영환 DESIGN 전은경

찍으면
납치됩니다



딸+마누라 납치류

테이큰 2

니슨 웅 박물면
파곤해지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거니?



직역하면 제목부터 대놓고 노골적인 '납치 2. 아시다시피 <테이큰>은 전직 특수 요원 아빠의 돌도 없는 망나니 딸이 납치되는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다. 과연 이번 시리즈에선 인신매매 일당들이 또 어떤 허술한 납치 계획을 세웠다가 처절하게 얻어터질지 기대되는 바다. 이번엔 또 하필 니슨 웅이 마누라와 딸을 동시에 납치당해 누굴 먼저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데... 구출 후 모녀 간 서로 머리 꼬댁이 잡고 싸우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니슨 웅은 처세에 신경 좀 써야 할 듯. **9월 개봉**



떡 납치상이네.

집담: 전면에서 리암 니슨의 딸로 출연한 매기 그레이스는 후속작 <락아웃>에서도 납치당하는 민폐녀로 캐스팅됐다.

청소년 납치류 이웃사람



영화 <아저씨>의 동네 주민 버전 생활 밀착형 납치 영화를 표방한 <이웃사람>은 한 여중생의 실해 용의자로 같은 빌라에 사는 남성이 지목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서스펜스 스릴러다. 특히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단발머리 곱게 빗은 건달 역을 훌륭히 소화해낸 김성균이 납치범으로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두순과 공밥 나눠 먹고 싶지 않으면 납치는 꿈도 꾸지 말 것. **8월 23일 개봉**

집담: 청소년 납치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유인과 간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장기 납치류 공모자들



기업형 장기 밀매 프로젝트 배를 타고 중국으로 커플 여행을 가던 중 난데없이 여자친구가 바다 한 가운데서 뿜 하고 사라졌다. 난센스 퀴즈나 고질적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다. 중국 장기 밀매 조직이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납치해 장기를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오줌지릴 것 같은 괴담에 대한 이야기다. 인터넷 괴담의 반응이 워낙 뜨거워 영화로까지 제작됐더니, 흥행에는 문제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군. **8월 30일 개봉**

집담: 부산 사투리 연기를 위해 한 달간 부산에서 전지훈련을 했다는 임창정. 별 게 다 전지훈련이다.

특수 요원 납치류 브레이크



눈떠 보니 트렁크 안 신세 영화 속 특수 요원이라 함은 자연서도 적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빗발치는 총알도 춤추듯 피하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종자 아니던가. 그런데 어째서 이 훌륭한 특수 요원님이 차 트렁크 안에 납치된 채, 아기처럼 곤히 잠을 쳐자고 계셨단 말인가. 결국 끝 부분쯤 가면 람보로 빙의해 손가락만 스텐도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릴 거면서 말이다. 아무튼 제이슨 스타뎀이 애들 몰 다 버려놨어. **8월 16일 개봉**

집담: 감독이 폐쇄 납치 스릴러 영화 <베리드> 제작진 중 한 명이었던지, 그 나물에 그 밥이로구나!

**명예의 전당:
명칭한
납치 부문**

수상자는요...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의 유해진 어머니 틀니 값을 위해 납치에 가담한 유해진.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보조금이 지급된다던데... 원 뿔짓이람.



<아저씨>의 김성오 가족이나 아마도 원빈에게 면상 들이밀며 약 올리다 결국 황천길 편도 열차에 탑승함. 악당들은 꼭 주둥이가 문제지.



<악마를 보았다>의 이병헌 사지 멸정한 연쇄살인범을 알프스 산맥에 풀어놓은 순한 양 취급했다가 결국 존망 체험.



태연 납치남 (응?)
납치가 아닙니다.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태연 씨, 허허허. (다행히 법적 처벌은 면했다는 후문.)

ALBUM OF THE MONTH

젖은 겨드랑이가 마를 날 없는
텅텅한 여름의 막바지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달의 앨범들.

BY 조용재 DESIGN 서윤정

읽지만 말고
좀 들어라



Inspector Cluzo The 2 Mousquetaires of Gasconha



'2인조 록 밴드'라는 말도 안 되는 라인업으로 2009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떠들썩하게 만든 프랑스 밴드 〈킹콩〉과 〈스쿨 오브 락〉으로 잘 알려진 배우 잭

블랙의 2인조 밴드 '터네이셔스 D'와 비슷한 코믹 콘셉트를 표방하고 있으나 음악은 훨씬 세련됐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신나는 록 사운드와 방정맞지만 매력 있는 세션, 'The Fb's Horns'의 트럼펫 소리가 마치 〈허여가〉의 태평소 소리처럼 묘하게 어울린다. 꽤나 복잡해 보이는 이 앨범의 이름은 '더 투 무스케테르스 오브 가스코뉴어'라고 읽으니 어디 가서 잘난 척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자.

Editor's Choice: Move On Up

괜히 트럼펫 세션을 쓴 게 아니다. 병신 같지만 멋진다는 말은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지!

피노키오 다시 만난 우리에게



신해철, 윤상, 윤종신 등이 유희열이라는 천재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누리며 장난감 놀이질을 하고 있을 때, 수많은 그룹과 명곡들이 1990년대를 풍미하고는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토이의 발라드 넘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과 함께 항상 세트로 떠오르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사이'를 기억하는 8090세대라면 이들의 재결성이 달갑다 못해 눈물겨울 것이다. 얼마 전 김경호와 김연우라는 상상 속의 생물... 아니, 조합이 〈나기수〉에서 모처럼 시선을 주고받으며 부른 그 노래 맞다. 물론 향수를 자극하는 촌스러운 신디사이저가 사라지고,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도입되었다는 점은 멋지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운 부분이다.

Editor's Choice: 사랑과 우정사이

그냥 이 노래를 위한 앨범이다. 다른 거 없다.

NEGOTO Ex Negoto



미안한 얘기지만, 멤버들의 얼굴을 몇 번씩 들여다봐도 예쁘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든 본격 실력파 밴드. 반면, 음악은 마치 스피츠의 앨범처럼 한 번에 귀로 쏙쏙 들

어오는 멜로디 라인을 자랑한다. 맑은 여름 하늘같이 시원하고 청량감 넘치는 사운드가 쪽쪽 뺨는 보컬 사치코의 맑은 보이소와 만나 듣는 이의 입가에 미소를 흘리게 한다. 한때 수많은 덕후를 양산했던 미소녀 밴드 애니메이션 〈K-ON〉의 콘셉트를 어느 정도 차용했다는 느낌을 버릴 순 없지만, '소녀 감성'을 대중에게 이보다 잘 어필할 밴드가 얼마나 있을까.

Editor's Choice: サイダーの海(사이다의 바다)

아스트랄한 제목과는 다르게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사운드가 일품. 가사는 몰라요!

Soundtrack Rock of Ages



이 사운드트랙이 발매된 지는 어느덧 두 달이 넘어 가지만, 8월에 개봉한 영화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버려졌던 이 음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980년대의 헤비메탈 아이콘이자 섹스 머신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톰 크루즈의 농염한 연기와 알렉 볼드윈의 찐한 게이 키스신만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 영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불행아. 데프 레파드, 건즈 앤 로지스, 스킵 로우, 콰이어트 라잇 등 향수를 자극하는 1980년대 록 밴드의 촌스러움이 아련하게 가슴을 저린다면, 그리고 카메오 '시위꾼 1'로 등장하는 세바스찬 바흐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다면, 당신은 제대로 이 음반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Editor's Choice: Any Way You Want it

제대로 말상인 흑누님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가창력은 파워풀하다 못해 마력(馬力)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OLD DAYS 20년 전 이달의 인기 차아트



1위
넥스트 1집

당시 1위를 달리던 '도시안'의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한 손엔 휴대전화, 허리엔 배배 차고"라니, 차가운 도시 남자의 아우라가 요즘 못지않다.



2위
윤상 2집

'가려진 시간 사이로'의 히트가 윤상의 밥줄이 될 줄은 그땐 몰랐겠지. 커다란 두 눈의 그 소녀 때문에 아직까지 방황하는 성인의 이야기가 전자발찌 차기에 적격이다.



3위
이오공감 1집

이승환의 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발라드 넘버 '한사람을 위한 마음'을 틀어놓고 아근을 하게 될 거라는 에디터의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다.



4위
세태지와 아이들 1집

명불허전 문화대통령 세태지의 공식적인 데뷔 앨범. '난 알아요'가 없었다면 YG도 없었다. GD는 아마 지금쯤 힙통령 장문복이 되었을 거고, 공민지는 병신춤을 추고 있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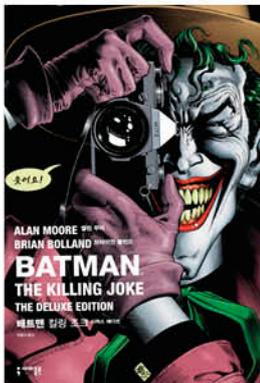
5위
이덕진 1집

당시엔 김장훈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탁월한 사우팅 창법을 구사하던 '테리우스'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인기를 끌었다. 에디터가 아는 한 가지는 마길일 뿐'이라는 게 슬프다.

배트맨 vs. 배트맨

아직도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여운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걸 추천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3부작으로 이어지는 그의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작품들.

BY 김희성 DESIGN 서운정
COOPERATION 세미콜론(02-515-2000)



<배트맨: 킬링 조크>

앨런 무어, 브라이언 볼랜드 저/ 박중서 역/ 세미콜론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의 최고 히트 캐릭터 '조커'. 이전 배트맨 시리즈에서의 조커는 그냥 악당 캐릭터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놀란 감독이 조커의 악행에 철학을 부여함으로써 <다크나이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게다가故 히스 레저가 완벽하게 조커로 빙의해 신들린 연기를 선보였고, 이것으로 '조커'란 캐릭터는 포텐이 터졌다. 그 배경에는 이 책이 있다. 히스 레저가 호텔방에서 조커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읽었다는 <배트맨: 킬링 조크>는 조커의 탄생 비화를 담은 그래픽 노블로, <프롬 헬>, <브이 포 벤데타>, <왓치맨> 등을 탄생시킨 영국 작가 앨런 무어의 손에서 태어났다. 뭐야, 안 읽을 수가 없잖아?



<배트맨: 롱 할로윈 1, 2>

제프 로브 저/ 박중서 역/ 세미콜론

조커도 조커지만 <다크나이트>에는 매력적인 악당 캐릭터가 또 있다. 바로 '투페이스'다. 투페이스의 탄생을 다룬 <배트맨: 롱 할로윈>은 기념일마다 살인을 저지르며 도시를 위협에 빠뜨리는 홀리데이 킬러와 그를 쫓는 배트맨, 짐 고든이 등장하는 탐정물이다. 배트맨 시리즈 중 가장 흥미진진한 추리극으로 꼽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배트맨 스토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1년에 걸쳐 연재된 13편의 이야기들을 묶은 이 작품은 매 회마다 수수께끼 같은 단서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있다. 히어로물이지만 선악의 대립구조가 아닌 느와르 톤은 작품이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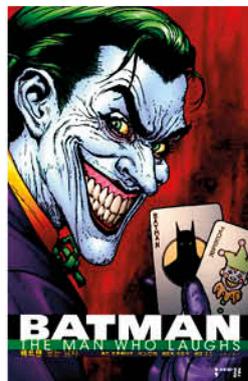
이거 다 갖고 싶어?



<배트맨: 이어 원>

프랭크 밀러, 데이비드 마주켈리, 리치먼드 루이스 저/ 광경신 역/ 세미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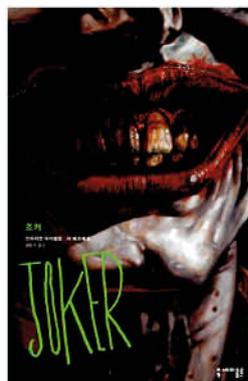
<배트맨: 이어 원>은 <배트맨: 다크 나이트 리턴즈>, <씬 시티>, <300> 등으로 미국 만화계의 거장 반열에 오른 프랭크 밀러의 작품으로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어가는 기원을 다뤘다. 이 작품으로 인해 다소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로 흐르던 배트맨 시리즈가 다크한 기운을 풍기게 된다. 놀란 감독은 <배트맨: 이어 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배트맨 비긴즈>를 만들었으며 그래서인지 기존의 복장도착자 파티 같은 배트맨 영화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브루스 웨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인 '극장 앞 부모의 죽음'이 처음으로 묘사된 작품이기도 하다.



<배트맨: 웃는 남자>

에드 브루베이커, 패트릭 지르커, 에런 소드 글, 더그 만케 그림/ 김동욱 역/ 세미콜론

히스 레저가 조커의 연기를 위해 읽은 책이 한 권 더 있다. 조커의 탄생을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 <배트맨: 웃는 남자>다. 이 책은 '웃는 남자'와 '나무로 만든 것'이라는 총 두 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웃는 남자'가 조커의 탄생을 대한 이야기이다. <배트맨: 킬링 조크>가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비슷하다면 <배트맨: 웃는 남자>는 전체 내용으로 봐서나 캐릭터로 봐서나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1>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와 비슷하다. 참고로 '나무로 만든 것'은 DC 코믹스의 히어로 중 한 명인 그린 랜턴이 고담 시에 등장한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을 담고 있다. 이것도 안 읽을 수가 없겠지?



<조커>

브라이언 아자렐로 글, 리 베르메호 그림/ 김동욱 역/ 세미콜론

놀란 감독에게 영향을 준 앞의 작품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그래픽 노블도 있다. 바로 역대 조커 캐릭터 중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히스 레저의 조커를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다. 배트맨이 아닌 조커가 주인공이며 심지어 배트맨은 채 열 페이지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광대 같은 행동을 하던 악당에서 현실적인 악당으로 되살아난 조커가 주인공이 니만큼 투페이스, 팬텀, 리더러 같은 캐릭터도 현실에 있을법한 악당으로 대체됐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히스 레저의 조커를 볼 수 없어 무척이나 아쉬웠지만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 그나마 위안이 좀 된다.

연인들이 뽑은 최고의 연극!!

이제 **강남 코엑스**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기세요!



연극 **그 남자 그 여자**



스캔하고
티켓받자



<그 남자 그 여자>가 제안하는 명품 데이트코스!
바이킹뷔페 패키지 (공연티켓 1매 + 바이킹뷔페 식사권 1매)

평일런치패키지	평일디너패키지	주말전일패키지
44,000원	52,000원	56,000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인터파크 티켓)를 참고하세요!



2012. 9. 5수 ~ 11.4일 코엑스아트홀

화,목 8시 / 수,금 5시, 8시 / 토,일,공휴일 4시, 7시 (월 셋 / 10월 1일(월) 4시 공연있음 / 10월 2일(화) 공연없음)

예매 및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티켓가격 30,000원 공동제작 (주)가을엔터테인먼트, 나인스토리

It's FREE STYLE SHOWTIME

누가 요즘 클럽에 부비부비하러 가니?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최혜연 HAIR&MAKEUP 이현정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손안나, 조홍재
COOPERATIONS 조이시티(www.joicity.com), 흥대 품문
(02-325-0008), 잇츠닷 액세서라이즈(www.itsdotacc.com)

프리스타일이 8년 만에 새 얼굴로 돌아왔다!

확 달라진 분위기

전용 맵인 '쇼타임 라이브홀'에서 수많은 관중과 화려한 클럽 조명에 둘러싸여 농구를 즐겨보자. 여자 캐릭터의 치마속까지 들여다 보일 만큼 화끈하고 대담한 카메라 뷰, 여기에 진짜 클럽처럼 DJ들이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틀고 맛깔나는 멘트를 날려주니 진짜 불금이 된 것만 같다. 아오, 진짜 이렇게 바뀌었으면 에디터가 수능 끝나고 클럽에서 말고 이걸로 밤을 새웠을 텐데!



아, 나와 항상 웨이더 농구!

새롭게 짜인 판

3대3 풀 코트로 게임을 진행하니 농구 감독처럼 다양한 전략을 플레이 패턴에 녹이는 맛이 제법 쓸쓸해졌다. 게다가 캐릭터의 플레이에 따라 피버 게이지가 누적되는데, 이것을 모아 최대 6점 슛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슛을 쏠 수 있다. 많은 점수 차도 순식간에 게임을 역전할 수 있으니 경기 끝날 때까지 X구멍에 힘 꼭 주고 키보드를 두들겨야 한다는 소리다.



이게 바로 원기왕!

새로운 스킬

평소 불량배와 스티기만 해도 어깨가 뒤로 휘휘 꺾이는 약골이라 해도 게임 (쇼타임)에서 만큼은 다르다. 상대가 손리 같은 근육 덩어리라도 거침없이 밀치고 돌진하는 몸싸움을 할 수 있다. 어깨로 공격수를 밀어 넘어뜨리는 숄더 태클, 슛 동작 중 공을 내리치는 백블록 등 뒤에서 공격수를 밀치는 손맛이 (철권)의 '봉관'보다 짜릿하다. 예전에 코트에서 난다 긴다 했던 상급자들도 뒤통수 안 맞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숄더 태클



백블록



오빠, 다 가져

HOT EVENT!

Change

8월 8일~9월 26일까지

한 개의 캐릭터를 원하는 스페셜 캐릭터의 외형과 능력치로 무상 교환해준다. 국산 경치를 랍보르기스로 바꿔주는 격이다. 당장 접속해

FREE ITEM

8월 8일~9월 19일까지

<쇼타임>을 플레이 하는 회차마다 특별한 게임 아이템을 지급한다. 승리 문신, 하이스톤 워커, 슬림 생치 차크린 등 이렇게 받은 아이템으로 2013 S/S 서울컬렉션에라도 진출할 기세

Bonus

8월 8일~9월 26일까지

이벤트 기간 내내 경험치를 두 배로 지급한다. 게임하는 시간을 두 배로 늘리면 총 네 배의 경험치가 오르는 거잖아? 오빠, 핫식스 사다 놔야겠다.



이렇게 다 퍼주다간 망하겠어.

영상 보면 더 하고 싶을걸?



야구 그리는 남자 최훈

직접 보는 야구보다 더 재미있는 야구 카툰,
〈프로야구 카툰〉을 만드는 사나이를 만났다.

BY 송종민 DESIGN 신숙희

최훈 1972년생

연재 작품: 네이버 〈MLB 카툰〉, 〈프로야구 카툰〉, 〈GM〉, 〈삼국전투기〉, 스포츠 동아의 〈돌직구〉

최근에 산 물건 중 가장 비싼 것: 건프라, 30만 원어치.

출퇴근: 부천에 있는 작업실로 모닝 SLX 스페셜을 타고 간다.

만화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회사원.

말이 커서 만화 작가와 결혼한다고 한다면: 지들 인생인데 내가 뭘.

마감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방법: 마감이 코앞에 닥치면 자동으로 집중력이 1,000% 상승.

가장 좋아하는 야구 게임: 코나미사의 〈실황 프로야구〉 시리즈. 대부분 소유했었다.

실력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 두산 오재원.



2013년에
박요~

COMING SOON

어쩌다 야구 만화를 그리게 됐나?

내가 만화를 그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가는 일본 4컷 만화의 전설, 이시이 히사시이다. 그의 프로야구 카툰을 보고, 야구 카툰을 그릴 생각을 했다.

네이버 <프로야구 카툰>과 <GM>, <삼국전투기>, 스포츠 동아의 <돌직구>까지 다른 내용의 만화를 동시에 연재하고 있다. 가장 애착이 가는 만화는 무엇인가?

애착이 가는 건 역시 <프로야구 카툰>이다.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만화는 <삼국전투기>.

강풀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나? 본인이 더 잘 그린다고 생각하나?

강풀, 못 그린다. 강풀이나 나와 오십보 백보다. '색은 내가 좀 더 세련되게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다.

작업실이 만화영상진흥원이라 아는 만화 작가들도 많을텐데, 친한 작가가 있다면?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청설모 작가(자동차 카툰). 거의 7~8년 같은 작업실을 쓰고 있어 이제 서로의 장단점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 그 외에는 홍승우(비빔툰), 최규석(습지 생태 보고서), 임광목(교무의원) 작가와 친하게 지낸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최훈 작가의 작품을 상당히 즐겨 볼 텐데, 혹시 친한 선수가 있나?

선수들과는 절대 친분을 쌓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럼 야구 선수 중 만화를 보고 뻑쳐서 연락한 선수는 없었나?

있다. 항의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 "예? 아니 무슨 만화 가지고 그러세요?"라고 한다.

<프로야구 카툰>을 그릴 때,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은근히 좋게 그려준 선수가 있는가?

특별히 어떤 선수를 좋아해서 좋게 그려준 적도 없는 것 같다. 보통 유망주나 무명 선수는 가능한 한 좋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스타 선수들에게는 가혹한 편이다.

얼마 전 네이버 <프로야구 카툰>에 <개그콘서트> 응감한 형제들을 패러디해 엘리트윈스를 디스(?)한 꾸준한 녀석들이 이슈였다. 유독 엘지에 가혹한 이유는 무엇인가?

알면서 왜 물어보는가. 나도 엘지 팬이지만 엘지는 정말 못한다.

엘리트윈스의 라이벌은 지역 라이벌 두산베어스인가? 아니면 탈꼴찌를 경쟁하는 한화이글스?

엘지한테는 모두가 라이벌이다. 만만한 팀이 없다.

집에는 일주일에 이를 정도만 간다고 들었다. 가족들 때놓고 혼자 야구 보면 재미있나?

일단 집중하기는 좋다.(웃음) 그리고 우리 집엔 TV가 한 대뿐이기 때문에, 아빠가 텔레비전 차지하고 야구 보는 것을 배척하는 분위기다.

가족들과 야구장 가는 것을 싫어하나?

나는 좋아한다! 언제나 함께 가고 싶어 한다! 집사람도 엘지 팬이라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다. 다만 두 딸이 질색한다. 잠실구장의 그 우중충한 놀이방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다.

야구를 분석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만약 현재 프로야구 구단에서 코치나 감독 자리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다면, 어느 팀을 맡고 싶은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내가 능력이 돼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엘지다. 코치나 감독보다는, 내게 숨은 천재적인 야구 센스가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만개, 최고의 투수가 되어 나이 사십이 넘어 엘지 클로저로 들어가 엘지를 우승시키는 꿈을 자주 꾸다.

돈없지만 당신이 만약 한화 감독이 된다면 이 답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한화에 필요한 것은 움직임 '동기'라고 생각한다. 작년 전현태의 출혈 사건이 있을 즈음만 봐도 한화가 정신만 차리면 어떤 힘을 낼 수 있는지 이미 확인됐다. 내가 감독이라면, 선수 한 명 한 명의 동기를 찾아주려 노력하겠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야구 영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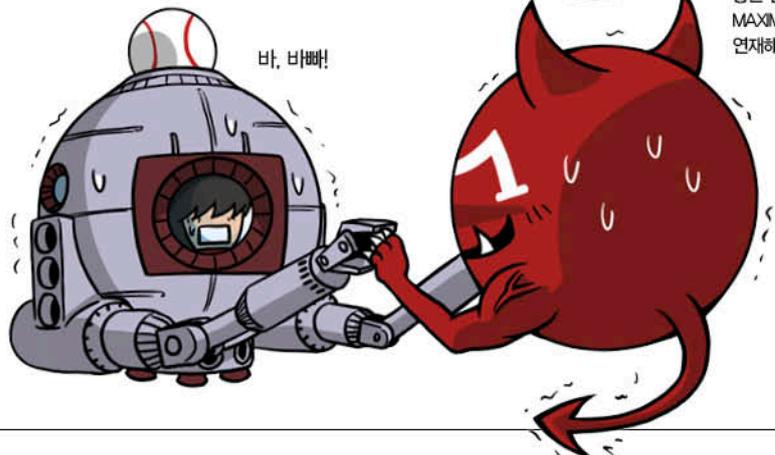
케빈 코스트너의 야구 3부작을 모두 좋아한다. <19번째 남자>, <꿈의 구장>, <사랑을 위하여>.

독자들이 왜 당신의 만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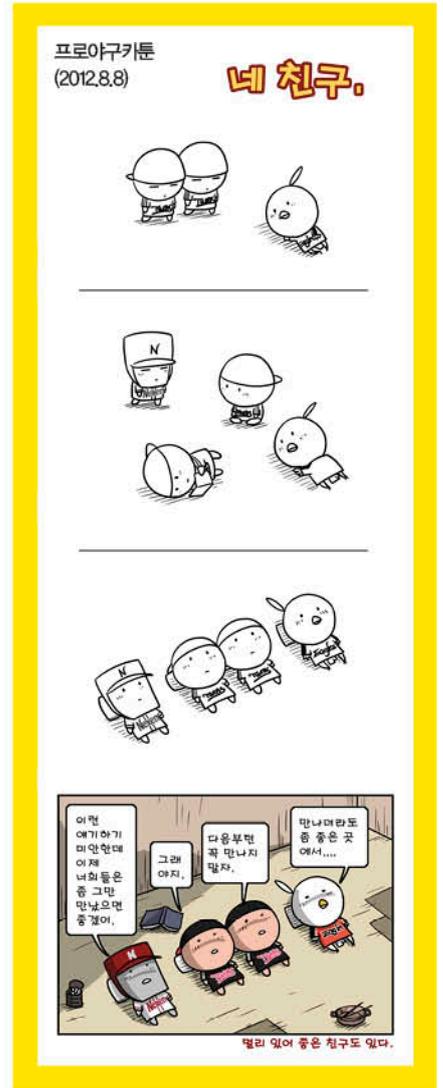
MAXIM 특유의 *사캐즘을 매우 좋아한다. 나와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사캐즘(Sarcasm): 빈정덤, 비꼼

인터뷰 하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최훈 작가가 보내온 그림. 싸우지는 건가?



좋은 밑로 할 때 MAXIM에도 카툰 연재해 주시죠?





올림픽 오심의 흑역사

이것들이 선수들끼리 경쟁하기도 벅찬데 심판하고도 싸워야 하나?
뻑쳐서 기획했다. 올림픽 오심에 울고 웃은 코리아!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아이큐박스(iqbox.co.kr) DESIGN 신속희

■ 채점 잘못된 게 학생 잘못이니, 선생 잘못이니?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 양태영 vs 폴 햄

양태영 선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체조 금메달을 목에 걸 선수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심판진이 양태영 선수의 철봉 연기에서 10점짜리 기술 난도 점수를 9.9점으로 잘못 채점하는 바람에 무려 0.1점이 썩으로 날아가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그 바람에 도마 연기에서 데굴데굴 굴러다니던 미국의 폴 햄이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가져가게 된다. 폴 햄과는 불과 0.012점 차이. 원래대로 10점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0.088점 차이로 금메달을 따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 억울한 것은 세계체조연맹이 나중에 오심을 인정하고 심판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으나 메달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은 했어, 하지만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무효" 수준의 해명이었다. 동네 약수터 배드민턴 대회랑 뭐가 달라?

그 후.

1. 엉뚱하게 국내 패션 브랜드 폴 햄(polham)이 역풍을 맞음. 사장이 그 폴 햄(Paul Hamm)과 아무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폴햄 티셔츠 입을 놨을 죽이자는 의견이 인터넷을 지배했다.

2. "그래, 폴 햄이 무슨 잘못이야. 심판이 나쁜 놈이지"라고 주장했던 폴 햄 동정론자들 뿔뿔하게 폴 햄은 자국 TV쇼에서 "심판이 제대로 점수를 매겼다면 양태영은 4위를 했을 것"이라며 오노의 전철을 밟았다.

3. 양태영 선수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 선전했지만 약점인 철봉 연기에서 크게 감점당하며 종합 8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폴 햄은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다.



■ ■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 주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야구 미국 vs 한국

어렸을 때 와리가리(와타리가따리)나 피구를 하다 보면 언제나 '공에 맞았네, 안 맞았네, 죽었네, 살았네'로 눈에 핏대를 세우며 싸울 일이 생겼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한국과 미국의 야구 준결승전, 한국이 2 대 1로 앞서던 7회 말 1사 상황에서 미국의 마이크 칸케이드가 3루수 쪽 기습 번트를 대고 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누가 봐도 1루 아웃 상황이었지만 심판은 세이프를 외쳤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칸케이드는 후속 타자의 안타로 3루까지 뛰었고 이때도 명백한 아웃 상황이었지만 3루심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결국 칸케이드의 활약(?)으로 미국은 동점을 이루며 연장전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한국은 연장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맞고 통한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아오 백처

그 후.

한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결국, 파이널리, 금메달을 차지. 하지만 이번 런던 올림픽부터는 야구가 정식 종목이 아니다. 야구하는 나라가 너무 없대.



판정까지만 베틀자



■ ■ ■ 전설을 꺾은 건 내가 아니오

1988년 서울올림픽 복싱 박시현 vs 로이 존스 주니어

1990년대 최고의 복싱 로이 존스 주니어. 그는 통합 전적 56전 52승 4패 38KO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의 소유자로, 안면 가드를 거의 하지 않는 건방지고 자신만만한 스타일에 속사포 같은 스트레이트 연타와 화려한 테크닉으로 관중을 흥분시키는 쇼맨십을 가진 사나이였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사나이에게도 치욕적인 패배가 있었으니, 쓰러진 상대를 가격해 실격패한 것과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의 박시현 선수에게 패한 것이다.

둘이 맞붙은 결승전은 사실상 유효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방적인 경기였다. 하지만 결과는 박시현 선수의 3 대 2 판정승. 박시현 선수조차 자신의 손이 왜 올라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었다. 이는 주축국 한국의 횡포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순위 싸움 때문이었다. 당시 구 소련은 압도적인 1위였고, 동독과 미국이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겨루고 있었다. 그래서 공산국가 심판들은 같은 공산국가인 동독을 밀어주기 위해 편파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미국은 금메달 하나 차이로 동독에 2위를 내주고 만다.

플레이 모빌 올림픽 시리즈

레고가 조립에 비중을 뒀다면 플레이 모빌은 손에 쥐기 좋은 사이즈와 부드러운 촉감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추구한다. 런던 올림픽을 맞아 발매된 스포츠&액션 시리즈에서는 총 15종의 하계 올림픽 종목을 만날 수 있다. 사진에 소개된 제품 이외에도 해머 던지기, 테니스, 사격, 사이클(여기에는 선수 없이 사이클만 출연), 탁구, 평균대가 더 있다.



와이?

그 후.

1. 로이 존스 주니어는 이후 미들급(1993), 슈퍼미들급(1994), 라이트헤비급(1996), 헤비급(2003) 4체급을 석권한 불세출의 복싱 히어로로 성장.
2. 박시현 선수는 사람들의 비난에 못 이겨 조기 은퇴해 대 인기피즘에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괴로웠다.



■■■■ 우리 생애 가장 기분 옛 같은 순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핸드볼 대한민국 vs 노르웨이

국내 여자 핸드볼의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 팀은 1984년 L.A에서 은메달,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강호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올림픽은 오로지 심판과의 싸움이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에서 살짝 건드려도 픽픽 쓰러지는 덴마크 꽃뱀들과 싸우면서 즐

장당한 끝에 페널티 스로에서 아쉽게 패배했다. 그래서 더욱 절치부심해 준비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더욱이 1992년부터 된 주전 선수들의 마지막 올림픽이었다(대표 팀 평균 나이 약 35세). 준결승전에서 노르웨이와 맞붙게 되는데, 후반 마지막 30분 골라인도 완전하게 통과하지 않은 볼이 버저버터로 인정되고 만다(핸드볼은 볼이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해야 골로 인정됨). 나중에 국제핸드볼협회에서 오심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러면 뭐하나, 이미 경기는 끝나고 만 것을.

그 후.

1. 결국 여자 핸드볼 대표 팀은 3-4위전에서 헝가리를 상대로 승리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1992년 바르셀로나부터 2008년 베이징까지 함께했던 허순영, 오성욱, 오영란, 홍정호, 박정희 선수는 대표 팀을 은퇴한다.

2. 우생수를 재현하겠다고 다짐했던 2012년, 아쉽게도 또다시 노르웨이에 4강에서 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만다.



오심의 유형

1. 판정 반복으로 멘붕 유도

예선전 실격 당시 박태환의 자아: "나의 주 종목인 400m 자유형인데 부정 출발이러니! 아역! 나의 노력! 나의 4년! 뭐? 부정출발이 아니라고? 아, 빨리 나가서 시험 뛰어아겠네. 잠깐 눈을 좀 닦고... 근데 생각할수록 열받네?!"



2. 시간을 지배하는 자

무려 4번의 공격 기회 동안 전혀 공짜도 하지 않았던 신아람 선수의 1초라는 시간. 1972년 미국 농구 대표 팀이 보면 경기를 일으킬 장면이었다. 당시 미국은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번이나 3초 전으로 돌아가라는 시간 여행자 심판을 만나면서 결국 역전패하고 말았다. 세이브&로드도 아니고, 이길 때까지 시간 돌라는데 어떻게 이겨?



아이거 물릴 수도 없고;;



3. 나는 할리우드 액션 배우다

런던 올림픽 축구 B조 조별 예선 예선전에서 벌에 쏘였는지 갑자기 고무라져 박주영에게 경고를 받게 한 스위스의 축구 선수 미첼 모르가벨라는 한국인들의 SNS 테러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국인을 때고 싶다"라고 대응했다가 대표 팀에서 퇴출당했다. 그의 닭 벼슬 머리가 2002년 국민 생방송으로 등극했던 오노의 염소 수염과 묘하게 겹친다.

4. 우리 편 밀어주기

요즘은 자주 볼 수 없는 오심 유형이지만 냉전이 한창일 때는 같은 편 밀어주기가 심했다.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의 송순천 복싱 선수는 동독의 볼프강 베렌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으나 4명의 심판 중 3명이 공산권 심판인지라 판정패하고 말았다. 독일 선수는 후에 송 선수의 승리를 인정했다. 역시 독일은 일본 놈들과는 다르네.

다른 상품 둘러보기



MAXIM 시그너처 T팬티
 색상: 레드
 가격: 9,900원



MAXIM 기본 티셔츠
 색상: 블랙, 화이트
 가격: 20,900원



MAXIM STAFF 티셔츠
 색상: 블랙, 화이트
 가격: 21,900원



2012 MAXIM&GGF
 컬래버레이션 티셔츠
 색상: 오렌지
 가격: 10,900원



MAXIM 여성용 V넥 티셔츠
 색상: 네이비, 화이트
 가격: 14,500원



→ maximkorea.net에 접속
 → 홈페이지 상단 STORE 메뉴를 클릭
 → MAXIM SHOP에서 상품 고르기

MAXIM 시그너처
 면스판 티셔츠

색상: 화이트, 스카이, 옐로
 가격: 19,900원



모델: 최현아
 신체 사이즈: 158cm, 44kg

구경하러
 가세요!



벨간색 팬티 미싱도로서 실구색 팬티 바디팬 COOPERATIONS #바디팬(080-045-0456), 미싱도로서(1544-6101)

MISS MAXIM도 입고 MAXIM의 미녀 에디터들도
 즐겨 입는다는 MAXIM U라운드 스판 티셔츠,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 딱 좋은 아이템 되시겠다.
 컬러도 세 가지로 준비했으니 취향대로 골라라.

구매 문의

www.maximkorea.net
 Tel. 02-323-1182



WIN OR LOSE

스포츠 베팅에 대한 고찰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만 말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 말이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서울정
IMAGE 연합뉴스, DREAMSTIME

도박사를 울린
경기 장면





우리나라 스포츠 베팅은 진짜 도박이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토토'를 보면 스포츠 베팅이 도박처럼 느껴진다. 프로야구 8팀이 벌이는 4경기의 승자를 모두 맞힌다?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낸 3팀을 순서대로 맞힌다? 맞힐 확률은 최소 16분의 1에서 많게는 수백분의 1이다. 어려운 만큼 배당도 높다. 적은 돈을 걸어 크게 불러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도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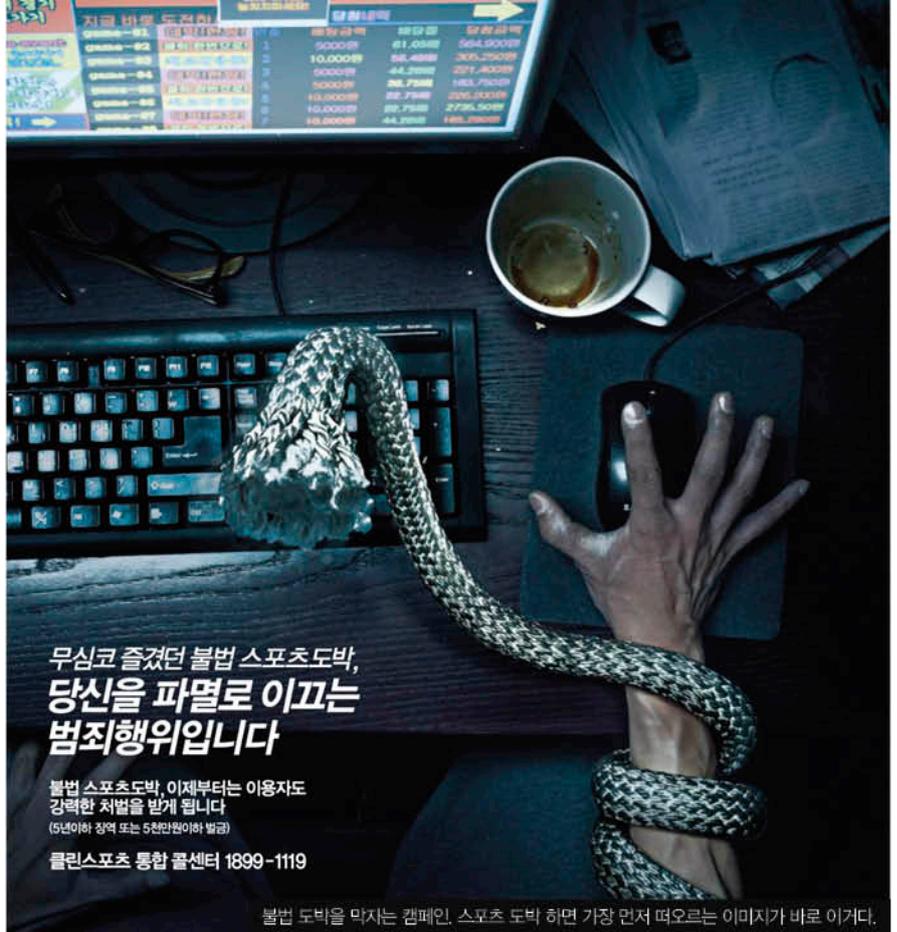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스포츠 베팅을 살펴보면 꼭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 해외의 스포츠 베팅은 다양한 항목에 따라 돈을 거는 것이 가능하다. 승부 자체(Head to Head)에만 걸 수도 있고, 경기 결과 혹은 득점에 걸 수도 있으며, 경기에 나온 상황, 예를 들자면 '축구에서 코너킥이 많을 것 같은 팀'에 베팅할 수도 있다(참고로 축구는 코너킥 베팅이 甲). 복싱에도 Head to Head가 있고, 승리가 KO일지 판정일지 혹은 무승부일지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베팅이 있고, KO 라운드를 맞히는 베팅이 있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여자들은 꽤 짝짤한 재미를 볼 수 있다.

이를 프로야구에 적용해 예를 들어 보겠다. 1위 팀 삼성의 에이스 1선발과 최하위 한화의 5선발이 대전하는 경기를 두고 우리나라의 야구 토토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마침 경기 전에 한화의 주전 포수가 부상해 백업 포수가 나오게 됐고, 삼성은 최근 경기에서 타선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치자.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경기 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 승부의 결과를 대략은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야구 토토에 이처럼 단순히 승패를 맞히는 게임이 있다면, 도박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배당률이 낮기는 하지만 소액이라도 돈을 딸 확률이 꽤 높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로는 아예 이런 베팅이 불가능하다. 승부 자체에만 베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박도 이런 상 도박이 없다.

왜 불법 사설 베팅업체가 성행할까?

해외에는 자신이 가진 해당 스포츠의 안목을 바탕으로 저배당 고확률을 노릴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스포츠 베팅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스포츠 베팅은 이걸 어떻게 맞힐까 싶을 정도로 확률이 낮은 베팅만 제공한다. 물론 해외의 베팅업체도 초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알티벳 옵션이 있다. 여러 항목을 엮어서 각각의 배당률을 곱한 형태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토토 같은 저확률 고배당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스포츠 토토는 해외의 베팅업체들에 비해 반쪽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게 바로 국내의 불법 사설 베팅업체가 융성하고 있는 이유기 때문이다. 사실 스포츠 베팅 분야에서 방귀 좀 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토토에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은



무심코 즐겼던 불법 스포츠도박,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제부터는 이용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클린스포츠 통합 콜센터 1899-1119

불법 도박을 막자는 캠페인. 스포츠 도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본인이 확신하는 부분에 베팅하고 싶어 한다. 불법 사설업체들은 베팅꾼들의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해외의 업체들과 유사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 규모만 해도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베팅꾼들의 욕구를 스포츠 토토의 경영이 따라잡지 못해 불법 업체들의 배만 불러주는 꼴이다. 어디 그뿐인가?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세금 또한 줄줄 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원들 우리 지갑만 탈탈 털어가는 조세정책까지 더하면... 아주 매를 벌고 있는 셈이다.

모험과 안전빵, 당신의 선택은?

UFC 151에서 UF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놓고 격돌할 두 선수, 존 존슨과 댄 헨더슨의 배당률은 1.15 대 6 정도다. 존슨에게 100만 원을 걸고 존슨이 이기면 115만 원으로 돌려받고 헨더슨에게 같은 액수를 걸어서 헨더슨이 이기면 600만 원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존슨에게 거액을 걸어 25분 만에 베팅액의 15%를 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헨더슨에게 소액을 걸어 운이 좋게 6배의 고배당을 챙길 것인가?

만약 당신이 스포츠 베팅을 한다면 프로세스는 위와 같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스포츠 베팅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 시장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주식 시장이다.

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는 투자자의 성향과 안목에 따라 갈린다. 당신이 모험가라면 고배당 고위험의 종목에 투자할 것이고, 당신이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저배당 저수익의 종목에 투자할 것이다.

스포츠 베팅도 마찬가지다. 확실한 선수 혹은 팀이 상대적으로 약체와 대전할 때, 강한 쪽에 베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베팅 배당률은 크게 올려 있지만 약체로 평가받는 선수 혹은 팀이 이길 것이라고 베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다. 이 모든 결정은 순전히 베팅꾼이 모험가(Risk Taker)인지 안전제일주의자(Risk Avider)인지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식견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달려 있다.

도박이 아닌 즐기는 베팅으로

스포츠 베팅을 단순한 도박 수준에 붙들어 두는 국내 스포츠 베팅 운영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2010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70% 이상이 스포츠 베팅 사업에서 조성된 기금 출연금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스포츠 베팅 없이 한두 기업이나 어느 복지가가 내놓은 후원금만으로는 선수와 관련 업계를 전혀 후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왕 굴릴 거면 스포츠 베팅을 더 재미있게, 더 영리하게,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은 말도 안 되는 낮은 가능성과 고배당에 목매게 하는 도박성에 의존하고 있다. 모험과 안정 사이에서 나름의 식견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베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진적인 스포츠 베팅을 실시한다면 스포츠 팬들에게 도박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자, 당신은 어느 쪽에 베팅할 것인가?

스포츠 베팅에 관한 3가지 조언

스포츠를 더 재미있게 관람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역시 돈 내기만한 게 없다. 개인적인 경험과 그간의 관찰 결과를 좋아하는 MAXIM 독자와 공유하겠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지금 물병하시게?



1. 일단 분산 투자하라

UFC 144에서는 7경기가 벌어졌다. 7개 경기 중 하나를 틀렸는데, 아래의 표대로 110달러를 베팅해서 169달러를 만들었다. 아무리 격덕후라고 해도 보통 한 두 개는 틀린다. 2개를 틀리면 보통 본전에서 10% 이상 따기 힘들다. 3개를 틀리면 밀지는 거다. 하지만 바보라도 7개 중 서너 개는 맞는다. 그러면 총자금의 20~30%를 잃고 끝난다.

분산 투자는 이런 것이다.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다. 가늘고 길게 쪽 가는 거다. 다만 돈을 걸면 경기를 보는 재미가 수구친다. 스포츠 베팅은 그냥 밥값이라도 벌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 아래의 표는 당시 베팅했던 7경기의 실제 결과이다.

	베팅 선수 / 배당률 / 승패	베팅액	수입
페티스 vs. 로존	페티스 / 1.4배 / 승	20	+8
하츠 vs. 필라제프스키	하츠 / 1.5배 / 승	20	+10
오카미 vs. 보에치	오카미 / 1.25배 / 패	20	-20
추성훈 vs. 실즈	실즈 / 1.3배 / 승	20	+6
헌트 vs. 콩고	헌트 / 3.3배 / 승	10	+23
잭슨 vs. 베이더	베이더 / 3.2배 / 승	10	+22
헨더슨 vs. 에드가	헨더슨 / 2배 / 승	10	+10
		110	+59

아싸 술 값을 벌었다!

2. 물빵의 기회는 놓치지 마라

2010년 10월 UFC 121에서 케인 벨라스케즈와 브룩 레스너가 붙었다. 베팅 배당률은 벨라스케즈가 2.54배, 레스너가 1.6배로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벨라스케즈에 올인했다. 개인적으로는 벨라스케즈 1.2배, 레스너 4.5배정도로 예상 했다(누가 배당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는 원칙이고 뭐고 없다. 경기 결과는 역시 벨라스케즈의 통렬한 1회 KO승. 건 돈의 2.54배를 먹었다. 100만 원을 걸었다면 154만 원을 딴 것이다.



고마운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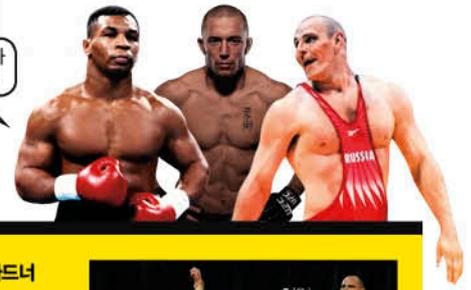
3. 승부 자체에 집착하지 마라

매니 파퀴아오와 안토니오 마가리토는 안정적인 베팅 대상이었다. 파퀴아오의 승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 따라서 배당률도 형편없었다. 그래서 이 때는 메소드, 즉 승부의 형태를 맞는 베팅을 했다. 마가리토는 덩치도 파퀴아오보다 크고 멧집이 좋기 때문에 KO 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그래서 파퀴아오가 판정승으로 이긴다에 베팅했다. 배당률은 2.8배였다. 경기가 시작되고 파퀴아오가 마가리토를 패기 시작하더니 10라운드쯤 되자 마가리토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심판이 TKO를 선언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마가리토는 포기하지 않고 버텼고, 12라운드부터는 파퀴아오도 봐주면서 경기를 했다. 결과는 파퀴아오의 판정승. 누가 이겼는지는 상관없다. 끝까지 버텨준 마가리토와 그를 살살 봐준 파퀴아오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뿐.

격투 스포츠계의 대표적인 *업셋 베팅 3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최강의 선수가 어이없는 상대에게 무너질 때, 대다수 베팅꾼들은 피뎌를 싸게 된다. 물론 소수의 모험가들은 쾌재를 부르는 것이 당연. *업셋: 언더독이 탑독을 꺾는 경우

스브 우리가 미안하다고!



1. 조르주 생 피에르 vs. 멧 세라

2007년 4월 UFC 69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세라에게 돈을 건 사람들에게 약 10배의 배당금을 돌려주었다. 산술적으로 10명 중 9명은 멸망했다는 계산.

2. 마이크 타이슨 vs. 버스터 더글라스

이 경기에서 도박사들은 42:1로 타이슨을 지지했다. 하지만 핵주먹 타이슨은 졌다. 스포츠 역사상 최대의 업셋 중 하나로 스포츠 베팅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다.

3. 알렉산더 카렐린 vs. 롤런 가드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러시아의 레슬링 영웅 카렐린의 10년 무패 기록이 붕괴되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비록 가드너가 공격이 아닌 파울 하나를 얻어내어 이겼을 지라도 도박사에게는 멘붕 그 자체였다.



의상은 카렐린이 더 섹시한데 말이다.



올림픽도 베팅이 되느냐고? 물론이지. 참고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에서 우리나라의 우승 배당률은 무려 50배였다.

스포츠 경기 조작 주요 사건 일지

경고: 따라할 경우, X되는 수가 있다.

스포츠 베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베팅 자체가 아니라 베팅을 하는 사람과 베팅의 대상이 되는 선수, 심판의 부도덕함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소개한다.



입스위치 사태

영국의 축구 클럽 입스위치 타운FC 선수들이 상대팀에 베팅하고 경기를 저주했다. 승부 조작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겠지만 결국 들통났다.



이 남자가 입스위치 타운스 스캔들을 주도한 선수 지미 굿드.



조명탑을 꺼라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도박 조직이 EPL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에 조명을 원격으로 끌 수 있는 장치를 부착했다가 발각됐다.



후.. 나 요즘 자주 깜빡깜빡해.



분데스리가 스캔들

분데스리가의 레프리였던 로버트 호이저가 자신이 심판을 보는 경기에 베팅을 하고 편파 판정을 했는데, 그의 뒤에는 크로아티아의 도박 조직이 있었다.



독일 축구계는 호이저가 뇌물을 받고 편파 판정을 한 사건을 지난 30년 내에 벌어진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여긴다. 근데 저 새끼 좀 잘생겼네? 원지 쌤동.



터키 축구 리그 사태

경기 조작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사하느라 리그의 개막이 연기됐을 정도. 구단, 선수, 심판 등이 줄줄이 엮여있었다.



분노한 터키 축구 팬들의 모습, 승부 조작을 주도한 터키 축구 클럽 회장들의 위죄가 입증되면 최대 115년형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ㄷㄷ...

1919

블랙삭스 스캔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선수 일부가 돈을 받고 월드시리즈에서 일부러 경기를 태만하게 했다. 대표적인 승부 조작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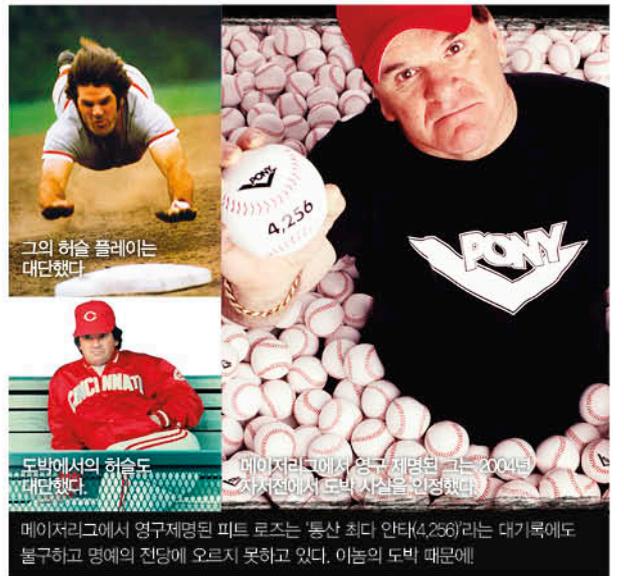
블랙삭스 스캔들의 주인공 8명의 얼굴을 기억하자는 인세물(왼쪽)과 1919년 당시 화이트삭스 선수들 모습(오른쪽). 당시 그들의 전력은 리그 최강이었다.

1964

피트 로즈의 배신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타자 출신의, 신시네티 레드 스타 킹스의 감독 피트 로즈가 상대팀에 돈을 걸었다.



그의 허슬 플레이는 대단했다

도박에서의 허슬도 대단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된 그는 2004년 차차전에서 도박 사실을 인정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된 피트 로즈는 '통산 최다 안타(4,256)'라는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아놈의 도박 때문이!

1964

1999

2005

2007

NBA 베팅 스캔들



NBA 심판이었던 팀 도너기는 자신이 레프리를 보는 경기에 베팅을 했고, 10~15경기 내내 한쪽에게 유리한 판정을 했다.

2011



편 새끼들도 다 처먹는다니 까요

그래, 안 그래?

팀 도너기는 승부 조작을 고백하며 "NBA에 '킴퍼니 맨'이라는 심판이 승부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고 폭로했으나 NBA 스티븐 홈즈는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MS를 만든 11명의 청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멤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BY 경제 칼럼니스트 최현욱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영림



내가 대세제!

마이 컷네...

1. 빌 게이츠(Bill Gates)

세계 최대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기부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67조 원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다던데... 그 돈이면 전 세계 남성 독자 10억 명에게 1년 동안 MAXIM 정기구독을 시켜줄 수도 있다!



2. 폴 앨런(Paul Allen)

1975년 빌 게이츠와 MS를 공동 창업한 폴 앨런. NBA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NFL 시애틀 시호크스의 구단주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를 보유한 전 세계 37번째 부자다. MS의 실질적 경영자로 MS가 애플과 구글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는 이 사람 손에 달려 있다.



3. 스티브 우드(Steve Wood)

MS의 사내 커플로 마리아 우드와 결혼에 골인. 1996년에 모바일 메시징 회사인 와이어리스 서비스(Wireless Service)를 설립하고 [현재는 싱글 포인트(Single Point)로 개명] 지금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그와 부인의 재산은 1,500만 달러다. 부부가 쌍으로 돈을 긁어모았군!



4. 마리아 우드(Maria Wood)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1980년에 회사를 떠나게 되는데 회사의 여성 차별 문화를 문제 삼아 MS를 고소한다. MS는 결국 그녀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었고 현재는 자녀를 양육하며 자원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가까운 이발소가 어디죠?

5. 밥 그린버그(Bob Greenberg)

베이직(BASIC) 프로그램의 신규 버전을 개발했으며, 1981년에 퇴사했다. 그 후, 그의 가족 회사인 콜레코(Coleco)로 돌아가 시작한 양배추 인형 사업이 대박을 쳤다. 이래도 대박, 저래도 대박인 인생이구나!



여기 있소!

6. 고든 렛윈(Gordon Letwin)

빌 게이츠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 1993년에 회사를 떠날 때까지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사한다. 현재는 애리조나 주에 목장을 운영하며 사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의 재산은 2,000만 달러. 역시 유유자적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탁탁탁

7. 안드레아 루이스(Andrea Lewis)

MS의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쓰는 일을 맡았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던 그녀는 1983년에 회사를 떠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로 등단한다. 재직당시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 덕분에 그녀의 재산은 200만 달러에 이른다.



8. 밥 오리어(Bob O'Rear)

MS에 들어오기 전 나사에서 일했고 그 후 MS에서 IBM PC에 들어가는 도스코드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했다. 1983년에 회사를 떠난 후에는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가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고 있다. 역시 말년에는 소젖 짜는 게 최고여!



빅맥 쿨?

9. 마크 맥도날드(Marc McDonald)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채용된 최초의 인물. MS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걸 반대해 1984년 폴 앨런의 회사 아시메트릭(Asymetrix)에 입사한다. 계열사인 디자인 인텔리전스(Design Intelligence)에서 근무하던 중 이 회사가 MS에 인수되면서 다시 MS의 직원이 된다. 꽤 난감했겠는 걸?



10. 짐 레인(Jim Lane)

초창기 MS가 인텔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이때 인텔과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면 MS는 용산 전자상가 컴퓨터 가게 정도밖에 안 됐을지도. MS가 자신의 열정을 퇴보시키는 느낌이 든다며 1985년에 회사를 떠나 현재는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1. 밥 월라스(Bob Wallace)

'셰어웨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그는 MS 초창기 직원 중 가장 독특한 인물이다. 회사를 떠난 후 마약을 개발하는 데 빠져 돈과 시간을 낭비하다가 2002년 폐렴으로 사망했다. 생전에 그는 마약도 '셰어'하고 싶었던 걸까? ☹️



제일 어리버리하게 생긴 빌게이츠가 최종 승자라네!



2008년, 빌 게이츠가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옛 동료들을 불러 찍은 사진. 하지만 정통으로 맞은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는 듯.

무료

내여친

스마트폰 속 애인 키우기

모델:류지혜(레이싱퀸모델, 방송인)편



우월 아찔 숨막히는 HD영상
HOT SEXY

씻기고 밥주고 운동시키고 잠재우고 잘키워주셈
 말을하면 지혜가 대답합니다.
 온몸전신 터치가능 가슴을 만지면 혼나요
 가위바위보 옷벗기 게임
 우월한 몸매 반뺨비키니 매력발산
 노래, 춤, 큐티 섹시미 심장을 뜨겁게
 외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잘키워주세요.

▶ play 스토어 에서 **내여친류지혜** 를 검색하세요
 스마트폰 인터넷주소창에는 **yeochin.com** 입력하세요.



STUFF

GEAR
OF THE
MONTH

귀여운 외관임에도 여성들이 한 손으로 들기에는 조금 버거운 무게(보지만 480g)와 두께를 지녔다. 펜탁스 DSLR 렌즈를 마운트 없이 장착할 수 있도록 기존 K 마운트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존 펜탁스 카메라 사용자라면 렌즈를 중복해서 사지 않아도 된다. 이 귀여운 카메라를 메인 보디로 활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SMC PENTAX DA 40mm f2.8 XS 팬케이크 렌즈. 현재 생산되는 AF를 지원하는 단렌즈 중에서 제일 얇은 렌즈다. 1cm가 채 안 되는 두께다.

펜탁스 K-01

김영일이냐 케이지로원이나. 이름이 어찌됐건 이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으면 여자들이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말을 걸 확률이 올라간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진은경

자연농원에서 팔던 장난감 카메라가 떠올랐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팅팅" 스프링 튕기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들이 뷰파인더를 통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겨우 7~8장의 사진이 들어 있을 뿐이었지만 셔터를 누를 때의 감촉이 좋아 몇 번이고 돌려보곤 했다. K-01을 받아든 순간, 자연농원에서 장난감 카메라를 만지던 때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가죽을 대신한 노란색 고무 그림, 과감하게 생략한 버튼과 숫자들, 압록달록 포인트처럼 배치한 빨강과 녹색 단축(왠지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아)가 장난감처럼 귀엽게 느껴진다. 당장이라도 목에 걸고 노란 가방을 매야 할 것 같은 기분이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면 또 이보다 모던할 수가 없다. 버튼을 뚝뚝으로 모두 감춰버린 고무 그림, 과감하게 생략한 버튼과 숫자들을 대신하는 심플한 멋의 빨강과 녹색 단축 버튼. 똑같은 제품을 보면서 이렇게 상반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펜탁스 K-01은 20세기의 장난감 바구니에도 어울리지만 21세기의 내 서재 책상 위에서도 전혀 위화감이 없다. 우리에게 클래식과 모던이라는 양 극단을 오가는 기적을 선물한 디자이너 마크 뉴슨을 위하여 건배.



Mark Newson.

마크 뉴슨(Mark Newson)은 호주 시드니 출신 디자이너로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불린다. 창의성과 테크놀러지의 집합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크 뉴슨의 디자인은 곡선 라인을 두드러지게 강조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뽐낼 뿐 풍긴다. 또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색시하고 유행 있는 것을 선사한다.

SPEC CHECK

이미지 센서
1600만 화소급
APS-C 센서(K-5와 동일)

마운트 방식
펜탁스 K-마운트

색상
블랙&화이트, 화이트&블랙,
블랙&옐로우

동영상
1920x1080 30p

제품 특징
팝업 플래시 내장,
뷰파인더는 없음

무게
배터리 포함 560g



GIGABYTE GeForce® GTX 670 WINDFORCE-3X

지포스 계열 그래픽카드에서 6으로 시작하는 모델은 올해 나온 파끈파끈한 신형임을 의미한다. 윈드포스-3X는 오늘 MAXIM이 모은 여섯 마리의 괴물 중 덩치가 가장 큰 녀석이다. 일단 3개의 쿨링 팬의 위용이 압도적이다. PC에 이걸 달려서 제일 먼저 당신 PC케이스가 빅타워인지부터 체크하라. 미들타워나 미니타워 같은 슬림케이스라면 아마 삼입도 힘들 테니(삼입을 못한다는 건 늘 짜증나는 일이지). 현존하는 최고의 쿨링 성능을 구현하는 윈드포스-3X 트라이앵글 쿨링 시스템이 발열을 확실히 제어한다. 선풍기 2대보단 3대가 더 시원하지 않겠어?

53만 원대

제이씨현 시스템(주) 기가바이트
<http://gigabyte.jchyun.com>



we know color!

“최신형 그래픽카드 GeForce GT 620 탑재! 혁신적인 그래픽 디스플레이!”
 ‘음, 잘은 모르지만 최신형이라니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했나? 맞다. 당신은 최신형 그래픽카드를 샀다.
 정확히 말하면 최신형 ‘저성능’ 그래픽카드를 샀다. 모르면 당한다. MAXIM이 알려주는 그래픽카드 읽는 법!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 조홍재 DESIGN 서윤정



MSi GeForce GTX 660 Ti Power Edition

670보다 한 단계 아래의 660, 뒤에 붙어있는 'Ti'는 티타늄의 원소기호다. 진짜 티타늄이 쓰인 건 아니고 다른 GTX 660보다 고성능이라는 걸 티타늄에 빗대어 표현한 거다. 연회비가 비싼 신용카드에 '플래티늄'이라는 말이 붙는 것처럼 말이다. Power Edition도 마찬가지. 경쟁 브랜드도 Ti 버전을 만드는데, MSi는 특별히 최대 전류 공급량을 17% 늘려 'Power Edition'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최대 전류 공급량을 늘리면 극한의 오버클럭 환경에서도 다운될 우려가 적다. 그리고 옆면에 보이는 히트파이프는 꽤 굵어서(직경 8mm) 효과적으로 내부 발열을 방열판으로 전달한다. 박력있게 쌍으로 박힌 쿨링팬이 내는 소음은 상당할 법도 한데 직접 써보니 의외로 소음이 너무 적어서 놀랐다. 37만 원대 MSi KOREA <http://kr.msi.com>



이 제품에는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있다. PC를 부팅하면 30초 동안 팬이 역방향으로 돌면서 먼지를 뱉고, 30초 후 다시 정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참으로 기특하네!

GeForce VGA 읽는 법:

1. 맨 앞의 숫자는 출시시기를 의미

맨 앞의 숫자는 출시된 시기를 의미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형이다.

200번째: 2009년경에 나온 제품

400번째: 2010년경에 나온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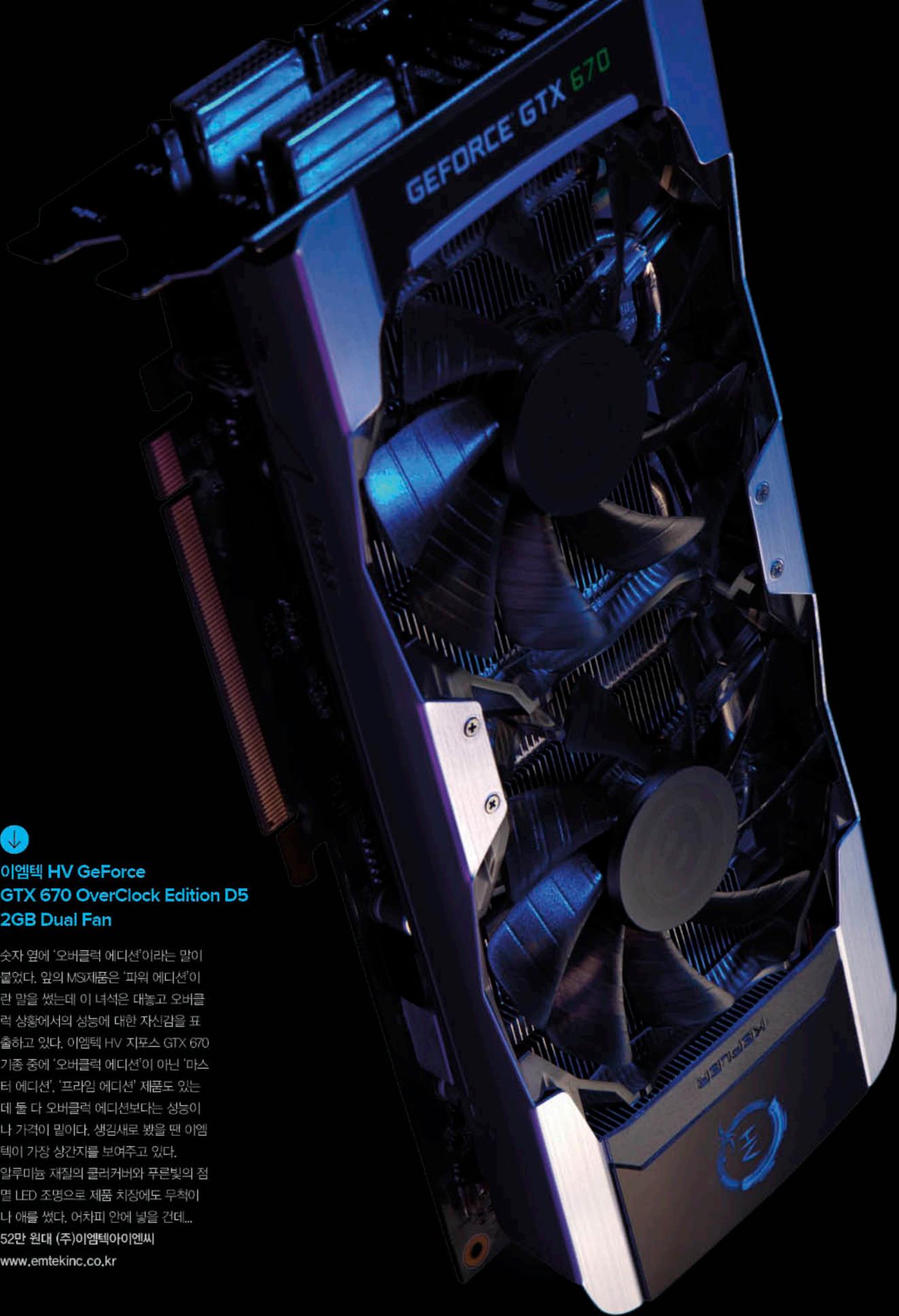
500번째: 2011년경에 나온 제품

600번째: 2012년경에 나온 제품

2. 두 번째 자리 숫자는 성능을 의미

첫 자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자리 숫자다. 둘째 자리는 고성능/저성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eForce GT 630, 640, 650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650 모델이 더 고성능이다. 둘째 자리 숫자에 따라 그 성능과 용도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숫자	등급	자동차에 비유하면	용도
1~3	찐파	모닝이나 스파크	인터넷 서핑하고 유튜브 재생 정도
4~5	적당형	K5나 아우디A6	온라인게임, HD 액션영화나 멍구멍 보이는 고화질 야동 감상
6~7	막강 파워	에쿠스나 캐딜락 CTS	<배틀필드>처럼 그래픽이 짜는 게임 즐기기
8~9	끝판왕 급	벤츨리나 페라리 스포츠카	디자인, 그래픽 작업을 하는 프로의 영역



**이엠텍 HV GeForce
GTX 670 OverClock Edition D5
2GB Dual Fan**

숫자 옆에 '오버클럭 에디션'이라는 말이 붙었다. 앞의 MS제품은 '파워 에디션'이란 말을 썼는데 이 녀석은 대놓고 오버클럭 상황에서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엠텍 HV 지포스 GTX 670 기종 중에 '오버클럭 에디션'이 아닌 '마스터 에디션', '프라임 에디션' 제품도 있는데 둘 다 오버클럭 에디션보다는 성능이나 가격이 밀이다. 생김새로 봤을 땐 이엠텍이 가장 상간지를 보여주고 있다.

알루미늄 재질의 쿨러커버와 푸른빛의 점멸 LED 조명으로 제품 차장에도 무척이나 애를 썼다. 여차피 안에 넣을 건데...

52만 원대 (주)이엠텍아이엔씨

www.emtekinc.co.kr



ZOTAC GeForce GTX 670 D5 2GB DUAL KING

'Dual King'이라는 이름답게 아름다운 빛깔로 장착된 듀얼 팬이 기가 막히다. 조텍이라는 브랜드(조텍이라고 읽고 싶어) 어쩐지 가장 가슴에 탁탁탁 와닿는다. 작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 일단 앞에 나온 덩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전력을 잡아먹는 고성능 스포츠카이니 말이다(정격파워 650W 이상 달아줘야 함). 저 몸집으로 덩치들과 맞먹는 성능을 내는 걸 보면 세계 그래픽카드 생산량 1위라는 ZOTAC의 기술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다.

55만 원대 (주)조텍코리아 www.zotackor.com



GeForce VGA 읽는 법:

3. 연식이나, 성능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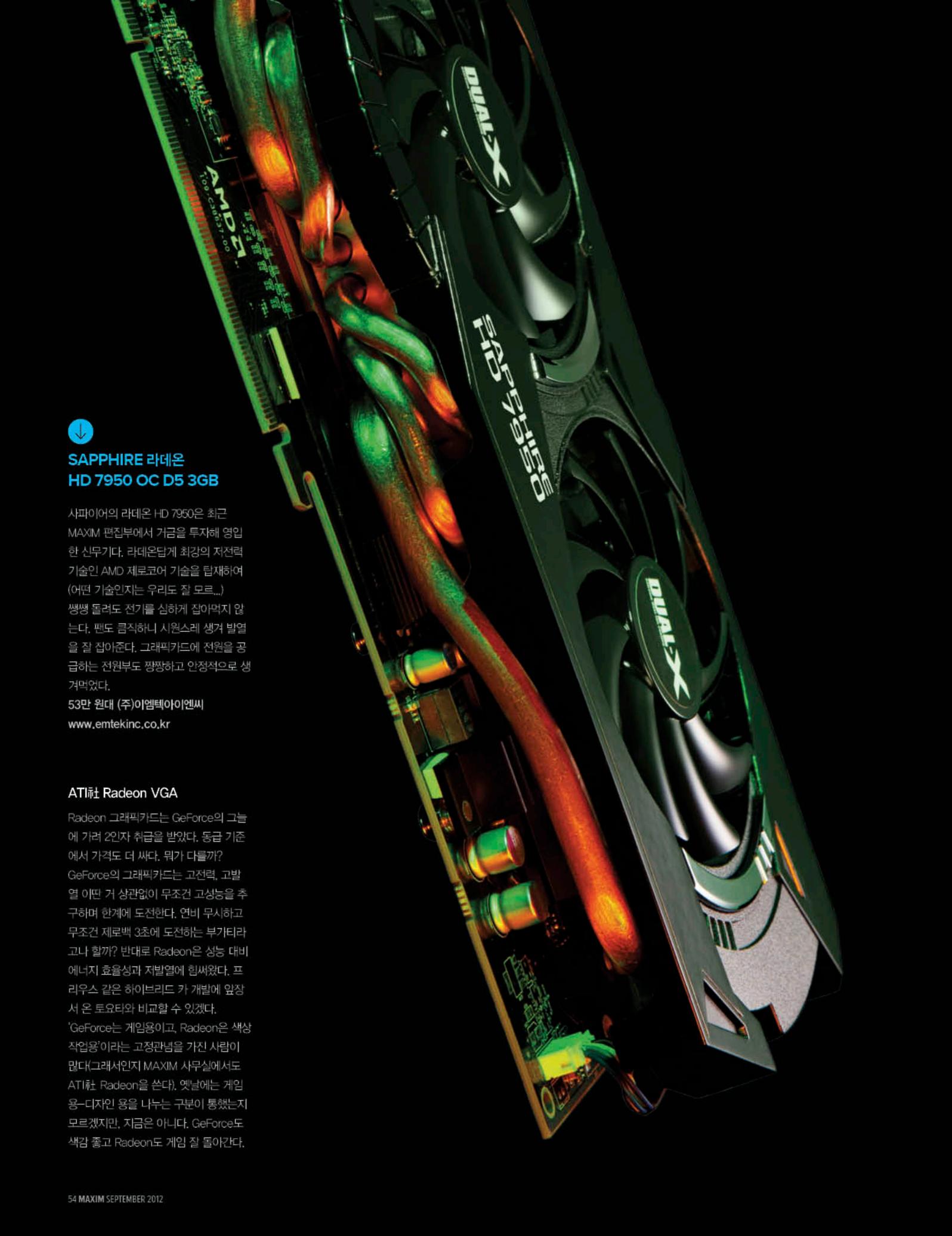
GTX 480과 GTX 640 중 더 좋은 놈은? 다시 말해 연식이 오래된 고성능과 최신형 저사양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좋냐는 말이다. 이것 자동차에 비유하면 '최신형 모닝이랑, 구형 페라리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라는 질문과 같다. 정답은? 당연히 구형 페라리, GTX 480(오래된 고성능)이다. 연식보다 중요한 건 바로 성능이란 애

기대(용팔이한테 속지 않으려면 큰크레프고 둘째 자리 숫자에 주목하라). 하지만 이 원칙이 늘 통하는 건 아니다.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저사양이 고사양을 능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 2012년형 K5 하이브리드랑 90년대 글동품 각본초를 비교하면 K5쪽이 더 좋은 물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4. GT? GTS? GTX?

그래픽카드를 사려고 '다나와'를 헤매다 보면 GT나, GTS나 여러 조합의 일파벳이 당신을 패닉에 빠뜨릴 거다. 사실 이 일파벳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자면 지포스 그래픽카드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데, 당신 공부하려고 MAXIM 산 건 아니잖아? 대충만 걸질러서 설명하자면,

LE - SE - XT - GS - GT - GTS - GTX 이런 게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나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당신이 컴퓨터 골동품상을 할 게 아닌 이상 GT - GTS - GTX 외엔 만날 일이 없을 테니 오 세 가지의 우열만 잘 기억해 뒤라.



SAPPHIRE 라데온 HD 7950 OC D5 3GB

사파이어의 라데온 HD 7950은 최근 MAXIM 편집부에서 거금을 투자해 영입한 신무기다. 라데온답게 최강의 저전력 기술인 AMD 제로코어 기술을 탑재하여 (어떤 기술인지는 우리도 잘 모르...) 뽕뽕 돌려도 전기를 심하게 잡아먹지 않는다. 팬도 큼직하니 시원스레 생겨 발열을 잘 잡아준다. 그래픽카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도 짱짱하고 안정적으로 생겨먹었다.

53만 원대 (주)이엠텍아이엔씨
www.emtekinc.co.kr

ATI社 Radeon V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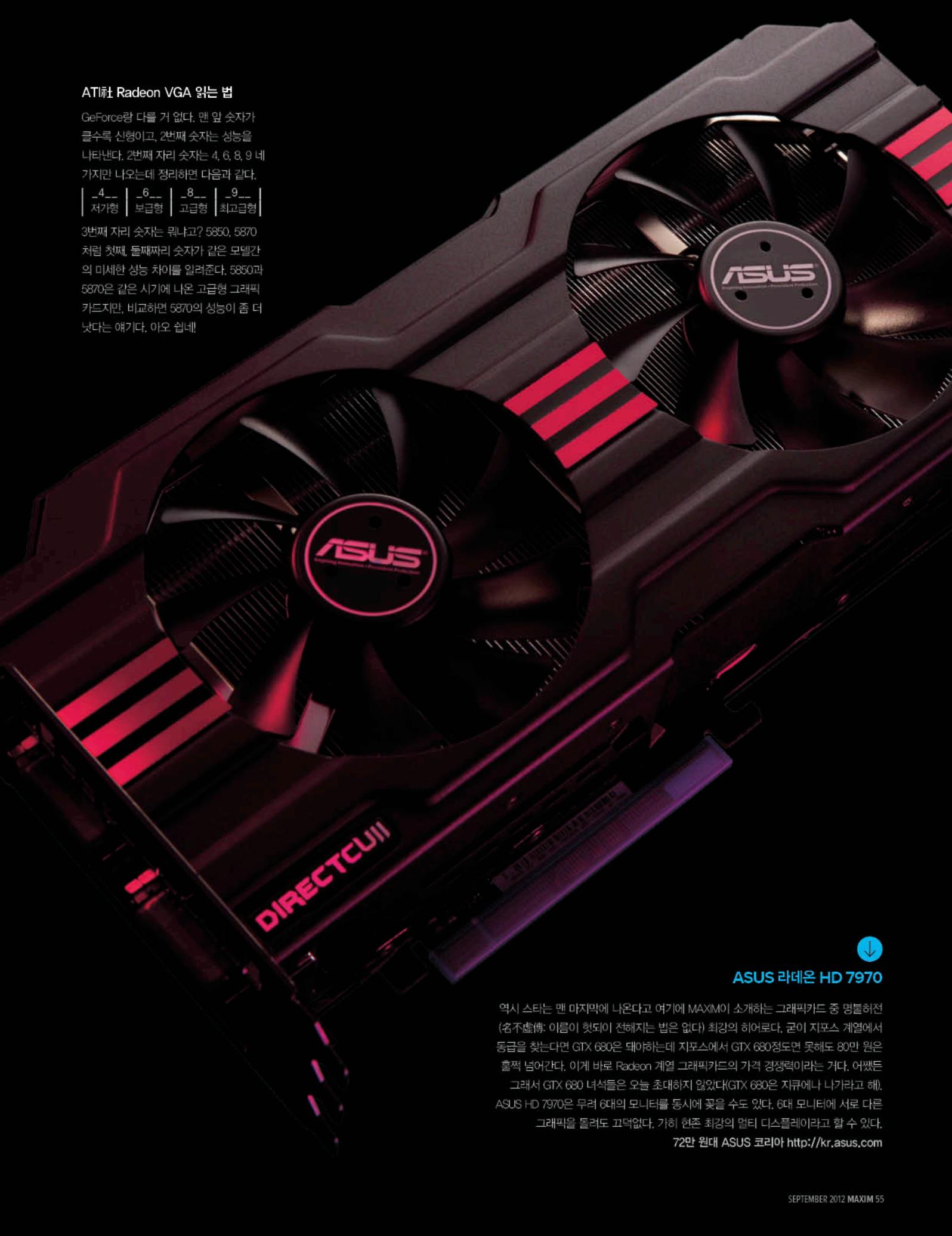
Radeon 그래픽카드는 GeForce의 그늘에 가려 2인자 취급을 받았다. 동급 기준에서 가격도 더 싸다. 뭐가 다를까? GeForce의 그래픽카드는 고전력, 고발열 이면 거 상관없이 무조건 고성능을 추구하며 한계에 도전한다. 연비 무시하고 무조건 제로백 3초에 도전하는 부가티라 고나 할까? 반대로 Radeon은 성능 대비 에너지 효율성과 저발열에 힘써왔다.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카 개발에 앞장서 온 토요타와 비교할 수 있겠다. 'GeForce는 게임용이고, Radeon은 색상 작업용'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다(그래서인지 MAXIM 사무실에서도 ATI社 Radeon을 쓴다). 옛날에는 게임용-디자인 용을 나누는 구분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GeForce도 색감 좋고 Radeon도 게임 잘 돌아간다.

ATI社 Radeon VGA 읽는 법

GeForce랑 다를 거 없다. 맨 앞 숫자가 클수록 신형이고, 2번째 숫자는 성능을 나타낸다. 2번째 자리 숫자는 4, 6, 8, 9 네 가지만 나오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_6_	_8_	_9_
저가형	보급형	고급형	최고급형

3번째 자리 숫자는 뭐냐고? 5850, 5870 처럼 첫째, 둘째짜리 숫자가 같은 모델간의 미세한 성능 차이를 알려준다. 5850과 5870은 같은 시기에 나온 고급형 그래픽 카드지만, 비교하면 5870의 성능이 좀 더 낫다는 얘기다. 아오 쉽네!



ASUS 라데온 HD 7970

역시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여기에 MAXIM이 소개하는 그래픽카드 중 명불허전 (名不虛傳: 이름이 헛되어 전해지는 법은 없다) 최강의 히어로다. 굳이 지포스 계열에서 동급을 찾자면 GTX 680은 돼야하는데 지포스에서 GTX 680정도면 못해도 80만 원은 훌쩍 넘어간다. 이게 바로 Radeon 계열 그래픽카드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다. 어쨌든 그래서 GTX 680 녀석들은 오늘 초대하지 않았다(GTX 680은 지류에나 나가라고 해). ASUS HD 7970은 무려 6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꽂을 수도 있다. 6대 모니터에 서로 다른 그래픽을 돌려도 고덕었다. 기하 현존 최강의 멀티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

72만 원대 ASUS 코리아 <http://kr.asus.com>

응답하라 atdt 01410, 하이텔 단말기

전화요금으로 2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은 자, PC통신을 논하지 말지어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승희

전화국이다 우체국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던 PC통신용 단말기, 체신부와 한국통신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하이텔 단말기는 비싼 PC를 사지 않고도 누구나 PC통신을 이용하게 하고자 고안된 전용기이다. 정보화 사회 구축 프로젝트라는 나름 거창한 이름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단말기 300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PC와 모뎀이 널리 보급되면서 하이텔 단말기는 애물단지가 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하드웨어 보급에만 10년 가까운 시간을 잡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나름 하이텔 단말기도 3번의 개선을 통해 통신 속도를 2,400bps급으로 올리고 편집, 저장 기능을 갖추었지만 이미 1996년에는 펜티엄 컴퓨터와 28.8kbps 모뎀이 쓰이고 있었다. 결국 1996년부터 단말기 생산을 중지하고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프로젝트는 6년 만에 폐지된다. 그래서 나중에 빌려 쓴 단말기를 반납하려고 전화국에 가지고 가면 그냥 쓰시라고, 그냥 가지라고 고객들을 돌려보내는 혼 혼한 광경이 연출되곤 했다.

* atdt 01410
 모뎀 통신시 전화 걸기 명령어.
 01410은 한국통신에서 서비스하던 하이텔의 접속 번호다.



하느님,
 이거 자르고 대하 가겠습니다.

1996 우리는 그때

- 1월 6일, 가수 김광석 사망
- 1월 31일, 서태지와 아이들 공식 해체
- 7월, 세계 최초의 머드 게임
(바람의 나라) 서비스 시작
- 9월 7일, H.O.T. 데뷔
- 9월 13일,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PIFF) 개막
- 9월 17일, 강원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 10월 29일, 막가파 검거

주먹 없는 폭력 PC통신

폭력은 으스스한 뒷골목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과 PC통신의 가상공간(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여럿이 소수를 괴롭히는 이 지메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PC통신에서 이 지메가 가장 심한 곳은 온라인 대화와 머드 게임. 채팅실에 초보자와 20대 후반이 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미 대화를 하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상대를 안 가리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최근 PC통신망에 가입한 이모씨(32, 회사원)는 "대화방에 갔을 때 타이핑이 늦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며 그후 주눅이 들어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고 정보 검색만 한다고 말했다. 대화방에는 주로 25세 미만의 신세대들이 많이 모인다. 이들은 대화시에 안나세요(안녕하세요), 어케해요(어떻게 해요), 무러봐(물어봐) 등의 비표준어나 카카, 짹, 꿀꿀 등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 당황하게 만든다.

<쥬라기 공원>, <단군의 땅> 등 머드 게임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은 '회오리', '퇴마군단' 등 화려한 이름을 가진 사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들 단체로부터 보복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 보복은 비록 언어 폭력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빠가 보이게 맞았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등 잔혹하게 표현되어 있다. PC통신과 인터넷에서의 이 지메 문제가 이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상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접속! ★ 성인자료실 ★ 분당 20원

"치이이이익- 애! 너 또 PC통신 하지!" 한창 비키니 여인네의 몸매가 드러나려던 찰나 결정적인 수위에서 화면이 멈춰 버린다. 엄마가 건넌방에서 수화기를 든 탓에 통신이 끊긴 것이다. 아쉬움을 달랠 새도 없이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너 때문에 지난달에 전화요금 얼마 나왔는지 아니, 중요한 전화 받아야 하는데 맨날 통화 중이다" 같은 잔소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나는 그나마 나는 편이다. 머드 게임에 빠진 친구놈은 지난달 거어코 80만 원짜리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고야 말았다. 녀석은 검불계 피가 터진 엉덩이를 만지작대며 엄마가 목잡고 뒤로 넘어가던 순간을 봐야 한다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미친놈.

같이 따라 웃었지만 우리 모두 그 녀석과 다르지 않았다. 밤만 되면 흘린 듯이 atdt 01410을 입력했다. "뚜뚜뚜뚜뚜뚜~ 뽀이이이익의 끼이이이익... 띠딩 띠딩 추이이이익... 꼬으으윽~ 꼬으으윽"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온갖 해괴한 소리가 귓가를 찌는다. 접속부터 바로 최대치의 위기가 덮쳐온다. 그때 atm=0 명령어를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친구가 알려준 이블로 컴퓨터를 감싸는 방법만이 답이었다. 파아란 화면 위로 ANSI로 쓰여진 유치한 환영 그림이 나타나면 벌써부터 설레서 서서히 몸이 달아오른다. 방대해 보이던 하이텔 자료실에 질러갈 때쯤 게임

잡지에서 찾은 사설 BBS 광고는 엄청난 유혹이었다. 전화비 이외에도 분당 20원~3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인포샵 서비스는 하이텔 자료실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자료를 제공했다. 따지고 보면 한 시간에 1,200원 정도니, 엄청나게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통신비 한 푼 아껴보겠다고 졸린 눈 비벼가며 야간 통신비 할인을 노렸던 청춘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런 주머니 사정에도 차마 이 탐스러운 자료들을 외면할 순 없었다. <양호 선생님의 비밀>, <아웃집 누나의 치마 속>처럼 침이 꿀떡 넘어가는 제목들이 나를 유혹한다. 두근거리는 맘으로 클릭한 게시물은 위에서부터 천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전송속도 3.6kbps에 너무도 감사했던 시절, 그렇게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진은 때론 "오오"하는 감탄사를, 때론 "에이" 하는 탄식을 번갈아가며 지르게 만들었다.

이름 모를 여인네들의 사진을 모으는 것 외에도 야설 게시판을 갈무리(접속한 상태로 읽으면 전화비 아까우니까 나중에 보려고 캡처하는 행동)하는 재미 또한 쏠쏠했다. 사진보다 훨씬 적은 용량이지만 상상력을 풀로 가동시키는 그 섬세한 필력! 불현듯 나는 그만큼 MAXIM 독자들의 아랫도리에 제대로 피를 몰아주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마성기의 왕자X를 부러워해본다.

萬物商會

만물상회

어린이 무료 인터넷교실

- 기간: '96. 7. 22(월)~8. 23(금)
- 대상: 초등학교 4, 5, 6학년
- 문의전화

서울 (02) 260-6374 대전 (042) 220-6539
대구 (053) 429-8544
(02) 726-3444 광주 (062) 220-0035
인천 (032) 670-6343 부산 (051) 461-6754

대한생명

購讀申請 02-323-1182

특별한 국산제품 001 특별할인 50%

최신구형이름 01410

PC 통신 '하이텔'을 대하는 순간 당신의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양한 정보와 홈쇼핑·예약 등은 시내전화 요금보다 30% 저렴한 하이텔을 이용하세요



하이텔 단말기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작으면서도 전화처럼 사용하기 쉬운 컴퓨터입니다.
- 지판을 PC처럼 크게 만들었습니다.
- A4 용지 25장 자료의 편집 및 송신도 쉽니다.
- 한국통신에서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정하여 무료로 보급합니다.

▶ 지금 바로 전화국에 신청하세요.

S/W '하이텔'도 무료로 드립니다

하이텔은 흑백 및 컬러(VGA) 겸용의 PC통신에 꼭 필요한 S/W로 문자정보(혹해 PC)뿐 아니라 그림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전화국에서 하이텔디스크를 무료로 드립니다.
- 하이텔서신스 "01410" 초기(화면)에서도 다운로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텔단말기 무료 특별정비

- 특별정비기간: '95. 4. 16~5. 31
- 고장단말기 수리 의뢰: 관할 전화국

▶ 언제든지 전화국에 수리를 의뢰하면 무료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하이텔 단말기 무상보급과 무료특별정비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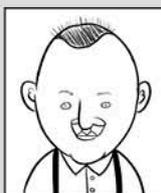
한국통신 Korea Telecom

단말기 보급 및 문의
각 국번+0000번

하이텔 단말기 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구매자카드



구매자: MAXIM 에디터 유승민
구매 가격: 199만 5천 원
구매 동기: 들고 다닐 수 있는
'데스크 톱'이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
부러움 지수: ★★★★★

MAXIM 뽐뿌질

형, 백 원만...

소니코리아, 바이오 Z 시리즈 한정판 출시

소니코리아가 바이오 브랜드 론칭 15주년을 맞아 바이오 Z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 모델은 프리미엄 글로시 탄소섬유 소재에 15주년 기념 메시지가 새겨진 한정판이다. 특히 빠른 부팅 속도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대용량의 256GB RAID SSD를 탑재했다. 1.17kg의 가벼운 무게와 16.65mm의 얇은 두께로 휴대성도 좋다. 제품은 한정판이지만 기능은 무한정인 바이오 Z 시리즈 최고

가격 3,549,000원

문의 소니코리아(www.sony.co.kr/store)



집에서 몸짱 되는 비법, 나이키+키넥트 트레이닝 하나면 끝!

Xbox 360용 키넥트의 혁신적인 기술과 나이키가 만났다. 일반인들도 이제 프로 운동 선수들이나 체험할 수 있던 나이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의 힘과 활동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발견해 최적화된 운동 계획을 세워준다. 고된 몸을 이끌고 헬스장을 오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개인 맞춤형 트레이닝을 받자. 홈 트레이닝만으로 당신도 몸짱이 될 수 있다고~!

가격 44,000원 문의 엑스박스(www.xbox.com)

고품격 사운드의 실현, 하이엔드 헤드폰 피델리오 L1

필립스가 50년 이상 축적해온 오디오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델리오 L1을 출시했다. 특수 제작한 40mm의 초경량 네오디뮴 드라이버는 풍성하고 선명한 음질을 전달한다. 또 메모리 폼 쿠션과 가죽 헤어밴드를 채택하여 장시간 착용에도 귀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뛰어난 음질을 위해 모든 플라스틱 구조물을 금속 재질로 대체하는 섬세한 장인 정신은 뭐가 달라 다르다.

가격 359,000원

문의 (주)필립스 전자(www.philips.co.kr)



아이패드 전용 스피커 베오플레이 A3 출시

베오플레이 A3는 아이패드 전용 스피커로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아이패드를 장착한 방향에 따라 스피커가 좌우로 자동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디자인은 아이패드를 세운 방향에 상관없이 균일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휴대성도 좋고 거치대도 불필요해 음악 감상, 영상물 시청, 게임에 사용해도 문제없다.

가격 890,000원 문의 뱅앤올룹슨

(02-518-1380, www.bang-olufsen.com)



intuos 5 touch
professional pen tablet

인투어스5 “무선&터치” 톡콘 이벤트

행사 기간 내 와콤 인투어스5를 구입 후, 제품등록을 하면 구매자 전원에게 와콤 무선 액세서리 키트를 드립니다.



대상모델 인투어스5 전모델 행사기간 2012년 7월 25일 ~ 9월 30일

참여방법 행사 기간 내 인투어스5 구입 이벤트 등록 (www.wacom.co.kr) 제품등록 (카드, 영수증)

행사문의 플루투스전자(주) 02-2062-5093

발송일정 접수후 15일 이내

Intuos5 구매하면 무선 액세서리 키트가 공짜!

9월 30일까지 펜 태블릿 Intuos5를 구매한 고객 중 제품 등록을 한 고객에게 무선 액세서리 키트(소비자가 55,000원)를 증정한다. 액세서리 키트는 USB Dongle, 충전 가능한 배터리, RF 방식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 등록은 플루투스 전자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양식 작성만 하면 끝!

문의 플루투스 전자(02-761-6971, www.plutus.co.kr)

완벽한 사진발을 자랑한다! 파나소닉 디카 루믹스 LX7

이보다 더 밝은 렌즈를 본 적이나 있을까? 1,270만 화소급의 디카, 루믹스 LX7이 세계 최초로 F1.4의 밝은 렌즈를 장착했다. 또 루믹스 LX7은 초당 120장의 초고속 동영상과 초당 11장의 연속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 버튼만으로 당신의 여친이 여신으로 거듭나는 마법을 보고 싶다면 루믹스 LX7과 함께하라. 8월 21일부터 500대 한정 수량으로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다.

가격 649,000원

문의 파나소닉코리아(panasonic.kr)



SMOKE&DRINK



1 2012 하이트 프로야구 스페셜 캔 디자인
알미를 정도로 수비가 탄탄하던 SK였는데, 이번 시즌은 아슬아슬하다. 지켜보는 팬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 2011년판 스페셜 캔 재고품
작년 준꼴찌였던 한화는 꼴찌였던 넥센과 나란히 홈플러스에 쌓여있다. 올해는 넥센을 제치고 꼴찌 확정, 또다시 재고품 확정이다.



3 이것도 2011년판 재고품
꼴찌였던 넥센은 아직도 재고품이 판매중이다. 덕아웃 분위기가 좋기로 소문난 팀이지만 올해 또 꼴찌해도 좋을까?

‘하이트의 저주’, 탄생하나?

프로야구 8개 구단 중 하이트와 손잡은 5개 구단만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나?
BY 손민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천은경

2012 하이트 프로야구 스페셜 캔
하이트는 작년과 올해, 프로야구 5개 구단과 손잡고 프로야구 스페셜 캔 맥주를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하이트의 돈을 받고 구단 로고 사용을 허락한 5개 구단은 넥센하이어로즈, 한화이글스, SK와이번스, LG트윈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다.

구단에 얼마를 줬는진 몰라도 아이디어는 참 기동쳤다. 하이트 측에선 다섯 팀 중 세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을지도 모른다. 여름 장사료 끝났을지도 모르는 스페셜 캔을 가을까지 더 팔아치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이트의 저주, 발동!
세상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하이트에 팀 로고를 판 5개 구단은 가을 야구로 가기가 영 쉽지 않아 보인다. 넥센과 LG, 한화는 술이 덜 깬 주정뱅이 마냥 이미 멸망해버렸고, 롯데와 SK는 기아의 맹추격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특히 SK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여 주겠다고 감독의 과한 패기로 수비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기아는 롯데, SK에 비해 5경기나 덜 치른 ‘아직 배가 고프’ 상태. 이리다가 탄탄한 선발진을 갖춘 기아가 미친 호랑이 모드로 변신해서 정말 3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하이트의 저주는 완벽히 실현된다.

2012 프로야구 리그 순위 (2012년 8월 16일 현재)

순위	팀명
1	삼성라이온즈
2	두산베어스
3	롯데자이언츠 HITE
4	SK와이번스 HITE
5	KIA타이거즈 HITE
6	넥센하이어로즈 HITE
7	LG트윈스 HITE
8	한화이글즈 HITE

기아만 3위로 치고 올라가면 저주 실현!

하이트를 거절한 팀 3



미쳤나? 하이트랑 하게?





세계 맥주 기행: 아일랜드 편

각국을 대표하는 맥주를 만나는 일은
세계 여행을 하는 설렘과도 같다.
이번 달엔 기네스의 본고장 아일랜드로!

BY 이효복(대표이사 / www.waber.co.kr)
DESIGN 전은경



오빠 더블린 스타일~

문화와 맥주에 취한 나라

북대서양 북동부의 에메랄드빛 섬 아일랜드. 아일랜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 영화배우 콜린 파렐, 축구 선수 로비 킨의 고향, 네임클로버와 성 패트릭의 날, 취미가 테러고 특기가 싸움인 아일랜드공화국군(IRA), 이나영과 현빈이 나온 드라마 〈아일랜드〉, 아일랜드 기근, FT아일랜드...는 아니고, 하여튼 아일랜드에 대한 인상은 사람에게 따라 다를 것이다. 푸르른 초원이 펼쳐진 판타지와 로맨스의 땅? 과격하기로는 이탈리아인 뺨치는 다혈질들이 모여 사는 섬나라? 뭔가 당신과는 별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아일랜드는 의외로 당신의 귀와 감성에 이미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섬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수한 전통의 역사를 지닌 문화의 중심 국가로 W.B. 예이츠, 조지 버나드쇼 등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제임스 조이스, 오스카 와일드와 같은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했다. 영화 〈원스(Once)〉의 무대가 되었던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는 전통과 예술, 음악이 살아 있다. 더블린 거리 곳곳



기네스에는 기네스 오리지널, 드래프트,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가 있다. 아일랜드에는 기네스 말고도 많은 고유의 맥주가 있다.

에는 세계 각지에서 음악을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과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이 넘쳐흐른다. 대표적인 아일랜드 출신 뮤지션에는 유투(U2), 데미언 라이스(Damien Rice), 웨스트라이프(Westlife), 코어스(The Corrs), 밴 모리슨(Van Morrison), 엔야(Enya), 시니드 오코너(Sinead O'Connor), 크랜베리스(the Cranberries), 보이존(Boyzone) 등이 있다. 한마디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일랜드는 천국 같은 곳이다. 하지만 뭉치 뭉치 해도 아일랜드의 상징이자,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것은 '맥주'다. 그것도 전 세계 판매 1위 스타우트 '기네스(Guinness)' 맥주. 기네스가 영국 맥주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기네스는 엄연한 아일랜드의 문화 아이콘이다. 이를 강조하듯 기네스 맥주병에는 아일랜드의 국장(國章)인 하프가 그려져 있다. "이몸은 아일랜드의 것이오!"라고 외치듯 말이다.

9천 년의 사랑, 기네스

기네스 맥주의 이름은 창립자 아서 기네스(Arthur Guinness)에서 따왔다. 1759년 아서 기네스는 폐업 상태에 있던 더블린의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 양조장(St. James' Gate Brewery)을 연간 45파운드의 임대료를 내고 무려 9천 년 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아일랜드 풍 에일 맥주를 양조하기 시작했다. 9천 년이라니... 지금으로부터 약 9천 년 전이면 인류가 돌 깎아서 먹고 살던 석기시대라는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다. 아마 지금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기네스 맥주가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날 일은 없을 것이다. 임대 계약은 아직 8,800년도 더 남았으니까. 기네스는 영국의 포터 맥주가 유행하자 에일 생산을 중단하고, 당시 런던에서 유행하던 포터 맥주를 주로 생산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후 기네스 회사의 맥주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런던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 최초의 흑맥주'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가 출시된다.

기네스 맥주, 그 맛은?

현재 아이리시 드라이 스타우트 맥주의 대명사가 된 기네스 맥주는 카푸치노 크림 같은 부드러운 거품과 풍부한 향이 특징으로, 오늘날까지 '아일랜드의 영혼'이라고 불리며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기네스 맥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50여 개국에서 판매된다. 전 세계인들이 매일 내장에 들이붓는 기네스 스타우트는 대략 1천만 잔 이상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다. 기네스 맥주에는 기네스를 대표하는 기네스 드래프트(알코올 도수 4.5%), 탄산 거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네스 오리지널(4.2%), 아일랜드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할 만큼 깊은 맛을 자랑하는 포린 엑스트라 스타우트(5.0%) 등이 있다. 그중 기네스 드래프트는 질소와 이산화탄소의 조화로 부드러운 크림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드래프트 병과 캔 안에 들어 있는 위젯(Widjet)이라는 작은 플라스틱 장치 거품을 풍부하게 하고 맛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위젯은 기네스 드래프트만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든 아이디어 장치로 맥주를 개봉했을 때, 질소를 방출해 생맥주의 생명인 거품을 풍부하게 하고 신선한 맛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기네스만 아일랜드 맥주나? 우리도 있다!

아일랜드 맥주 하면 기네스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아일랜드에는 좋은 맥주 브랜드가 많다. 콜크(Cork)의 머피스(Murphy's)나 비미시(Beamish) 맥주도 유명하며, 해외 수출용의 적황색 맥주인 킬케니(Kilkenny), 아이리시 하프(Irish Harp) 또한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맥주들이다. 올해 디아지오 코리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300년 전통의 아일랜드 에일 스미틱스(Smithwick's) 역시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맥주다. 다양한 아일랜드 맥주의 매력에 빠지는 동시에 그들의 일상과 예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아일랜드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펍을 찾으면 된다. 아일랜드인의 하루는 펍에서 시작해 펍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정글정글하게 드나들면 펍을 '제2의 집'이라고 하겠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1만여 개의 아이리시 펍(Irish Pub)이 아일랜드를 술독에 빠트리고 있다. 정이 많기로 유명한 아일랜드는 '유럽 속의 한국'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닮았다. 아픈 역사를 지닌 점, 국토가 분단된 것 그리고 음주와 가무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정서까지 말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이리시 펍이 인기를 끌면서 아이리시 펍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아이리시 펍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이민 역사와 함께 생겨났지만, 현재의 아이리시 펍은 많은 이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가고 막바지 늦더위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 시원하고 부드러운 아일랜드 맥주 한잔으로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보는 건 어떨까(아, 물론 내가 쓴다는 얘긴 아니야). ☺

기네스 드래프트 제대로 따르는 법

그 부드러운 거품, 당신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기네스를 먹으려면 3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가장 맛있는 기네스 맥주를 먹기 위해선 전문 비텐더가 기네스의 크림 거품과 맥주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느냐고? 잘 따라해봐.

1 기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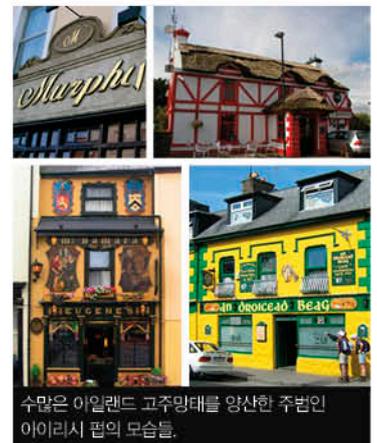
잔을 기울여 잔 입구 위에서 3cm 되는 부분(기네스 전용 파인트 잔의 하프 표시 있는 곳)까지 기네스를 따르고 2분 정도 기다린다. 그동안 파인트 잔 속의 맥주가 폭포처럼 내려가면서 얇은 고동색의 맥주는 검게 변한다.

2 채워!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2분을 잘 참았다면? 이제 잔을 똑바로 세워 기네스를 잔 위까지 가득 따르자. 카푸치노 크림 같은 것이 폭포처럼 아래로 퍼져 나간다.

3 쳐마시!

눈으로 크림 폭포를 즐기면서 1분 정도 기다렸다 마시는 게 정석이다. 기네스는 당신이 잔을 기울 때까지 거품이 남아 있을 것이다. 아유, 이 잔 벽에 붙은 거품 찌꺼기까지 먹고 싶어!



수많은 아일랜드 고주명태를 양산한 주변인 아이리시 펍의 모습들.

HARD vs. SOFT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오늘도 담배를 찾는 애연가들에게 매번 똑같은 영검의 질문을 던진다. “팩이오, 껍이오?”

BY 조중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머리에 그리스를 잔뜩 바르고 올백으로 넘긴 사내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담뱃갑을 꺼내 손목을 털 듯 팔을 올리면, 담배 한 개비가 튀기듯 솟아오른다. 그 어떤 시선도 담배를 향하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담배 한 개비를 꼬나문 사내는 청 재킷 앞주머니에 담뱃갑을 대충 찢러 넣고 지포 라이트로 불을 붙인다. 지포를 닫는 ‘찰칵’ 소리와 함께 사내의 얼굴을 감싸는 담배연기. 당신이 방금 상상한 그림에서 이 사내가 피우는 담배는 ‘팩’인가 ‘껍’인가?

소프트 팩

얇은 종이로 케이스를 만들어 손에 잡히는 질감 자체가 여친 숨가만큼이나 부드럽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하지만 처녀막은 재생 수술이라도 가능하지. 이 녀석은 한번 뜯었다 하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녀석이기에도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 까다로운 녀석이다. 물론 반대로 소프트 팩을 추종하는 애연가들은 뚜껑을 열지 않아도 되니 보다 빠르고 손쉽게 언제라도 담배를 꺼내 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케이스가 견고한 하드 팩과 달리, 담배가 줄어들수록 주머니 속 공간도 여유로워진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걸 보면 가끔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다만 소프트 팩의 담배 길이가 하드 팩보다 미세하게 길다는 사실(미국 기준) 정도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하드 케이스의 등장

담배 회사들이 간편일수록 소프트 팩을 고수하던 중, 하드 팩(Hard Pack) 혹은 뚜껑을 밀어 연다고 해서 플립톱(Flip-top)으로 불리는 하드 케이스가 1955년 필립 모리스에서 나왔다. 당시 반응이 괜찮았는지 이후로 오늘날까지 담배 회사들은 대부분

뻗뻗한 페이퍼보드를 이용한 플립톱 케이스를 생산해내고 있다. 동종 담배의 하드 팩 방식이 소프트 팩 상품과 함께 양산되는데도 여전히 그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다름 아닌 패키지의 ‘견고성’에 있다(뒤틀든 딱딱하면 장땡이니까). 소프트 팩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둔 채로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탁기를 파괴해 본 사람이라면 하드 팩의 견고성이 간절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남자의 로망

그럼에도 소프트 팩이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맛’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 팩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상 기호로서의 담배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플립 톱 케이스를 밀어 올려 담배를 골라 꺼내 물고 다시 뚜껑을 닫는 과정은 애연가가 담배를 피우는 순수한 프로세스를 자칫 번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담배 한 대만 빌려달라는 타인의 부탁에 썩소를 지으며 나중에 한 갑으로 값오리며 멋들어서 팩 사이로 담배 한 개비를 들어 올려 입에 물려주는, 심플하고 끈끈한 비주얼이 만들어내는 남자의 멋. 그것이 바로 소프트 팩이 상징하는 애연가들의 ‘로망’이니까.

MAXIM POLL 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담배는?

- 캡슐(클릭)형 담배 열풍. 사람들도 과연 좋아할까?
- 1위. **좋다.** 한 가지에 두 가지 맛이니까(45.6%)
 - 2위. **별로다.** 캡슐 없는 보통 담배가 좋다.(39.1%)
 - 3위. **별로다.** 캡슐 없는 멘솔 담배가 좋다.(15.2%)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 담배 혹은 순수한 멘솔 담배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캡슐형 담배의 지지도가 45%(225명)에 육박했다. 자동차도 카메라도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시대의 흐름인지, 아니면 경제 불황 때문에 2 in 1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다 하이브리드형 XXV 엄썬체가 판을 치는 날이 오진 않을지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도...

공간 필터+캡슐 필터,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2 in 1
담배는 커녕 물리법만 알고 있을 2인2 같은 이름이 거슬리지만, 공간 필터 외길 인생을 걸어온 팔리아멘트에서 캡슐형 공간 필터를 내놓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새롭기도 하다. 여태까지 출시된 캡슐형 담배들이 대부분 클릭 후의 강한 멘솔 맛에만 비중을 두었던 것을 생각하면, 팔리아멘트의 공간 필터는 다소 밋밋할 수 있는 클릭 이전의 맛도 부드럽고 깔끔하게 만들어준다.



살아 있네

ADDICTED TO APPLES, SNOW WHITE

독 사과 덕에 인생 역전한 그녀는, 요즘도 그렇게 사과만 찾는다 카더라. by 조용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윤정



● 골드 메달 애플 주스

수상한 할매가 준 독사과 때문에 지옥 대장정 갔다 올 뻔한 순수한(귀가 얇은) 그녀가, 이번에는 100% 사과 과즙이라는 문구에 필이 꽃힌 모양이다. 유명 커피숍에서 커피와 함께 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는, 명실공히 최고의 사과 주스 브랜드. 대세는 대세인지라 그녀 또한 요즘 즐겨 읽는 신간 <소녀경>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하루에 한 병씩 비우곤 한다지.



● DKNY 비 딜리셔스

마릴린 먼로가 '잘 때 유일하게 걸치고 자는 옷'이라고 표현한 사일 No.5처럼, 백설공주 또한 DKNY의 향수 비 딜리셔스를 뿌리곤 한다. 대놓고 사과 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보틀의 모양과 실제로도 은은하게 풍기는 시원한 사과 향이 그 오묘한 이름처럼 그녀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준 모양이다. 백.설.공.주.맛.있.어~ 맛.있.어.면.또.먹.어~



● 듀렉스 애플 콘돔

명불허전 콘돔의 대가 듀렉스(DUREX)에서 제작한 달콤한 사과 향 가득한 콘돔. 듀렉스 애플은 은밀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후각을 자극한다. 물론 동심파괴를 전제로 한다면, 왕자님과 그의 연애를 더욱 활기차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이보다 좋은 아이템이 있을까? 근데... 이거 혹시 왕자 말고 난쟁이 새끼들이 쓴 거 아니?



● 한정판 차이슬 애플

동화: 마귀 할멈의 꾀에 빠져 독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졌고, 백마 탄 왕자님에게 발견되어 입맞춤을 받아 잠에서 깨어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실: 마귀 할멈의 꾀에 빠져 '차이슬 애플'을 몇 병 비운 백설이는 또 골뱅이가 되었고, 백인 양키 영어 강사에게 발견되어 흥련 한판 당하차 잠에서 깨어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했습니다.



● 에세 센스 애플민트

사과 향 제품만 고집하는 사과 덕후 백설 공주는 듀렉스 애플 콘돔을 애용하는 만큼이나 사과 향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위아래로 사과 향이 가득하고파 언젠가는 담배마저 사과향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로 사과 향 담배를 찾던 그녀는, 마침내 근위병 PX에서 에세 센스 애플민트를 발견한다. 시원한 멘솔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의 에어그림 필터가 최근 죽다 살아난 그녀에게 어쩌나 잘 맞던지. 요즘도 난쟁이들과 긴 수다를 떨 땀 어김없이 그자리에서 무려 반 갑을 비우곤 한다.

MOTOR

OF THE MONTH

막나가는
부가티,
영상으로!



**SPEC
CHECK**

가격
약 27억 원(복미 기준)

전비 중량
1,995kg

엔진
7.9L, W16-실린더 엔진

타이어 한 세트 가격
약 3,400만 원

한정 판매
150대



히히히히! 자동차 마력의 역사

1955 THUNDERBIRD	193 hp
1973 MALIBU SS	147 hp
1986 BMW M3	197 hp
1992 MCLAREN F1	627 hp
2012 BUGATTI VEYRON 16.4	1,200 hp

1,200마력의 괴물 슈퍼카 탄생

27억 원 있어? 새로 나온 **부가티 컨버터블** 한 대 사라.

지상 최고속도의 컨버터블 스포츠카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일부 대머리 부호들은 가발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아찔한 상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가티 사람들은 친절하게도 그런 슬픈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주었다. 새로 출시된 부가티 베이론 16.4 그랜드 스포트 비테스(Bugatti Veyron 16.4 Grand Sport Vitesse)는 410km/h로 달리는 중에도 당신이 공들여 만진 헤어스타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준다.

아 참, 이 부분에서 당신은 '에이, 무슨 410km/h야? 오라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노, 노! 부가티 베이론

16.4는 410km/h라는 경이로운 속도를 낸다. 힘이 어찌나 좋은지 16실린더에 4개의 터보 차저 엔진은 최대 1,200마력을 뿜는다. 1,200마력이면 쉐보레 콜벡과 포르쉐 911 카레라S 그리고 프리우스 2대의 마력을 합친 것과 같다. 제로백은 2.5초다. 아래 자동차들은 여기에 비하면 애들 장난감처럼 보인다.

아우디 R8 GT 스파이더

최고 출력: 560마력 / 제로백: 3.8초 /

최고 속도: 317km/h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50-2 스파이더

최고 출력: 550마력 / 제로백: 4.2초 /

최고 속도: 319km/h

여기에 사륜구동 방식과 강화된 브레이크 콜링 시스템은 덤. 단점을 굳이 꼽자면 시내 주행 시 3.4km/L, 고속도로 주행 시 5.5km/L인 연비. 하지만 연비 따위가 뭐 대수랴. 이 '기름 먹는 하마' 값으로 27억을 구멍가게 검감처럼 쓰는 사람이라면, 아마 수백 개의 유전을 이미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www.bugatti.com

NAUGHTY GIRL LIKES GENTLEMAN TOYO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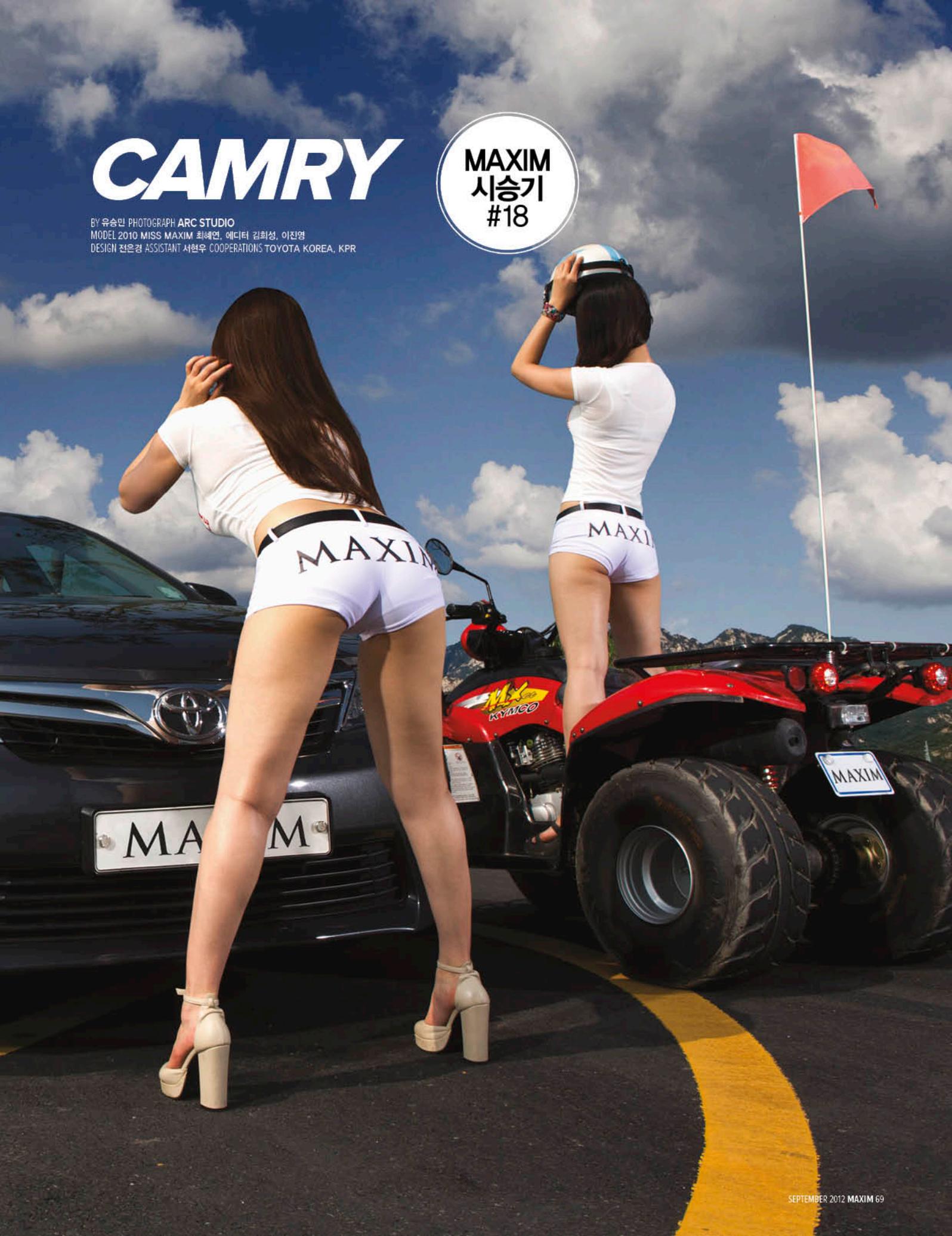
대전 해수욕장에서 열린 MAXIM 비치 파티 최고의 인기 스타는 역시 MISS MAXIM이었다. 그리고 그녀들을 에스코트한 건 바로 캠리였다. 그녀들의 엉덩이를 모시는데 소홀함이 있어서선 안 되니까!



CAMRY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MODEL 2010 MISS MAXIM 최혜연, 에디터 김희성, 이진영
DESIGN 전은경 ASSISTANT 서현우 COOPERATIONS TOYOTA KOREA, KPR

MAXIM
시승기
#18





GIRL TALK ABOUT CAMRY

희성: 이번 달의 주제는 '캠리 타는 남자군.'
해연: 그나저나 이번 달엔 앞 페이지에 캠리 시승기가 없네요?
안나: 응. 캠리를 시승한 에디터가 시승을 마치고 돌연 사직서를 내버렸지.
희성: 그래서 앞 페이지는 그냥 우리 사진으로 땀땀...
해연: 시원하니 좋네요 뭐.
안나: 면허도 없는 여자들한테 자동차 기사를 써내라니 이 회사 너무한 거 아니?
희성: 제발 그 애길 편집장 앞에서 해줘.
안나: 그런데 시승기를 쓰기로 했던 에디터는 왜 사직서를 낸 거지?
희성: 글썄, 사직을 부르는 차, 캠리인가...
해연: 로또라도 당첨된 건 아닐까요?
희성: 로또를 부르는 차, 캠리인가...
안나: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
해연: 이번 달의 주제인 '캠리 타는 남자' 말이에요, 사직서를 낸 그 분의 이미지와 묘하게 매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캠리 탔던 남자.'
희성: 굉장한 모범생이었지.
안나: 그렇네. 캠리라는 차는 정말 모범생들의 차 같아.
해연: 무난함이 최고의 무기인 차죠.
희성: 7세대 캠리는 그 중에서도 모범생의 끝판왕이야.
해연: 정말 튀는 데도 없고, 거슬리는 데도 없어요.
안나: 난 이렇게 좋아. 평범하고 점잖고 어른스러운 게 맘에 들어.
해연: 정말 사람들은 무난한 차를 좋아하니까요. 이게 세계적으로 1,400만 대가 팔렸대요.
희성: 헐, 1,400만 대?
해연: 네, 북미에서 9년 동안 베스트셀링 카이기도 했구요.
안나: 대화가 광고스럽게 흘러가는데?
해연: 캠리라는 브랜드 하나로 30년! 디테일의 진정

한 깊이, 103가지 디테일, 캠리! 토요타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 광고비는 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요. 우 리은행 1002-231...
희성: 난 이렇게 모범생스러운 거 싫은데. 너무 고치 식해 보이잖아.
안나: 그만큼 신뢰가 가는 타입이지. 바른 생활 사나이, 캠리 시승했던 그 남자도 그랬잖아.
해연: 평범하고 무난한 차가 많이 팔린 것처럼, 남자도 평범하고 무난한 남자가 잘 팔리죠.
희성: 하긴. 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까불이보다야 캠리 같은 남자가 백만 낫지.
안나: 응, 속이 딱 찬 남자일수록 겉모습은 점잖고 평온하지.
해연: 캠리 속은 어때요?
안나: 인테리어 훌륭해. 클래식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워.
희성: 속이 딱 찬 남자군.
해연: 오, JBL 오디오가 기본 사양이네요?
희성: 센스까지 있는 남자군.
안나: 그리고 보니 캠리 타고나서 퇴사한 그 남자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
희성: 어떤 점이?
안나: 성실했지. 정직하고, 겸손하고, 일도 잘하고.
희성: 음. 맞아. 자, 이제 캠리남의 섹스 타입에 대해 논해볼까?
안나: 혹시 그 남자랑 해 본 사람 없어?
희성: ...
해연: ...
희성: 아무도 없네. 아쉽군.
안나: 전화해서 물어볼까?
희성: 뭘 물어봐?
안나: 섹스 스타일이 어떠시냐고...
해연: 됐어요. 미친 여자들인 줄 알겠네.
희성: 캠리남은 성실한 이미지라며, 섹스 스타일도 성실하겠지.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연: 멋지네요.
안나: 어쨌거나 캠리 타는 남자를 떠올렸을 땐 짜릿한 남친의 이미지보단 득직한 남편의 이미지가 떠올라.
해연: 패밀리 카로 거의 완벽하니까요.
희성: 요새 시집가고 싶구나?
해연: 공신력있는 리서치 결과에서 구매 후 만족도가 제일 높은 차로 캠리가 1위를 먹었대요. 가족이 있으면 차차식들에게도 맘에 드는 차여야 하니까요.
안나: 미래의 남편이 이 차를 사려고 하면, 어떤 다른 차량 놓고 고민해야 하는거지?
해연: 국산차 중에는 기아의 K5랑 직접 경쟁 대상이 되고 있던데요?
희성: 그래? K5가 얼마지?
해연: 풀옵션 달면 3천 되죠.
희성: 헐, 가격 차이가 거의 없네? 국산차 메리트 너무 없는 거 아니?
해연: 캠리가 특히 가격 완전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K5보다 더 고사양인데다가 수입차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더 싼 거나 다름없어요.
안나: 웬지 남편이 K5 타고 다니면 바람날 거 같아. 라인이 세뺑하니 좀 날티나게 생겼잖아. 캠리를 타는 남자는 반대로 나밖에 모르는 순정남일 것 같아.
해연: 대중 '캠리남' 각 나온 거 같은데요?
희성: 근데 '캠리 타는 남자'의 이미지에 관해서 보고하라면서 왜 '캠리'만 주는 거지? 캠리 타는 '남자'를 달라고!



3,390만원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DOHC 듀얼 VVT-i
연료	가솔린
배기량	2,494cc
최고 출력	181hp
최대 토크	23.6kg·m
변속기	자동 6단
공인 연비	12.8km/L(3등급)
승차 정원	5인승
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차 길이	4,805mm

옆 페이지의 바로그 남자

우리 촬영
이렇게
했어



모터사이클에 제로백이 2.5초에 달하는 강력한 6기동 엔진이 탑재되고, 눈 깜짝할 사이 프로 드라이버처럼 기어 번속을 해주는 듀얼 클러치가 장착되고, 컴퓨터가 상황에 맞춰 출력과 서스펜션 세팅을 제어해주는 세상이지만 그것만이 모터사이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의 진화를 비껴간 듯, 55년 동안 기본 설계를 바꾸지 않고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는 로얄 엔필드는 전통이란 이름 하나로 이 모두를 압도한다. 마치 "원래 모터사이클은 이런 거란다"라고 점잖게 타이르는 영국 신사 같다.

영국 모터사이클 브랜드 로얄 엔필드는 1905년 초반의 모터사이클 디자인을 현대화한 'Classic(클래식)'부터 1955년 처음 선보여 지금까지 초기 모습 그대로 생산되고 있는 'Bullet(볼릿)'까지, 그 옛날 모터사이클의 원형을 계승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 엔진만 업그레이드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때 그대로다. 외관만 클래식한 느낌을 살린 다른 브랜드와 달리 우리와 함께 긴 세월을 살아온 전통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이다.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고성능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일수록 이에 대한 반발로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최근 세계 패션과 디자인 트렌드가 '클래식'이라는 것이 바로 증거다. 그런 의미에서 로얄 엔필드는 빠르고 강력한 최신 모터사이클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안이다. 말안장 시트 위에 앉아 엉덩이가 간질간질해지는 빅 싱글의 투박한 진동을 느끼며 과거 돈키호테의 기분을 맛볼 수도, 시대를 역행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낭만에 젖어볼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19세기의 사람들은 모터사이클 위에서 이런 기분을 느꼈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리얼 클래식, 로얄 엔필드만이 줄 수 있는 진짜 멋이다.

A Real British Classic **Royal Enfield**

신차로 구입할 수 있는 진짜 빈티지 모터사이클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FILM 이영환 MODEL 이명희 DESIGN 서윤정 ASSISTANT 송안나
 COOPERATIONS 로얄브리튼리틀클래식(www.royalensfield.co.kr),
 레트로 워크스(www.retroworks.co.kr), 어글리브로스(www.uglybros.com),
 풀링하우스(02-6396-8892), 슈콜마루니(02-3446-7725),
 잇츠닷 액세서라이즈(www.itstdotacc.com), 트라이, 앤스타일(02-3485-6130),
 게스 인터웨어(02-3447-0555), 슈조원(02-3443-1703),
 까레라 by 사필로(2017-3765)

SPECIFICATIONS ROYAL ENFIELD CLASSIC 500

엔진 형식	공냉 4스트로크 OHV 단기통
배기량	499cc
최고 출력	20.3kw (27.2bhp)@ 5250rpm
최대 토크	43.1nm@ 4000rpm
연료 공급	방식 퓨얼 인젝션
연료 탱크	용량 14.5L
변속기	수동5단
차량 중량	183kg
가격	1,023만 원



재킷 벨스타프
워커 슈콤마보니
팔찌 잇츠닷 액세서리즈



바이크 위에
몸을 밀착!



역시 남풍이 최고여

원래 영국에 있던 로얄 엔필드 본사는 1963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인도 정부에 군용 바이크를 납품하던 엔필드 인도 지부는 인도 내수시장의 안정화에 힘을 얻어 끝끝내 살아남았다. 오히려 1980년대에는 클래식 붐이 일기 시작한 영국과 유럽에 재진출하며 클래식 모터사이클의 매력을 다시금 널리 전파하기도. 현재 로얄 엔필드는 모두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브라톱 트라이 콰덱스
브라 게스 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브라톱 트라이 콜맥스
브라 앤스타일
팬츠 어글리브로스

앗 뜨거





벨스타프(Bellstaf)

1924년 설립된 벨스타프는 가장 영국적인 모터사이클 라이딩 기어를 생산하는 브랜드로, 그 유명한 체 게바라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투어를 떠날 때 벨스타프 재킷을 입어 유명해졌다. 이후 생겨난 열정적인 라이더들에게 벨스타프는 일종의 진정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ROYAL
ENFIELD

팬츠 어글리브로스
브라 앤스타일
선글라스 까레라



남자)
재킷 벨스타프
헬멧 다비다

다비다(Davida) 헬멧
영국 리버풀에 기반을 둔 다비다는 영국 유일의 모터 바이크 헬멧 제조 회사다. 다비다 헬멧은 천연 가죽을 사용한 고급 내피와 모든 장식들을 최고의 장인들이 한 개씩 손으로 제작하는 100% 핸드메이드 제품이다. 비싸지만 피팅감이 일품이고 무엇보다 머리가 작아 보인다. 단, 긴 얼굴은 답이 없다.

MOTOR NEWS

현대자동차 2013년형 아반떼 출시

국내 준중형 시장의 최강자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출시 2년 만에 신모형을 선보인다. 2013년형 아반떼는 LED 리어 콤비 램프를 적용해 디자인을 보완했고,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루미늄을 장착해 더욱 스포티한 스타일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모델에 없던 하이질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추가해 고객의 선택 폭을 더욱 넓혔다. 현대자동차 효자 모델 아반떼! 그들의 독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가격 1,515만 원(1.6 가솔린 모델) 1,830만 원(블루세이버 모델)
문의 현대자동차(www.hyundai.com/kr)



쌍용 코란도 스포츠 MANIA 모델 출시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스포츠 MANIA 모델을 출시했다. 코란도 스포츠 MANIA는 사륜구동인 CX7에 6단 수동 변속기를 장착해 다이내믹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갖췄다. 게다가 한국형 디젤엔진인 E-XDi200 LET가 장착되어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프레임 타입 차량임에도 15.8km/L의 높은 연비를 발휘한다. 코란도 스포츠 MANIA는 고유가 시대 경제성에 더욱 예민해진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델. 사륜구동에 그 덩치에 고연비를 실현시키다니... 심심한 주말을 책임져 줄 든든한 녀석 하나 추가요~

가격 2,336만 원 문의 쌍용자동차(www.smotor.com)



폭스바겐 코리아, 8월 1일부터 제타 가격 인하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8월 1일부터 프리미엄 세단인 제타의 가격을 모델별로 각각 100만 원씩 인하한다. FTA의 영향으로 수입차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폭스바겐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출시 이후 이어온 제타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 1.6TDI 블루모션은 22.2km/L의 공인 연비와 최고 105마력을 자랑하고, 2.0TDI 모델은 18.0km/L의 공인 연비와 140마력의 힘을 보여준다. 예비 제타 오너들이여, 조금해할 필요 없다. 가격 인하 프로모션이 아닌 가격을 아예 낮춘 것이니까.

가격 3,090만 원(1.6 TDI) 3,390만 원(2.0 TDI)
문의 폭스바겐 코리아(www.volkswagen.co.kr)



토요타자동차,

제주도에서 일반인 대상 프리우스 PHV 시승 이벤트 실시

한국 토요타자동차와 GS칼텍스가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특별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양사는 8월 20일부터 10월 21일 두 달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72명에게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응모 기간은 9월 18일까지다. GS칼텍스의 Kixx 회원이라면 누구나 Kixx 사이트에 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문의 한국 토요타자동차(www.toyota.co.kr) Kixx(www.kixx.co.kr)



GM 쉐보레 2013년형 올란도 출시!

한국 GM이 다양한 편의 사양으로 무장하고 신규 컬러를 적용한 2013년형 올란도를 출시했다. 2013년형 올란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강화된 편의 및 안전 사양. 운전석 6-way 전동 조절 시트를 장착해 스위치 조작만으로 운전자 체형에 맞는 시트 위치 조절이 가능하고, 공기압 모니터링, 보조 제동, 크루즈 컨트롤, 커튼 에어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안전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 정도면 국내 패밀리 밴 시장에 명함은 내밀 수 있지 않나?

가격 2,210만 원(LS 모델) 2,429만 원(LT 모델)
문의 쉐보레(www.chevrolet.co.kr)



2013년 피아트 한국 시장 출범 계획 발표

피아트-크라이슬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 본사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 피아트의 한국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1월에 피아트의 대표 모델인 친퀘첸토(500), 친퀘첸토C(500C), 프리몬트, 세 개의 모델을 먼저 소개하며, 크라이슬러가 피아트의 공식 수입을 맡고 국내 시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신선하고 유쾌한 디자인은 물론,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친환경 이미지까지 어필하고 있는 피아트가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과연 큰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문의 크라이슬러 코리아(www.chrysler.co.kr)



닛산 큐브 론칭 1주년 기념 특별 프로모션 진행

한국 닛산은 큐브의 론칭 1주년을 기념해 오늘 8월 31일까지 큐브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닛산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해 큐브 1.8 SL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등(취급수수료 별도)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닛산의 다양한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행사를 진행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비치볼도 제공한다. 그 전 이벤트와 비교할 때 닛산 큐브 돌잔치 치고는 인심이 아박 하지만 워 큐브 구매 의사가 있다면 말리진 않겠다.

문의 닛산 코리아(www.nissan.co.kr)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이다!

▶ **응모 기간:** 2012. 8. 22 ~ 2012. 9. 18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튜닝 시공 (전면 시공, 측·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번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걸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OTOR
EVENT

제17회 MAXIM 무료 튜닝 당첨 독자는?

MAXIM을 정기구독한 지 어언 1년이 되어가는 MAXIM 독자요. 매월 말, 우체통에 MAXIMI이 꽂혀있는 걸 볼 때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소. 평소 궁금했던 분야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MAXIM만의 문체로 풀어주시니 항상 재밌게 보고 있대요. 그런데 김희성 에디터는 남친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속 시원히 말 해주시오! (미모와 착한 몸매의 소유자 김희성 척오!) 미안, 빨소리가 길었소.. 이번 달 새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운전할 때마다 내리쬐는 햇볕이 거슬러 당최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없소. 그러니 어서 내 차에 튜닝을 달라주세요. 이번 휴가에는 튜닝을 바르고 바닷가에 놀러 갈 생각이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요! 만약 날 당첨시켜준다면 MAXIM에 선물을 하나 하겠소. 전 직원에게 송금, 환전, 환율우대 서비스를 역마진 직전까지 감수하며 해주셨단 뜻이요. (물론 김희성님은 역마진, 그 이상도 가능하요.) 어쨌거나 당첨 연락 기다리고 있겠소. 수고들 하시요!



슬라카드 이벤트 당첨자 튜닝 후기 보기



거두절미하고 슬라카드 이벤트에 당첨된 것을 축하드린다. MAXIM 독자님, 그것도 정기 구독자님께서 여름 휴가동안 쪽방 언니들을 후킹하려 해번 출격 대기 중이라는데, 이것 이벤트 당첨 한 번 못 시켜준다면 그게 MAXIM의 올바른 자세란 말인가? 바다로 가라. 용자여, 씨알도 안 먹힐 유머 드립과 감게 물든 차창 사이로 날리는 윈크만 자제한다던 덤디 더운 이번 여름, 당신에게 승산이 있다. 건투를 비네. 용자여!

STYLE

조상님께 바쳐도 부끄럽지 않을 시계

조상님, 저승에서 품나는 시계 차시고 요단강 로데오거리 활보하시길.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운정 ASSISTANT 손안나, 이영환

COOPERATIONS 루미녹스(02-757-9866), 미셀 애블랑(080-3284-1300),

자스페로(1688-8907), 세이코(02-6002-3827), 제플린(02-3284-1300),

브루노 쉐르, 잉거솔(02-3397-7105), 헬다이버(1644-3885)



1. 검정 가죽 스트랩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미셀 애블랑 953,000원**
2.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흰색 시계는 피부가 하얗고 곱상한 꽃미남의 필수품. **자스페로 465,000원**
3. 사용자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작동하는 똑똑한 녀석. **세이코 프리미어 1,190,000원**
4. 미국 해병대원의 스테다셀러.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겠지? **루미녹스 590,000원**



5.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오토메틱 시계를 맛보자. **제플린 by 갤러리아클락 50만 원대**

6. 보석이 박혀야 고급스럽다고 믿는 형님들을 위한 시계. **잉거솔 561,600원**

7. 독일 시계 메카인 글라쉬테 지방에서 최고의 안정성을 인증받은 녀석. **브루노 힌트 954,000원**

8. 방수에 강하다. 이 녀석을 차고 잠수한다면 비닷속 깊이 있는 전복도 딸 수 있을 정도. **헬다이버 325,000원**

ALL NIGHT LONG

밤을 정복하는 남자가 진짜 남자.
여자들은 피부든 간에 말이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최현아 MAKE UP 고영은 HAIR 이도우
DESIGN 신숙희 ASSISTANT 이영환, 손안나
COOPERATIONS 랩시리즈(02-3440-2774),
컬비타(02-3014-2997), 싸이닉(02-6002-3824),
스위스킨(1588-3593), 에스앤(1588-8736),
앤디스(031-838-3967),
오리진스(02-3440-2885),
게스 언더웨어(02-514-0693)

1 랩시리즈 맥스 LS 오버나이트 리뉴얼 세럼

에디터 평가 ★★★★★

마데카솔을 바른 줄 알았다. 얼마 전 얼굴에 난 피지를 짜다가 생긴 상처에 며칠 만에 새살이 돋았다. 여기에 아몬드 씨앗 추출물이 닥터캡슐처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니, 얼굴에 방탄조끼를 입은 듯 총알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0mL 가격 96,000원

2 멜비타 넥타 나이트 크림

에디터 평가 ★★★

구성 성분 중 99.37%가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예민한 피부에도 부작용이 적다. 피부 노화 방
지에 좋다는 아르간 열매가 주성분으로 들어 있
니,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푸그링 할아버지
로 살아갈 수 있는 30대 수컷에게 적극 추천한다.
50mL 가격 75,000원

5 스위트킨 바이올로지컬 퍼멘토 크림

에디터 평가 ★★★

발효 과정에서 분자 크기가 작아진 효소는 '살아
움직여' 피부에 효율적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피부가 탄력을 잃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이 녀석
을 바르며 외치자. "효소 이 자식, 살아 있네!"
50mL 가격 42,000원

3 앤디스 오스뮴 포맨 멀티 비타민 아쿠아젤

에디터 평가 ★★★★★

영국에서 최단 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운 녀석.
남성의 고질적인 과다 피지를 확 줄여주어 모공
확장을 예방한다. 게다가 주름 개선에 다리미보다
탁월하다는 레티놀이 듬뿍 들어 있으니, 학창 시
절부터 신분증 검사가 필요 없던 결눈은이 수컷이
라면 구매를 고려해볼 것.
120mL 가격 52,000원

6 싸이닉 모로코 가솔 포어-다운 마스크

에디터 평가 ★★★

도자기 피부녀 사이에서 대유행이라는 모로코 가
솔 제품이다. 모로코 가솔은 모로코 아틀라스 산
맥에서만 채취되는 신비의 천연 찰흙 광물로 1g당
흡착력이 무려 숯의 4배다. 피지, 각질, 블랙 헤드
를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릴 기세!
100g 가격 18,000원

4 오리진스 드링크 업 인텐시브 오버나잇 마스크

에디터 평가 ★★★

끈적한 크림 타입으로, 얇게 펴 바르고 자고 일어
났더니 얼굴이 심하게 젖어 있었다. 식은땀을
출린 줄 알았는데 아보카도의 비타민 E와 단백질
성분이 피부 방어벽을 형성해서 그렇단다. 건성
피부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다음 날 배개가
젖을 만큼 촉촉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100mL 가격 40,000원

7 에스엔 티 크림

에디터 평가 ★★★

황우석 박사도 감탄할 주목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 있다. 이 주목나무라는 녀석은 아메리카 인
디언들이 염증 치료제로 오랜 세월 사용할 만큼
피부 트러블에 그렇게 잘 듣는단다. 얼굴이 비포
장도로처럼 뒤집힌 곰보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있을까.
50mL 가격 25,000원



STYLE NEWS

자스페로(ZASPERO) PERFETTO 커플 시계로 백일 선물 어때?

독특한 색상과 섬세한 디자인으로 인기몰이 중인 자스페로에서 퍼페토 라인의 고급스러운 블랙 골드 워치 커플 시계 MG201-01, MG201-71 모델을 선보인다. 48피스 인체적인 도트와 역회전 방지 베젤, 10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한 크로노그래프를 적용해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 또 시계판 뒷면은 무브먼트를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설계해 품질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디자인에 애지까지 더했다. 여친에게 뭔가 생색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선물이 필요하다면 주목하자. 가격 780,000원(남성용), 450,000원(여성용)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ALBA Premium AU5018X, 프리미엄의 진수를 보이다

ALBA에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디테일이 돋보이는 크로노그래프 워치 AU5018X를 선보인다. 은은한 로즈 골드 색상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커팅 한 핸즈와 장식적인 베젤은 품격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 또 고급 사양인 크로노그래프는 버튼조차 곡선의 케이스와 일체감을 이루게 제작하고 케이스 측면을 음악 처리해 깨알 같은 고급스러움을 확보했다. AU5018X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기능과 품질, 럭셔리한 디자인까지 갖춘 워치.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는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다!
가격 490,000원 문의 삼성시계 (02-511-3182, www.albawatch.co.kr)



늦여름의 더위까지 잡아줄 헬다이버(Hell Diver) SB2C-3001M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시계가 헬다이버를 통해 출시되었다. 실버 메탈에 블루 코팅 글라스를 가미한 디자인은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얼음 화재를 먹는 듯한 시원함과 청량함을 준다. 또 멀티 용두는 기존 돌리는 용두와 달리 손잡이를 당겨 여는 방식으로 독특한 개성이 느껴지며 케이스 오른쪽 측면에 로고를 각인해 강인하고 스포티한 멋을 추구했다. 출시 이벤트로 시계 구입 고객 전원에게 가죽 밴드를 증정하고 있다. 가격 299,000원
문의 에이맨인터내셔널(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스텔스기 계기판인가?

루미녹스 9082.BO.LE SR-71 Blackbird 라틴어로 '밝은 밤'을 뜻하는 스위스 아웃도어 워치 브랜드 루미녹스에서 그 이름만큼이나 맑고 밝은 가시성을 자랑하는 신제품 9082.BO.LE 모델을 출시했다. 전투기의 계기판을 모티브로 제작해 블랙 금속 재질의 시원함과 도화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야간 비행에서도 적합할 만큼 시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00m 방수 기능은 물론 크로노그래프, 발광 테크놀로지 등 MAXIM에서 소개한 루미녹스의 많은 기술을 기본으로 담았다. 전 세계 단 500개 한정판이니 고품질에 높은 가치를 지닌 시계를 찾는다면 제격!
가격 3,350,000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luminowatch.co.kr)



남보다 일찍 준비하는 가을, 잉거솔(INGERSOLL) 더글라스 모델 출시

잉거솔 더글라스(Douglas-IN8012WH) 워치가 가을을 담아 출시되었다. 크림색 컬러의 가죽 밴드와 로마체 문자판이 감미롭고, 퍼페추얼 캘린더를 문자판에 넣어 세련된 감성을 표현했다. 달과 요일까지 표시하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보며 '한 살을 또 쳐먹고 첫사랑은 결혼하고 그러나 내 인생은 이따위인데 시간만 잘 가네' 하고 한탄해보자. 아, 당신이 군인이라면, 시간 가는 것보다 좋은 일은 또 없겠지? 하여튼 아왕 한탄할 거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멋진 시계와 함께하자. (벌써 가을 타나봐... 썬백)
문의 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샤빌 3D 볼륨 브라로 가슴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없는 가슴은 만들어주고 있는 가슴은 더욱 뽐낼 수 있게 해줄 여친 선물용 아이템을 소개한다. 라제리 브랜드 샤빌에서 출시한 3D 볼륨 브라가 바로 그것. 매력적인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춘 샤빌 3D 볼륨 브라는 여자의 가슴을 섹시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다. 또 가슴 전체를 입체적으로 받쳐줘 안정감 있게 몸에 핏된다. 여친에게 뽐낼 수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거다. 제품은 전국 트라이 전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쌍방울(02-3485-6130~1, www.sbw.co.kr)



아이상현 / 김기범 109th 2012. 07



아드리안 팔리키 / 유카스 등호 108th 2012. 06



MAXIM EDITOR / 벤 헨더슨 107th 2012. 05



말렛 이몽 106th 2012. 04



나인뮤지스 세라 / 다이니의 두오 105th 2012. 03



에비 앨리엇 / 이철민 104th 2012. 02



MAXIM
과월호
충알 배송!
(충알을 드리진 않아요)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풀질되기 전에 어서 정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풀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말린 아커만 / 앤더슨 실바 110th 2012. 08

麥心

쓰잘데기 없는
맥락의
심층분석 만화



대략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무렵에
예쁜 삼각 스판 유니폼이 대거 등장.

여자육상의 인기 상승을 위해 선수들의 몸매를 팔아먹는
상술이라는 비판도 있다.



스포츠 텀블러
₩5000



競泳水着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3개월 정기 구독	6개월 정기 구독	12개월 정기 구독	24개월 정기 구독	36개월 정기 구독	48개월 정기 구독
정가 33,600원 ↓ 3천 원 할인 1000씩 적립	정가 67,200원 ↓ 7천 원 할인 2000씩 적립	정가 134,400원 ↓ 1만 5천 원 할인 4000씩 적립	정가 201,600원 ↓ 3만 원 할인 6000씩 적립	정가 268,800원 ↓ 5만 원 할인 8000씩 적립	
정가 16,800원	할인가 30,600원	할인가 60,200원	할인가 119,400원	할인가 171,600원	할인가 218,800원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딱=1원)



SHOOTING LIKE ARIANNY

FREESTYLE
Futsal

프리스타일 풋살

축빠들은 좋겠다. 올림픽 축구 동메달의 감동도 모자라 인기 축구 게임 <프리스타일 풋볼>의 업그레이드 버전 <프리스타일 풋살>의 출시 소식이 화제다. 심지어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모델로 기용됐다는 소식은, 축빠가 아니라도 심장 RPM이 미친듯이 솟구치게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섹시 미녀와 공놀이라니, 생각만 해도 흥분되잖아?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민 FILM 송종민

DESIGN 서윤정 ASSISTANTS 손안나, 조종재

COOPERATION S 샐루(1588-7667), 펄벨(02-919-1671), 루마(070-7012-0888), 리빅(080-3443-7321), 아즈나브르, 제이티아라(02-508-6033), 팔리샵(02-744-3204)

하의 헤드
축구화 험멜

남자)
유니폼 험멜
축구화 푸마





브라톱 헤드
신발 할리샵

**UFC 옥타곤 걸로 활동한 지 벌써 6년이
나 됐다. 이 일이 그렇게 좋나?**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 언젠가는 최고의 라운드 걸이 될 거다.

**그래도 피땀이 되어 쓰러지는 선수들을 보면 무
섭거나 징그러운 것도 같은데...**

처음엔 '대체 UFC가 뭐기에 이렇게 끔찍한 걸
하겠다고 나서는 걸까' 하며 무서워했다. 하지만
요즘은 경기를 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려!
잡아! 날려버려!"라고 외치고 있다니까?

**또 다른 인기 UFC 옥타곤 걸인 브리트니 팔머랑
은 친한가?**

처음엔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다. 캐릭터가 달라 서로 부
딤힐 일이 없으니까. 남자들마다 취향도 다 다
르고...(웃음) 난 브리트니 같은 금발 미녀 타입
은 아니잖아?

**자, 까놓고 말해보자. 브리트니와 비교해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은?**

내가 좀 더 이국적인 매력이 있지!

UFC 말고 좋아하는 스포츠가 또 있나?

축구. 사실 근육질의 마초남보다는 날씬한 남자
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키도 크고 날씬하
고 몸도 좋고 섹시해서 죄다 내 스타일이다.

**그리고보니 이번에 <프리스타일 풋살>의 모델로
간택됐다. 예쁘고 섹시해서 모델로 낙점된 줄만
알았는데 진짜로 공놀이를 좋아하다니!**

(웃음)사실 미국에서 축구는 야구, 농구만큼 인
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프리스
타일 풋살>의 광고 모델이 된 이상 더욱 더 애정
을 갖고 지켜볼 거다. 아,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도 한국팀 경기 챙겨보며 응원했다!

<프리스타일 풋살>은 해봤나?

물론이다. 온라인 게임은 처음 해봤는데 족석에
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한다는 게 신기하
기도 하고 긴장도 됐다. 내가 못하면 팀이 질 수
도 있으니까.

**당신이 게임 속 캐릭터로도 나온다고 들었다. 캐
릭터는 마음에 드나?**

얼마 전에 캐릭터 이미지를 봤다. 얼굴이나 의상
이 무척 마음에 든대! 근데 볼륨감이 실제 나보
다 좀 부족한 것 같다. 아직 수정 단계라니 볼륨
감을 좀 키워달라고 요청할 거다.(웃음)

파란색 뱅글 아즈나브르
주황색 뱅글 제이티아라

“
솔직히 내가 좀
이국적인 매력이 있지!
”

당신의 캐릭터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놀 수 있다
니... 수많은 한국 남자들이 <프리스타일 풋살>
즐거게 될 것 같다.

마침 어제 게임 속 캐릭터에 들어갈 음성 녹음
을 끝마쳤다. 어떻게 녹음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스크립트가 많아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으니 내
캐릭터를 예쁘게 봐주고 게임도 재미있게 즐겼
으면 좋겠다.

이상형이 궁금하다.

어렸을 땐 나쁜 남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한번
크게 당하고 나선 취향이 바뀌었다. 요즘은 나를
부드럽게 대해주는 썬플한 남자가 좋다.

정찬성, 김동현 선수는 남자친구감으로 어떤가?

끝내주는 파이터들이지. 외국인 파이터라 시차
적응도 힘들었을 텐데 멀쩡하게 경기를 하는 모
습을 보면 진짜 상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파이터 말고 한국 남자는 어때?

한국 남자는 어쩐지 사랑스럽고 귀엽다.(웃음)

**MAXIM KOREA에서는 매년 MISS MAXIM을
뽑는 모델 콘테스트를 연다. 프로 모델로서 당신
이 심사 위원이 된다면 어떤 지원자에게 점수를
많이 줄 건가?**

MAXIM 모델이라면 항상 자신감 충만하고 섹시
하고 활기찬 여성이어야 할 것 같다. 벗어야 할
땀 화끈하게 벗으란 말이다!

술은 잘 마시나? 혹시 소주도 마셔봤나?

물론. 갈비에 한잔 하나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 얼마나 마셔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MAXIM>, <FHM>, <PLAYBOY>와 모두 화보
를 찍어봤다. 솔직히 어디가 가장 괜찮던가?**

<FHM>과 <PLAYBOY> 화보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때 <MAXIM>을 보기 시작
한 뒤로 줄곧 'MAXIM' 화보를 꼭 찍어보고 싶
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는 꿈을 이룬 셈이지!
그래서 <MAXIM>이 나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
다. MAXIM 미국판에 이어 한국판 커버도 두 번
이나 장식하게 되다니. 영광이다!

**고맙다! 다음에 한국에 놀러 올 때도 우리한테 연
락할 거지?**

물론이지! 다른 일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 그때 MAXIM KOREA에서 또 나
를 불러준다면 어떤 이벤트라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팬 사인회라도 열까?(웃음) 🍷





아리아니 셀레스티

태어난 곳: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생일: 11월 12일

데뷔: 2006년 UFC 옥타곤 길

취미: 음악 감상, 노래, 운동

좋아하는 음식:

초콜릿, 초밥, 생선류

싫어하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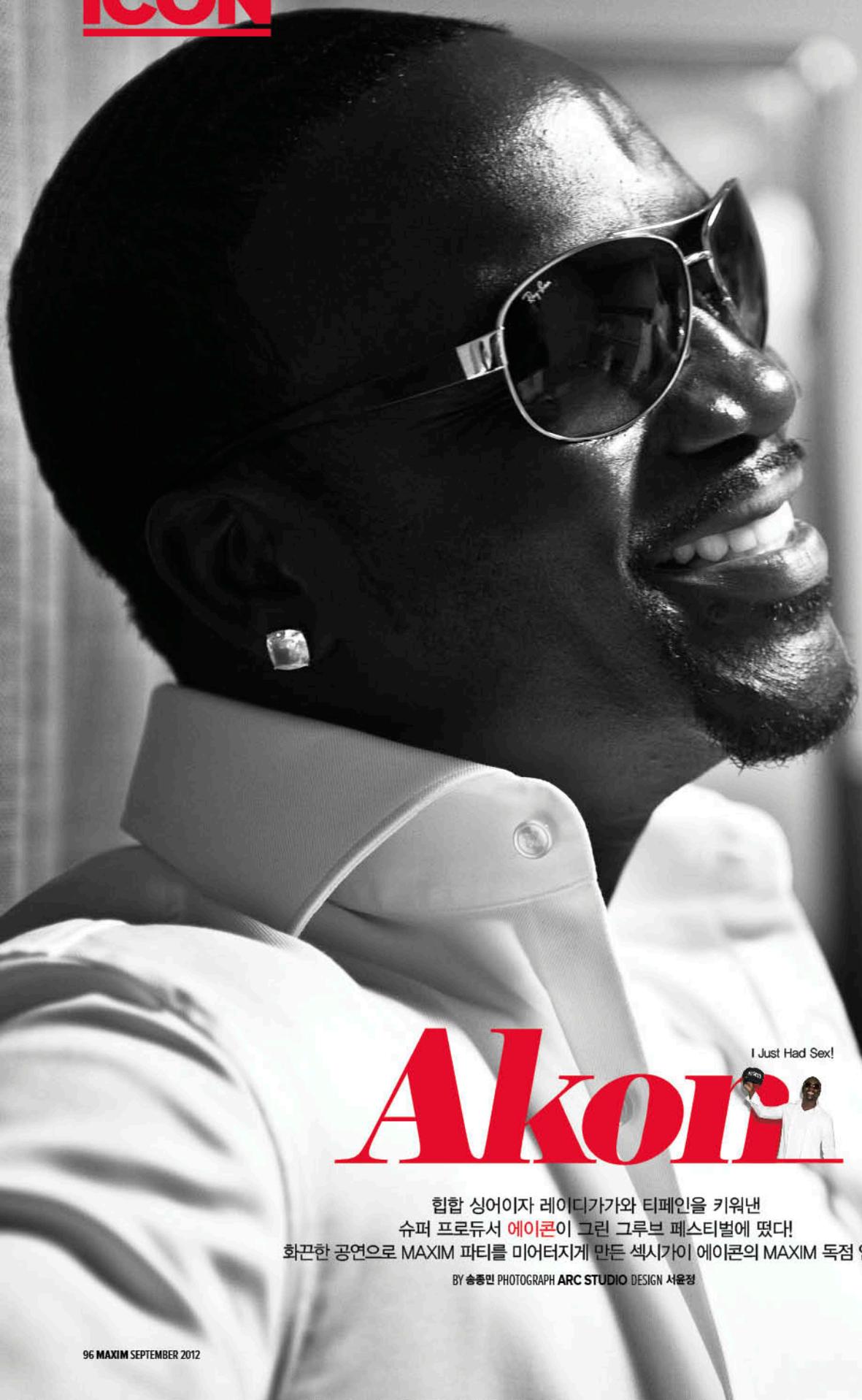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

GO TO
MAXIM
iPAD
마공개컷



운동화 리복

ICON



Akon

I Just Had Sex!



힙합 싱어이자 레이디가가와 티페인을 키워낸
슈퍼 프로듀서 **에이콘**이 그린 그루브 페스티벌에 뒀다!
화끈한 공연으로 MAXIM 파티를 미어터지게 만든 섹시가이 에이콘의 MAXIM 독점 인터뷰!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MAXIM과 이미 인연이 있다고 들었다.

미국 MAXIM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한국판 MAXIM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다.

당신은 월드 스타지만 한국에서는 SNL의 *방금 섹스한 놈*으로 더 유명하다. 애초에 누구 아이디어였나?

코미디 작업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다. SNL의 앤디 샘버그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친구다. 론리 아일랜드가 티페인과 'I'm on a Boat'를 만든 것을 보고 나도 한 번 출연하면 재미있겠는데 싶었다. 원래 이 노래의 뮤직 비디오 콘셉트는 내 노래인 'I'm So Paid'에서 따온 거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깔깔대며 웃을 수 있는 노래를 원했다. 그런 면에서 'I Just Had Sex'는 딱이다. 누구나 첫 경험은 있으니까. 섹스를 처음 해본 남자의 기쁨과 희열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SNL의 핫 코너인 디지털 단편 코너에서 론리 아일랜드와 같이 발표한 곡. 에이콘이 해맑은 표정으로 방금 해봤다고 온 세상에 소리치는 내용이다.*

'I Just Had Sex(나 방금 섹스했어!)'의 가사는 존나 웃기다. 당신의 아이디어인가?

모든 파트에 내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첫 경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해줄 충고가 있다면?

그런 거 없다. 그냥 해라! 지금 아니면 못할지도 모른다! 저스트 두 잇!

섹스할 때 틀어놓으면 좋을 노래 좀 추천해달라. 당신 경험이 많을 거 아냐?

내 노래 중에 섹스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좋은 게 많다. 'I Wanna Love You'란 노래도 있다. 당장 너랑 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물론 'I Just Had Sex'도 있고, 그리고 앨범엔 수록되지 않은 곡 중에도 좋은 게 많다.

얼마나 지저분하기에 앨범에 못 실은 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웃음) 내 음반은 기본적으로 전 연령이 들을 수 있는 등급이다. 그래서 일부 노래는 음반에 실을 수 없다. 물론 음반에 못 실은 노래들은 인터넷이나 믹스 테이프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그런 노래들은 어른들을 즐겁게 하려고 만든 건데, 쉽게 말하면 공중파를 탈 수 없는 노래들이지.(웃음) 그래서 클린 버전을 아예 따로 만들기도 한다. Fuck을 Love로 바꾼다거나...

왜 모든 노래 앞부분에 '에이콘(Akon)'이라고 본인 이름을 넣는 건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다. JYP라고.

일종의 브랜딩이다. 내가 프로듀싱하거나 직접 곡을 쓰거나 녹음한, 하예튼 내가 관계한 모든 노래 앞에

'에이콘'이나 *콘빅'이라는 이름을 넣는다. 가끔 '콘빅'이란 내 이름도장을 찍기에 너무 착한 곡들도 있는데, 도저히 내 이름을 못 넣겠더라(웃음). 그런 경우 말고는 다 이름표를 붙인다.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 '에이콘'이나 '콘빅'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내가 만든 음악이라는 걸 알 테니까, 한마디로 브랜드 홍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내 음악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주고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콘빅(Konvict): 그가 2005년에 만든 음반 레이블 이름*

어젯밤에 세네갈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한 걸 알고 있나? 우리가 이겼다.

장난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세네갈 어디 대학교 축구부랑 한 거겠지.

**인터뷰가 있기 전 날인 7월 20일 한국 올림픽 대표팀과 세네갈의 마지막 평가전이 있었다.*

무슨 소리인가! 국가대표끼리 붙은 거라고, 우리가 3:0으로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부터 한국인 할게. (웃음)

축구 좋아하니?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다. 아프리카 축구팀 중 가장 좋아하는 건 코트디부아르다. 세네갈은 잘할 땐 잘하는데, 못할 때도 있다. 가나는 늘 강팀이고, 나이지리아도 잘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다. 사실 가장 좋아했던 팀은 첼시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축구 영웅 드로그바가 첼시에 없으니 다른 팀으로 옮겨타려고 한다. 사실 러시아엔 어디건 그가 가는 팀을 무조건 응원할 거다. 그래서 난 이제 아시아 축구팀의 팬이 되려고 한다. 드로그바가 지금 중국에서 뛰고 있으니까.

세네갈 출신인 당신과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드로그바에겐 아프리카 출신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국민들에게 드록신으로 불리고 있는 그의 위상에 질투가 나거나 경쟁심을 느끼진 않나?

드로그바는 굉장한 인물이다. 하지만 질투라니, 그는 스포츠맨이고 나는 가수다.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지.

좋아, 그럼 누가 더 잘 생겼나?

당연히 나지.(웃음) 똑같은 질문을 드로그바에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한데?

원더걸스와 작업했는데 뱀바 중에서 누가 가장 당신 스타일인가?

글쎄? 신중히 골라야 할 것 같은데... 얼굴, 몸매 다 꼼꼼히 따져봐야지. 빨리 원더걸스를 여기에 불러와라. 다시 제대로 훑어봐야겠다.(웃음)

원더걸스와 작업은 어땠나?

아주 재미있었다.

어떤 재미를 말하나? 원더걸스와 함께 미국식 질펀한 파티를 즐기기도 했나?

푸하했! 그녀들은 파티를 그리 즐기는 타입이 아니다. 절제력 있는 친구들이거든. 그런 엄격한 절제력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남자 가수들은 노래하고 공연한 다음 파티를 즐겨도 괜찮지만 여자 가수들은 다르다. 공연 후에 파티장을 들락거리기보다는 대개 집에 가는 쪽을 택한다. 지나치게 파티 출입이 잦은 여자 아티스트를 보는 대중의 시선이 그리 곱진 않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신발 수집광이라고 들었다.

한때 그랬지. 예전에는 한 3,500족 이상의 신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했다. 지금은 세 가지 타입의 신발만 신는다. *아디다스의 Y3, 나이키 에어포스원을 보통 신는데 슈트를 입을 때는 루이비통을 신는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한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심플해진다.

**Y3: 아디다스와 일본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의 콜라보 라인*

그린 그루브 페스티벌에 초대됐다.

아주 기쁘다. 원더걸스와의 합동 공연도 준비했다!

사실 그린데이도 있고, 알 그린도 있고... 하예튼 뭔가 '그린' 한 가수들이 많은데, 당신을 초대할 이유가 궁금하다. 당신의 어떤 면이 그토록 '그린' 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아직 블랙이던데?(웃음) 이 페스티벌의 친환경 콘셉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린 그루브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의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래를 생각해 '그린'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그린 그루브다. 



FIGHT

OF
THE MONTH

최종권
이승우
전투
복합
스포츠



ULTIMATE FIGHT



BEN HENDERSON, STILL UNDISPUTED!

누가 벤 헨더슨의 승리를 모함하는가?

지난 UFC 150에서 현 라이트급 챔피언 벤 헨더슨과 그에게 벨트를 빼앗긴 전 챔피언 프랭키 에드가가 다시 격돌했다. 팽팽한 접전 끝에 경기가 끝났다. 심판은 벨트의 주인이 여전히 벤 헨더슨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말들이 많다. “이건 뭐로 보나 헨더슨이 이긴 경기”라고 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쫓쫓”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아니, 그럼!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억지로 멀쩡한 팔 밖으로 꺾어 부러뜨리지 말고, 왜 그날의 판정이 옳은지, 대체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IMAGE 연합뉴스 DESIGN 신속희

지난 8월 11일, 런던 올림픽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국내 격투기 팬들은 일요일 아침부터 또 TV 앞으로 흘러들려왔다. UFC 150에 한국계 미국인 파이터 벤 헨더슨의 타이틀 방어전이 메인 이벤트로 잡혔기 때문이다.

UFC나 격투기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도 그가 5월호 한국판 MAXIM의 표지를 장식한 일은 기억하겠지? 벤 헨더슨은 지난 2월 당시 라이트급 챔피언인 프랭키 에드가를 이기고 챔피언 벨트를 가져왔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그는 승리 후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UFC 150의 메인 이벤트인 헨더슨과 에드가의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는 헨더슨의 첫 방어전이자, 에드가의 설욕전이였다. 5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현 챔피언과 전 챔피언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결과는 챔피언 헨더슨의 2:1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이었다.

하지만 판정이 발표되자 장내에는 야유가 쏟아졌다. 그뿐 아니라 경기 후 주요 MMA 매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이것은 잘못된 판정이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MMA 미디어로 꼽을 수 있는 셔독과 MMA 파이팅, MMA 위클리리는 이 경기를 ‘49 대 46으로 에드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49 대 46이란 에드가가 네 라운드를 이기고 헨더슨이 한 라운드를 이겼다고 본 것이다.

이 경기의 판정은 과연 잘못된 것이었을까.

두 선수의 타격 수효와 데미지로 보나,

이 경기에서 에드가는 총 70개의 타격을 성공시켰다. 헨더슨은 65개였다. 이 중 거의 의미 없는 미약한 공격을 제외하고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판정한 것은 에드가 66개, 헨더슨 62개다. 몸통과 다리에 적절한 킥과 무릎 공격에서는 에드가의 타격 수치가 앞선다. 에드가는 40개를 성공시켰고 헨더슨은 31개다. 숫자를 두고 보면 에드가의 승리가 당연한 듯 보인다.

두 파이터의 타격 중 머리에 적용한 타격 수를 비교하면, 헨더슨이 34개, 에드가가 30개다. 수치로만 보면 헨더슨이 근소하게 앞선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상당하다. 에드가의 머리 공격 중 상당수는 헨더슨의 상체 움직임과 헤드슬립(타격이 들어올 때 머리를 틀어 펀치를 흘려버리는 고급 방어 기술)에 의해 비껴 나가거나 살짝 엇힌 정도였기 때문이다. 반면, 헨더슨의 머리 공격은 정확하게 들어간 비율이 더 높았다.

이제 채점을 하는 입장이 되어보자. 대부분의 격투 스포츠에서는 아무래도 머리를 노리는 공격에 가치를 더 두는 채점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복부와 다리에 들어간 공격 때문에 완전히 다운되었거나 특별히 심한 데미지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머리에 타격을 많이 적중시키고 더 실질적인 충격을 입힌 쪽이 판정에서 더 유리하다. 아무리 타격 수효가 많아도 그것이 모조리 짧고 간헐하고 가벼운 것이었다면, 그리고 상대의 타격 수는 적어도 한 방 한 방이 묵직했다면 전체적인 평가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수치적으로만 따졌을 때 이 경기에서 머리 공격이 앞선 헨더슨과 타격 수가 많은 에드가의 타격 수효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데미지를 전달한 강타를 성공한 횟수가 많은 쪽은 헨더슨이다.

이 경기에서 에드가의 공격 중, 2라운드에 헨더슨을 다운시킬 때 들어간 펀치가 가장 성공적인 것이었는데 이조차 헨더슨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 있을 때 걸리면서 헨더슨이 넘어진 형태였다. 경기 영상에서 헨더슨은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히 나타난다. 그 외에 에드가가 헨더슨에게 상처를 줄 만한 펀치나 킥을 성공한 것은 많지 않다. 실제로 데미지를 전달한 강타에서 성공한 횟수가 많은 쪽은 헨더슨이다.

반면에 헨더슨은 강력한 보디 니킥을 에드가의 복부에 상당수 적중시켰고, 로킥의 강도도 에드가보다 높았다. 안면에 들어간 펀치도 헨더슨의 것이 더욱

강하게 꽂혔다. 4라운드에는 헨더슨의 라이트잡 두 방이 클린히트가 되어 에드가의 마우스피스가 빠지기도 했고, 5라운드에 헨더슨의 레프트를 먹은 에드가가 자신의 턱을 쥐며 주춤하기도 했다. 그리고 5라운드 말미에 적용한 헨더슨의 하이킥은 에드가의 턱을 흔들었다. 이 경기에서 터진 가장 강렬한 타격은 대부분 헨더슨이 이룬 것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두 선수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에드가의 얼굴에는 상처가 많고 출혈도 있지만, 헨더슨의 얼굴은 대체 이 사람이 5라운드를 똥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깔끔했다.

타격 부분에서 이 경기를 평가한다면, 타격의 수효적인 측면에서는 무승부, 데미지 전달의 측면에서는 헨더슨이 확실한 우위였다. 고로 타격은 헨더슨의 승리다.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 및 서브미션을 놓고 보나,

테이크다운의 부분에서는 에드가가 확실히 앞섰다. 에드가는 6회의 테이크다운 시도 중 2회를 성공시켰다. 헨더슨은 1번 시도도 실패했다.

하지만 테이크다운은 실제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를 스탠딩에서 그라운드로 전환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테이크다운이 큰 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라운드에서의 우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테이크다운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득점이 되기 힘들고 이후의 상황에서 상대를 누르고 파운딩에 성공하거나 서브미션 시도로 이어지거나, 또는 상대의 체력을 쭉쭉 소모시켜야 의미 있는 공격으로 인정받는다.

에드가의 첫 번째 테이크다운은 오히려 헨더슨에게 길로틴 초크의 그립을 잡는 기회를 제공했다. 에드가는 테이크다운을 얻어냈지만 헨더슨에게 서브미션 기회를 되려 내준 셈이다. 굳이 득과 실을 합치자면, 이걸 제로섬이다.

2라운드에 헨더슨이 에드가의 펀치를 맞고 다운을 당한 후 에드가가 상위 포지션을 잡고 서브미션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헨더슨은 이것을 금방 털고 일어났다. 물론 이것은 헨더슨의 확실한 실점 포인트였고, 2라운드를 에드가가 챙겨가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4라운드에 헨더슨은 에드가에게 태클을 허용하고 테이크다운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하위의 헨더슨은 즉각적인 서브미션 시도로 반격한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에드가가 몰려서서 헨더슨은 바닥에 누운 채로 바이시클 킥을 시도해 에드가의 목을 때렸다(이때 아마 에드가의 머리에는 지난 경기에서 헨더슨의 강한 업킥을 맞고 얼굴이 찢어져 피 철철 흘러내린 악몽이 떠올랐을지도). 그리고 나서 에드가가 상위 포지션을 점유하고 한동안 헨더슨을 놀려주는



얼굴이 클어달겠더니...

헨더슨은 강력한 보디 니킥을 에드가의 복부에 상당수 적중시켰다. 강도도 에드가보다 높았다.

데, 이것도 잘 보면 헨더슨에게 그리 불리한 그림은 아니다. 에드가는 테이크다운 이후 상대를 눌러두지도 못했고, 유효한 공격을 적중시키지도 못했으며 힘을 빼지도 못한 그림이었다. 즉 큰 득점으로 인정받기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서 에드가가 헨더슨에게 앞선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타격 부분에서 헨더슨이 거둔 성공을 상쇄할 수 있을까? 아니다. 타격에서 헨더슨이 차지한 우위는 '테이크다운-그라운드-서브미션'에서 에드가가 확보한 우위에 비해 더 실질적이고 확고했다.

전략과 운영 면에서 보나, 헨더슨이 우위라니까

에드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는 좌우 움직임으로 상대에게 유리한 앵글을 주지 않으며 부지런하게 들락날락하며 상대의 거리 감각을 교란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 하도 풍부해서 때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상대의 공격을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여 피하고 나서 에드가는 즉각적인 받아치기로 득점을 올리는 패턴을 구사한다. 그럴싸한 말로 정리하자면 '현란한 회피 기동과 회피 후 카운터'가 에드가의 가장 중요한 밥벌이 수단이다.

이게 다 헤어스타일 때문?

조금 재미있는 해석을 더하자면, 짧게 깎은 에드가의 헤어스타일과 달리 풍성하게 흔들리는 예수님 머리의 헨더슨이 더 큰 데미지를, 더 센 공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있었다. 헨더슨이 머리를 흔들며 주먹을 피한 장면에선 헨더슨의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꼭 맞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복서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이유도 같다. 머리가 긴 선수들은 판정단이 보기에 맞을 때의 인상이 더 강하게 남는다. 그리고 판정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에드가의 특징에 맞서서, 헨더슨은 로키와 스위치 스탠스라는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왔다. 로키는 상대의 좌우 움직임을 견제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다. 상대가 스텝을 좌우로 움직일 때 로키를 차서 중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1, 2라운드에서 에드가는 두 번 넘어지고, 두 번이나 중심을 크게 잃었다. 좌우로 열심히 움직이다가 헨더슨에게 로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가만히 서서 로키를 맞으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는 않는다.

또 헨더슨은 기본적으로 왼손잡이지만 이 경기에서는 자주 오른손잡이 자세를 취했다. 이 때문에 에드가의 거리 감각이 무뎠고 카운터 타이밍을 잡는데 혼란을 겪는다.

심지어 헨더슨의 로키가 자주 내리꽂히니 에드가는 평소 경기 때보다 상대와 더 멀리 떨어져서 싸우게 되는데, 이것은 에드가의 공격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에드가는 다른 상대를 대할 때보다 발한 개 정도 더 물러났는데, 통상적인 교전 거리보다 더 물러나면서 에드가의 펀치는 헨더슨의 머리를 강하게 후려칠 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에드가의 펀치가 적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짝 얹히거나 비껴나간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미묘한 거리 차 때문이다. 당장은 헨더슨의 로키를 덜 맞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그리 효율적이고 강한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헨더슨은 앞서 말한 에드가의 '밥벌이 수단'인 '회피 후 카운터'의 파워를 무력화했다. 더슨의 로키-스위치 스탠스 전략은 그렇기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전략과 운영 면에서 이번 경기를 따져봐도 승자는 헨더슨이다.



어그레션과 챔피언 어드밴티지

절대 벨트의 힘

경기가 박빙일 때는 보통 적극적인(aggressive)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 또 승부 내기가 애매할 때는 챔피언에게 어드밴티지가 주어진다.

이 경기에서 옥타곤의 중앙을 차지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한 쪽은 헨더슨이었다. 에드가는 돌아다니다가 헨더슨의 적극성을 이용해 카운터를 치는 전략을 사용했다. 승부의 결과가 미묘했기에 적극성 우위 판정으로도 헨더슨이 가산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현 챔피언인 헨더슨에게 챔피언 어드밴티지가 주어질 테니, 이 포인트를 감안해도 승기는 헨더슨 쪽에 더 가까웠다.

마이 프레셔스였다코!!!



자, 그럼 라운드별 채점은?

UFC의 판정은 라운드별로 이루어진다. 우세한 선수가 10점을 가져가며 약간 밀린 선수는 9점, 심하게 밀린 선수는 8점, 거의 발린 경우 7점까지 내려간다. 극도로 팽팽했을 땐 10:10의 동점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10:10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10:8 역시 마찬가지다. 10:7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번 챔피언 방어전의 경우 모든 라운드가 근소한 접전이었다. 1라운드는 헨더슨이 확실히 가져갔다. 2라운드는 에드가의 승리, 하지만 3라운드는 헨더슨이 우세다. 4, 5라운드의 판정은 지극히 어렵다. 공격 분량을 기준으로 보면 에드가가 미세하게 우세해 보이며, 실제 데미지의 전달 면에서는 헨더슨이 앞섰다. 타격 중심으로 보면 헨더슨이 조금 낫

고 테이크다운-그라운드-서브미션(합쳐서 그래플링)을 두고 보면 에드가가 앞섰다. 4라운드는 10:10으로 봐도 좋을 상황이다. 에드가는 테이크다운 공격을 성공했고 헨더슨은 두 발의 라이트잡으로 에드가의 마우스피스스를 날렸다. 그 외엔 모든 면에서 극도로 팽팽했다. 5라운드는 보기에 따라 승자가 다를 거다.

종합하면 4라운드까지 39:38로 헨더슨이 이기고 있었고 5라운드를 에드가에게 주면 무승부, 헨더슨이 가져가면 헨더슨 승, 5라운드를 무승부로 판정해도 헨더슨 승리다. 이렇게 라운드별 채점으로도 헨더슨이 이겼거나, 최소 무승부다.

관중과 미디어의 반응이 왜 이러냐고?

경기가 끝나고 헨더슨의 승리가 선언되었을 때 관중석에서는 아우가 쏟아졌다. 이를 두고 "실제로 경기를 본 사람들이 아우를 보냈으니 헨더슨의 승리는 부당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마 반대로 에드가의 승리가 선언되었더라도 관중들은 아우를 보냈을 거다. 그 경기의 내용은 대단한 호각이었고 어떤 판정이 내려졌어도 상당수가 열 받을 상황이었다. 아우가 큰 것은 이번 승패 논란에서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원래 배고픈 놈이 더 크게 우는 거고,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 "내가 미국 MMA 전문 사이트에서 봤는데 에드가가 일방적 승리더라!" 북미권의 주요 MMA 매체가 이 경기를 에드가의 승리로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대단히 일방적이다. 그것도 "49:46이라는 큰 점수차로 에드가가 이겼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기사의 형태는 '라운드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작성한 것'이다. 경기 후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내놓은 기사가 아니라 경기를 보는 중에 즉각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다. 사실 그렇게 보면 에드가의 공격이 많이 적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필자 역시 실시간으로 본 내용만으로는 헨더슨이 질 것 같아 조마조마 했다. 슈퍼액션에서 생중계 해설자로 등장한 '코리안 쯔비' 정찬성 선수 역시 "전 솔직히 헨더슨이 진 줄 알았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경기가 끝나 후 필자는 경기 영상을 미친듯이 돌려가며 검토했다. 3라운드는 특히 더 많이, 장면을 멈춰가며 일일이 확인했다. 에드가의 공격, 특히 안면 펀치는 의외로 허탕이 많았다. 헨더슨이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눈으로 재차 확인하고, 에드가의 공격 중 상당수가 비껴가거나 살짝 엇히고 급소를 강타하지 못했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집요한 반복 재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 수 있었다.



이~겼다, 또~ 이겼다!

겨드랑이도
멋있는 새끼

챔피언 헨더슨은 2번에 걸친 에드가와 경기로 타격과 경기 운영 면에서 크게 성장했을 것이다. 다음 경기가 무척 기대될 수밖에

생중계 해설자로 등장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 역시
 "전 솔직히 헨더슨이 진 줄 알았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표도르와 알롭스키의 경기와 비슷한 상황이다. 실시간으로 언뜻 봐서는 알롭스키의 펀치에 표도르가 계속 정타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표도르가 알롭스키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거의 다 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케이지 안에서, 바로 옆에서 경기를 주시하는 심판 진이나 파이트 영상을 돌려보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경기에서 에드가의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타격'과 '살짝 맞긴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던 타격'을 '진짜 유효타'와 구분해내기 힘들다. 아마 케이지 가까이에서 이를 지켜보며 채점했던 심판 역시 그 점을 정확히 보고 헨더슨의 승리를 선언했을 것이다.

에드가의 승리를 외치던 미디어들도 이제 경기 영상을 다시 분석한 후에, 전에 쓴 기사들을 슬그머니 고치고 싶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론은 말이야

복싱은 고대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8~19세기에 이미 엄연한 경기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UFC를 비롯한 MMA라는 스포츠는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0여 년이 지났다. 경기의 해석과 득점의 가치를 따지는 것, 그리고 채점 방식 등엔 아직 어떤 확고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MMA 심판들의 일관성이 없는 판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UFC와 주류 매체들이 심판진에 대한 불만과 판정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종종 UFC 대표 테이나 화이트도 심판 구리다는 트위터를 직격으로 날리곤 하니 까 말이다. 상황이 이러니 MMA 판정 시비는 끊임 없이 일어난다.

이 경기의 내용이 호각지세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면면을 분석해본 결과 헨더슨의 승리는 자명하다. 심판진의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에드가가 억울해하는 것일 뿐이고 그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자. 우리는 그저 헨더슨의 승리를 즐기며 다음 상대인 네이트 디아즈와의 2차 방어전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힘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 전사는 이미 판정 시비 따위 없는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줄 준비가 돼있을 테니까. 



챔피언 벤 헨더슨은 자신의 한글 문신처럼, 힘과 명예를 갖춘 전사다. 벨트의 주인이 되기 충분하다.

GO TO
MAXIM
iPAD
미공개컷

수정
구두 슈즈원

서연
세계 스와치



24
Brewery
330ml

SEPTEMBER 2012 MAXIM 105

isen Budweiser

서연

생년월일 1992년 1월 23일

나의 매력 포인트

눈웃음

이상형

딱히 정해진 건 없고 느낌이 통하는 남자

주랑

아직 어려서 나도 잘 모른다.

그룹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것
상큼함? 귀여움? 도도함?
수줍음?(웃음) 나는 수줍음이
좀 많은 편이다.
절대 콘셉트가 아니다!

수정, 선경, 서연 그리고 오늘 미처 촬영에
함께하지 못한 멤버인 지희, 수현까지
다 본명을 사용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
이라면 예명이 대세가 아닌가?

선경)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걸그룹이다.(웃음) 어
리고 상큼발랄한 이미지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 자체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서
예명을 안 썼다. 사실 처음엔 각자 생각
해둔 예명이 있었지만 낫부끄러워 말하
줄 순 없다.

'씨니데이즈'라는 그룹명은 무슨 뜻인가?

선경) 우리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맑은 날에 사는 것처럼 힘을 냈으
면 좋겠다는 의미다.

1986년생부터 93년생까지 멤버들의 나
이 차가 꽤 크다. 티아라 멤버들처럼 불
확는 없나?

수정) 나이 많은 언니들의 정신연령이 낮
은 건지 동생들이 높은 건지는 잘 모르
겠지만 서로 잘 지낸다. 동생들이 언니
들에게 장난을 쳐도 잘 받아주는 편이
다. 아이들을 좋아하던 소녀팬 시절 애
기가 잘 통하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공
통점이 많다.

단도직입적으로 92년생 서연 양에게 물
어보자. 언니들이 좀 무섭게 굴 때도 있
지?

서연) 언니들이 무섭게 굴지는 않지만 그
래도 단체 생활을 하는 걸그룹인지라 우
리 내에서도 나름의 위계질서가 있다. 사
위실을 이용할 때 나이순으로 한다면지
자리에 앉을 때 언니들부터 자리를 고른
다든지... 음, 또...

구두 찾아원트
시계 스와치



수정

생년월일: 1988년 7월 3일

나의 매력 포인트

크고 살짝 처진 착한 눈

이상형

가정적이고 착한 남자. 나쁜
남자 스타일은 질색이다. 아,
외모는 진짜 안 본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
김영철, 유세윤 오빠가 좋다!

나의 실제 모습

알고 보면 귀엽대!

그들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것

매력(웃음)
사실 나는 미모 담당이다.

선경

생년월일: 1986년 10월 10일

나의 매력 포인트

보조개

이상형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자상한 남자. 연예인 중에는
다니엘 헤니나 이선균 스타일

주량

맥주는 500cc,
소주는 한 병

그들 내에서 내가 밀고 있는 것
다른 친구들이 다 예쁘기
때문에 나는 '개상'을 받고
있다.



잠깐, 그러면 후임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막 내는 평생 막내 역할만 해야 하잖아.
서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다. 한 달에 한 번 씩 거꾸로 돌리는 건 어떨까 하고.(웃음)

리더인 선경 양이 왕언니 역할을 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멤버는 누군가?
선경 솔직히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인터뷰가 재미 없게 나올 거라는 걸 알지만 진짜로 없다! 다들 착한 아이들이라서...

그럼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를 꼽자면?
선경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정과 서연. 예쁘니까. 멤버들의 나이가 천차만별이라선지 팬층도 다양한 것 같다.

수정 양은 G컵녀로 제대로 화제가 됐다. 이런 식의 관심이 싫지는 않나?
수정 딱히 기분이 나쁘거나 싫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가려지는 것은 조금 아쉽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수정 가슴이 G컵이기 때문에 유난히 화제가 된다. 얼굴이 예쁘든 키가 크든 G컵이든 모두 하나하나의 특징일 뿐인데, G컵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하게 쳐다본다. 가슴 말고 가슴으로 서의 실력을 더 꼼꼼히 봐주면 좋겠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노래 제목이 상당히 일관성 있다. <가져가>, <만지지마>...
선경 사람들이 '명령형' 제목이라고 하더라.(웃음)



선경
목걸이와 팔찌 소와치 비주얼
구두 슈즈원



<가져가>, <만지지마> 중 더 좋아하는 노래는?

서연 어느 하나를 꼽기가 힘들다. 우리 노래니까 두 곡 모두 애착이 크다.

씨니데이즈의 필살기는 뭔가?

선경 가창력. 우리 노래는 우리만이 멋지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흑자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과거를 보는 느낌이라고 하더라.

수정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고 롤모델로 삼는 선배님들이기도 하다. 어떤 신인이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닌 것 같다. 브이걸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 같은 존재다.

런던 올림픽이 한창이었는데 당신들도 새벽에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그랬나?

수정 우리는 다른 그룹처럼 합숙을 하는 게 아니어서...

합숙을 하지 않는 신인 걸그룹이라니 의외다. 그리고 보니 서연 양은 김재범 선수와의 열애설로 한동안 인터넷에서 난리였다.

서연 김재범 선수의 여친으로 추정되는 사진 속 여자가 나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해가 시작됐다. 2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다.

다들 그렇게 시작하더라. 내친 김에 요즘 괜찮다 싶은 남자 아이돌 가수를 없나? 스타들을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니니 마음 놓고 대답해라.

선경 B1A4?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남자 아이들을 보면 '사귀고 싶다'기보다는 '잘한다'며 엄마 미소를 짓게 된다. 우리 막내 노래하는 것만 봐도 "아이고 잘한다"라며 박수를 치곤 하니까.

서연 아이돌보다는 휘성 선배님!

수정 나도 아이들보다 나이가 있는 가수들이 좋다.

가수가 안 됐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수정 일찍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도 점점 사라지더라.(웃음)

서연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하는 걸 좋아해서 배운 적도 있다.

선경 데뷔 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코러스, 가이드 보컬 등 음악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 가수가 아니더라도 음악은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MAXIM과의 촬영은 어땠나? 촬영 소품으로 쓰고 남은 맥주는 다 가져가도 좋다.

모두 그동안 연습하느라 설 새가 없었는데, 화보 콘셉트가 파티라 너무 기뻐! 그리고 "MAXIM 독자님들, 저희 항상 예쁘게 봐주세요. 혹시나 무대에서 실수하더라도 처음이니까 꼭 봐 주세요요!"



서연
원피스 블루메메
구두 슈즈원

선경
구두 슈즈원

수정
구두 와이윈트

AMAZING BATTLE



대한민국에서 가장 승부욕 강한 마초인 ROAD FC 파이터들과, 승부를 겨루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MAXIM 직원들의 한판 대결! 아, 이번 상대는 너무 센 거 아니니?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전은경



ROAD FC 남익철

ROAD FC 육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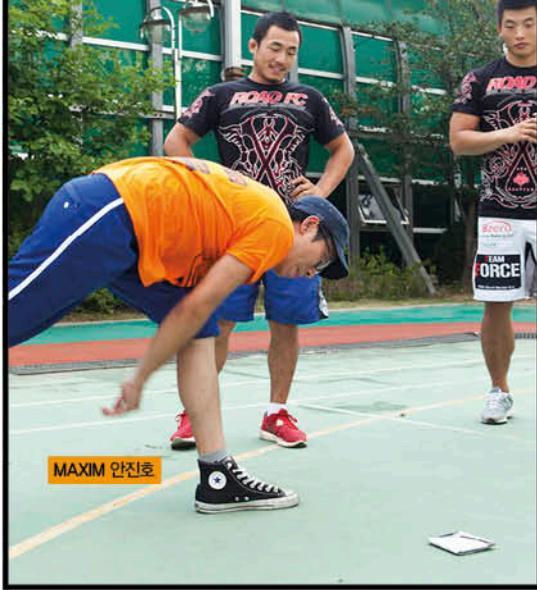
그날의 더위를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일부러 더위가 한풀 꺾일 오후 4시로 약속을 잡았지만, 햇빛이 비야그라를 다량 복용한 존슨처럼 꺾일 기미가 안 보였다. 폭염으로 가축 1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냐며 MAXIM 직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라. 곧 ROAD FC 선수들이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옆에서 웃을 갈아입었다. MAXIM 건물 기둥으로 써도 될 만큼 우람한 팔뚝에 어느새 MAXIM 직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다. “야, 그 새끼는 허반신이 약해, 허벅지를 X나게 까야 해.” 단지 꿀 있을 시합에 관한 얘기를 나눌 뿐인데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흘러넘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 ‘아... 엄마 보고 싶다.’ MAXIM 직원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1 ROUND 딱지 치기

끝판지 좀 넣어.

힘쓰는 게임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잔버리를 굴릴 수 있는 암살한 게임이 필요했다. 기획 회의 때 편 집부 에디터 누군가가 ‘딱지치기’를 제안했다. “힘보다는 기술이 필요한 게임이고, 딱지만 잘 접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는 개불, 이건 완전히 힘의 싸움이었다.



MAXIM 안진호



ROAD FC 길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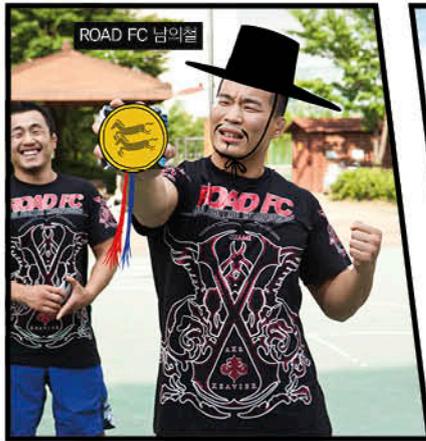


MAXIM 이영환

어이없이
터져버린 딱지

MAXIM 직원들이 영훈을 쫓아 부어 접은 딱지들이 길영복 선수의 손짓에 세 번 연속 맥없이 뒤집혔다. 팔운동이라고는 자위할 때 말고는 하지 않는 MAXIM 직원들의 팔 힘이 너무 약했다. 길영복, 남의철 선수 둘이서만 MAXIM 딱지 다섯 개를 씹어먹었다.

**5:1 딱지는 힘이지!
ROAD FC 勝!**



ROAD FC 남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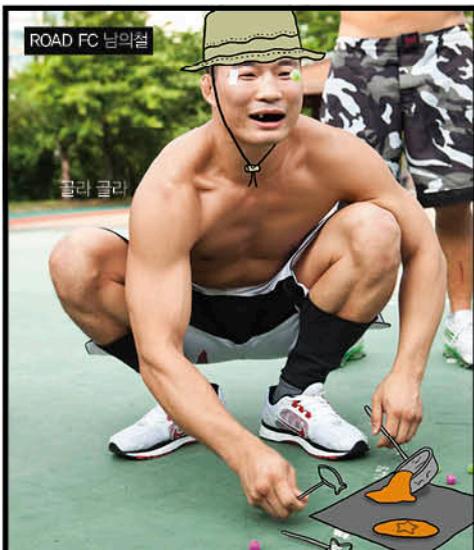


나 싸움꾼이야...

ROAD FC 육진수

2 ROUND 공기놀이

두 번째 게임은 세심한 손기술이 필요한 공기놀이였다. 평소 거친 몸싸움을 하는 ROAD FC 선수들에게 정말 안 어울리기 짝이 없었다. 처음 공기를 내밀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이 자식들 보자보자 하나까...'였다. 공기를 쥐고 연습하는 그들을 보니 옵티머스 프라임이 자갈을 줌의 것 같았다.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걸 깨달았다. 그 솔뽀쟁이 같은 손이 공기가 올라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게다가 손놀림도 아주 정교했다. 하지만 MAXIM 직원들도 만만치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조용재 에디터는 여자보다 어울려 하는 게임이라면 밤새워 연습하는 '유니섹스 게이머'였다. 초등학교 때 공기로 꼬신 여자만 수십 명이라는 말을 입증하듯 다섯 개의 공기알을 공중에서 순식간에 낚아채는 그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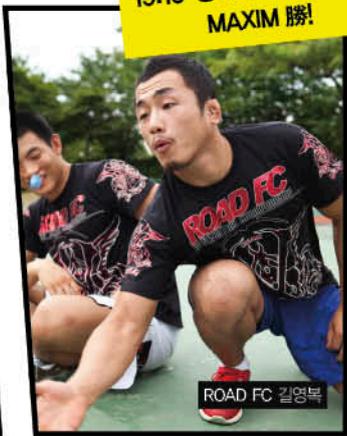


ROAD FC 남의철

플라 플라



MAXIM 조용재



ROAD FC 길영복

**19:13 '공기의 산'이 있었다.
MAXIM 勝!**

AMAZING BATTLE



ROAD FC 김영복

ROAD FC 남익철



ROAD FC 육진수



MAXIM 안진호

3 ROUND 단체 줄넘기

그 조직의 팀워크를 알아보려면 단체 줄넘기 만 한 게임이 없다. 총 세 번 뛰어서 그 개수를 합산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MAXIM이 31개, ROAD FC가 고작 6개를 뛰었다. "야, 잘 좀 하자!"라는 육진수 관장의 한마디에 바짝 기합이 들었는데 두 번째 판에서 ROAD FC 선수들이 무려 53개를 뛰었다. 이것 줄넘기가 대체 뭐라고 양 팀 모두 죽어라 뛰었다. 직열하는 태양 아래서 이 짓을 하고 있자니 프라이팬에 튀겨지는 비엔나소시처럼 온몸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경기가 끝나자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중아리 통증을 호소했다. 잔혹한 줄넘기 대첩이었다.

93:88 그래도 좀 더 젊은 MAXIM 勝!



MAXIM 원정운

조나 흥군

장동건이 줄넘기 할 때도 이렇게 해맸을까?



MAXIM 박한빛누리

MAXIM 안진호



ROAD FC 김석모



ROAD FC 남익철

ROAD FC 김재영



ROAD FC 육진수



ROAD FC 길영복



MAXIM 조용재

4 ROUND 농구 자유투

원래는 철봉에서 허수아비를 할 생각이었으나, 단체 줄넘기로 서 있기조차 힘든 선수들을 위해 급히 종목 전환했다. 그런데 원래 운동신경이 둔한 MAXIM 편집부는 그렇다 쳐도 종합격투기 선수들까지 구기종목에 취약인 줄은 몰랐다. 한 사람에게 세 번의 자유투 기회를 줬는데, 한 골이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ROAD FC 선수 중에서는 15년 만에 농구공을 만져본다는 육진수 관장이 유일하게 한 골을 성공시켰다. 날씨가 더운 데다 지루해진 게임 때문에 모두가 주화입마 상태에 접어들었다.

2:1 가움에 콩 나듯 골 넣은 MAXIM 勝!



MAXIM 전영준

ROAD FC 김석모

5 ROUND 경보

자유투를 한 김에 5:5 길거리 농구를 하자고 제안한 에디터에게 "이 날씨에 우릴 죽일 셈이냐"는 비난이 폭주했다. 다들 지친 탓에 체력 소모가 크지 않은 '경보 릴레이'를 하기로 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에디터의 말에 모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트랙 위에 섰다. 뽕망치를 배턴 삼아 포토그래퍼의 신호에 맞춰 출발했다.

각자의 걸음걸이도 웃기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두가 자빠져 웃었다.



ROAD FC 남익철

MAXIM의 전영준 일러스트레이터는 히드라처럼 막대한 양의 침을 흘리며 뛰어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체가 강한 ROAD FC 勝!



최종 결과는
3:2
MAXIM
勝!



진짜 남자들의 한판 승부!

ROAD FC 009 BEAT DOWN 티켓을 쓴다!

“남자라면 00이지!”

MAXIM과 시시덕거리며 공기놀이를 하던 ROAD FC FIGHTER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남자라면 00이지!"라는 주제에 맞는 기막힌 댓글을 달자.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QR 코드를 스캔하면 응모할 수 있다. 시발, 남자라면 댓글이지!

경기 날짜: 2012년 9월 15일 16시 장소: 차악체육관

댓글
달라 가기



PARTY NIGHT with CYPHERS 미소녀 게임단

게임 좀 할라치면 옆에서 도끼눈을 뜨고 구박해대는 여친, 입만 열면 뭐 사달라고 조르는 여친은 잊어라. 당신 옆에 밀착해서 응원의 키스를 날려주는 미소녀 게임단이 왔다. 그것도 때로!

PHOTOGRAPH JASON 장소 협찬 역삼동 펄리 호텔 DESIGN 서윤정



“
오빠,
더 빨리! 빨리!
”

미소녀 지혜

나이: 20세 키: 162cm

서식지: 서울 압사동

이성에게 자주 듣는 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웃음)

남자를 볼 때: 든든하고 넓은
어깨를 장착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요즘 고민: 다이어트요.



“
졌으니
벗으라고요?
”

미소녀 은율

나이: 22세 키: 169cm

서식지: 서울 서초동

이성에게 자주 듣는 말:

“첫인상이랑 성격이 완전 달라
요.” 제가 차가워 보이나요?

남자를 볼 때:

매너 있는 사람이 좋아요.

요즘 고민: 2012년도 벌써 반 이
상 지나버렸어요. 알차게 시간
을 보낼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내가 이겼으니
이거 빨리 벗...
”

미소녀 소유

나이: 21세 / 키: 170cm

서식지: 서울 삼성동

이성에게 자주 듣는 말: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남자를 볼 때: 팔뚝을 먼저 보게 돼요.

요즘 고민: 하루가 너무 짧아요.

미소녀 보미

나이: 26세 / 키: 163cm

서식지: 18~21°C의 쾌적한 PC방

이성에게 자주 듣는 말:

“재미있고 유쾌해 보여요!”

남자를 볼 때:

플랑플랑한 눈빛을 제일 먼저 봐요.

요즘 고민: 금이 높아지니 점점

사피(사이퍼즈)가 어려워지네요. 영영!

미소녀 게임단, 그녀들의 이상형은?

은율: 루이스요. 멋있어요!

지혜: 다이무시! 참절도 쓸 때 완전 멋있어요.

보미: 역시 최고의 남자는 다이무스조. 뒤탈타가 탐스러워요.

소유: 휴튼! 짐승남이 좋아요!



“ 게임에서 만나면
아는체 하기!
”

보미

은율

소유

시원한 액션 게임 <사이퍼즈>가 '미소녀 게임단'을 탄생시켰다. 8명의 늘씬한 여성 이용자로 구성된 '미소녀 게임단'은 실제로 게임 실력까지 평가하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정예 부대다. 늘씬한 키에 얼굴, 몸매 착하고 거기에 게임 실력까지 갖춘 여성 게이머라니,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키보드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덜컥덜컥 할 정도로 심장이 뛰지 않나? 하지만 그녀들의 예쁜 얼굴에 속지 말 것. 순식간에 그녀들의 매서운 염동파와 후려치기가 당신의 사대기를 시원하게 마사지할 테니까.

아아... 말로만 듣던 미모와 게임 실력을 갖춘 여성을 눈앞에서 만나다니 믿을 수 없군요.

보미: (웃음) 그동안 당신이 꿈꿔온 로망이죠? 저희 지난 6월에 엄청난 경쟁을 뚫고 투표에 게임 실력을 평가하는 오디션까지 거쳐서 선발된 정예부대예요.

은율: 맞아요. 더 의미있는 건, 게임을 즐기는 유저 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셨다는 점이죠! 앞으로 <사이퍼즈>를 통해 직접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에요.

어쩌다 <사이퍼즈>에 빠진 건가요?

소유: 다른 게임보다 확실히 타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예요!

지혜: 원래 게임을 좋아해요. PC방에서 간식 먹고 친구한테 달아놓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게

산은 제가 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하는 게 임을 좋아하는데, <사이퍼즈> 공식전에서 다른 게이머랑 붙다가 너무 압도적으로 질 때는 피가 끓어요. 으으.

보미: 남자들은 제가 게임을 전혀 안 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실상은 부모님이 사주신 컴퓨터로 게임만 하는 여자랍니다. 어찌나 죄송한지요. 공식전 연패 하면 멘붕이 와요.

은율: 캐릭터도 다 멋있어요! 특히 남자 캐릭터들 몸이 정말 예술이에요.(웃음)

타격과 파괴가 난무하는 액션 게임 <사이퍼즈>와 꽃같은 미소녀라, 왠지 그림의 떡인 것만 같아요. 정말 게임을 하면 당신들을 만날 수 있나요?

소유: 그럼요 8월 중에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지역 PC방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요. 사이퍼즈 유저분들 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저희 미소녀 게임단 이랑 대결도 할 수 있어요.

지혜: 직접 못 오시는 분들 섭섭해하실까 봐 온라인 방송도 해요!

미소녀 게임단 이랑 대결을 할 수 있다고요? 당장이라도 쓰러뜨리고 싶네요.

은율: 만만치 않을 걸요.(웃음)

지혜: 맞아요. 저희 지금 백서게 훈련 중이라 손가락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고렙 유저분들이 직접 코치도 해주시는 걸요? 8월 26일에 열리는 '사이퍼즈

PC방 최강전' 결승전에서 거기 올라온 본선 진출팀 이랑 저희 게임단 이랑 이벤트 매치를 하거든요.

보미: 절대 안 봐드립니다.(웃음) 나중에 저희한테 염동파 맞고 울지 마세요.

당신들이 상대 클렌 남자 유저한테 윈크만 한 번 날려도 게임 오버겠네요.

소유: 정말요? 에디터님도 같이 해요! 능력자로만 들어드릴게요.

보미: 파티 초대할게요! 같이 해요!

인터뷰 이제 그만하죠? 저 지금 계정 만들어야 하니까요.

지혜: 아참!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디 기억해주세요! MAXIM 독자 여러분들도 게임 속에서 저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꼭이요! 

사이퍼즈

<단전애포이터> 이후 네오플이 개발하고 서비스 해온 액션 게임으로 벌써 서비스 1주년을 맞았다. <사이퍼즈>는 최고 동시 접속자 수 8만 5천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2011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최우수게임상, 인기게임상 2관왕을 차지해 게이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MAXIM
KOR

맥심 부셔버릴 거야
나들 오늘 다 죽었어

록 밴드 Koxx
보컬 이현송의

MAXIM
사무실 습격기

바깥 기온이 34°C에 육박하던 정도 무렵. 파랑 머리의 거대한 수탉 한 마리가 뜨거운 스팀을 내뿜으며 MAXIM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그리고...

BY 이영란
PHOTOGRAPH ARC STUDIO
FILM 송종민, 아영환 DESIGN 전은경
COOPERATIONS 세파스(goorohd.cafe24.com),
프리버드(www.freebud.co.kr)

MAXIM 사무실 습격 콘셉트는 마음에 드나?

지금까지 없어서 못했다. 사실 멤버들과 있을 때는 돌기를 좀 숨기는 편이다. 나 혼자 너무 캄치면 그림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슈퍼 돌기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느냐”는 오그라드는 질문은 하지 않겠다. 이현송에게 ‘슈퍼스타란?’

(칭박을 가리키며) 지나가는 저 꼬마가 날 알아본다면 그게 슈퍼스타다. 근데 난 슈퍼스타보다 록 스타가 되고 싶다.

웬만한 뮤직 페스티벌에 각스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록 스타치고 너무 성실한 것 아닌가?

밖으로 비춰지지 않을 뿐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치고 있다. 회사에서 커버를 쳐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사고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 사람이라도 죽이나? 자세한 건 비밀이다.

록 밴드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나?

지금 하는 곡이 좀 지겨우면 다른 곡을 또 만들면 된다. 어쨌든 무대에서 노는 건 재미있으니까.

헤드뱅잉 할 때마다 당신의 파랑 머리가 얼굴을 가격하더라. 아프지 않은가?

아프다. 특히 젖은 머리가 얼굴을 때릴 때면 정말 아프다. 그래서 이번엔 전보다 머리를 짧게 쳐버렸다.

‘Koxx’의 의미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리 좀

해달라.

원래는 Cock에 s를 붙여 ‘거시기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앞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수탉들이라고 하고 다닌다. 어찌 됐든 각스면 된 거지 뭐.

영어 가사가 유독 많은 편이다. 예전 ‘코리아나’처럼 아예 글로벌 시장을 염두한 시도인가?

우리가 하는 음악이 영미권에서 건너온 장르이기 때문에 받침이 많은 한글보다 영어가 덜 어색해서 사용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한글 가사도 일부러 발음을 굴리는데, 가끔 “이현송은 발음이 구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지. 절절절

노래 중간에 “쿠웬(Come on!)”이라는 추임새를 계속 넣더라. 뭔가 새로운 추임새는 없나?

따로 개발 중인 추임새는 없다. 그런데 내가 “쿠웬”을 그렇게 많이 하나?

어릴 때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다. 사회에 불만이 많았나?

그런 건 아니었다. 단순히 사운드를 좋아했다. 중학교 때 스쿨 밴드에서 드럼을 쳤는데, 어차피 노래를 안 하니까 가사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원래 전공이 드럼인데, 어쩌다 기타를 치게 됐나?

어머니가 아마추어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타와 친했다. 본격적으로 기타를 시작하게 된 건 노래를 시작하면서다. ‘너바나’에서 드럼을 연주하다 지금은 ‘푸 파이티스’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

고 있는 데이브 그루이 롤모델이다.

‘윈디시티’의 김반장처럼 드럼을 치며 노래를 해볼 생각은 없었나?

생각해봤지만 김반장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 드럼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은 오로지 김 반장뿐이었다. 나중에 프로젝트 앨범으로 한 번쯤 해볼 생각은 있다.

펜더 기타를 주로 사용하던데, 특히 선호하는 기타가 있나?

펜더 기타는 사실 내 것이 아니다. 첫 기타는 깃스 레스폴 주니어였고, 지금은 깃스 SG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있다. 난 깃스를 좋아한다.

연습실이 MAXIM 사육이랑 가깝는데 맛집 좀 공유하자.

맛집 하면 연남동 기사 식당 쪽에 있는 ‘부산 돼지국밥집’이 최고다. 국물 안에서 고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보쌈에다가 밥을 먹는 기분이다. 으흥, 먹고 싶다.

당신이 노래할 때 다리를 배배 꼬는 걸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의욕이 밀려왔다. <구보다> 방광이 먼저 열광하는 음악. Koxx)라는 문구 어떤가? 다음 앨범 카피로 써도 훌륭할 듯하다.

...

끝으로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두 마디는 안돼. 아이상젠 사랑해요. 🍷





노원권컨주름마이 알파겐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마. 인니.



아나 일 좀 하자.



딱 하나 건졌다. 좀 멋진 사진.

**2012 MAXIM
지(산)랄 발광
록 페스티벌**

사무실을 초토화 시킨
각스 이현송의 쇼! 쇼! 쇼!



내 궁둥이로 니 책상을
뒤어줄거야. 쿠웬



Jump to the light!

뭐래? 뭐래?



기타가 해금으로
보이는 매직쇼



쿠웬 쿠웬



말세간 말세다.

어어억... 진우예



FBI WARNING
돌기 노출
양면 영상

MISS OF THE MONTH MAXIM



2012 MISS MAXIM CONTEST
THE 7TH
SEMIFINALIST

임뜰에봄

도도해 보이는 첫인상은 웨이크, 촬영
쉬는 시간마다 콧소리 작렬하는 애교로
촬영장을 화기애매(?)하게 만들어준
임뜰에봄.

촬영 현장
습격하기



코르셋과 팬티 앤스타일



2012 MISS MAXIM CONTEST
THE 8TH
SEMIFINALIST

최현아

아담한 체구와 귀여운 얼굴 뒤에 무심한
듯 시크한 카리스마를 감춘 최현아.
그녀들이 예선 마지막 라운드를
뜨겁게 달군다.

촬영 현장
습격하기



언더웨어 세트 에블린
팔찌 스와치비쥬
팬티 미싱도로시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DESIGN 전윤경 ASSISTANTS 손안나, 조용재
COOPERATIONS 엔스타일(02-3485-6130),
에블린(080-045-0456) 미싱도로시(1544-6101)
스와치비쥬(02-3149-9549), 케이트아이린(02-546-7764)



임플에봄

주요 서식지

일산, 홍대

좋아하는 음식

탕수육, 족발 등 고기는 다 좋다.

취미

요가와 무용. 이래 봐도 현대무용 13년 차라고!

이상형

탐이나 쌤디 같은 남자... 어디 없나?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요가와 무용으로 다듬어진 늘씬한 다리

브래지어 미심도로시





이름이 특이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봄에 태어났다. 부모님께서 뜰에 봄이 왔다는 의미로 지어주신 순 한글 이름이다.

분명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허리가 한줄이다. 비결이 뭔가? 에디터에게도 좀 알려달라!
하루에 거의 한 끼밖에 못 먹는다. 새벽 4시쯤 바에서 일을 마치고 먹는 식사가 전부다. 오후 3시쯤 일어나서 먹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오후 1시)이 당신에게는 이른 아침이나 다름없겠군?

그래서 어제 일도 빼먹고 왔다.(웃음)

처음 만난 남자와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한가?
키스!

남자의 신체 부위 중 어디를 가장 많이 보나?
얼굴 윤곽.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얼굴 윤곽만으로 전체적인 조화가 완성되는 것 같다. 빅뱅의 탑 같은 얼굴형이 그렇게 좋더라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대 단지 쌍꺼풀 있고 인상이 강한 남자를 좋아할 뿐이다.

길을 가다가 헌팅을 꽤 많이 당할 것 같은 스타일이다.

그런 경우가 꽤 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죄송하지만 제 타입은 아니에요"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편이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때도 대놓고 말하니?

먼저 대시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당연히) 성공했다!

역대 MISS MAXIM 참가자 중 문신이 가장 많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하게 됐는데 중독성이 있어서 여러 군데 하게 됐다. 요즘은 '한 군데만 임팩트 있게 할 걸' 하고 후회하고 있다.

몇 군데에 있나? 은밀한 부분에 숨겨둔 문신은 없나?

여섯 군데 정도. 보이는 부분에만 했을 뿐 은밀한 곳엔 하지 않았다.(웃음) 



그리고 보니 당신도 몸에 문신이 있다.
원래부터 몸이 예리고 약해 강해 보이려고 문신을 시작했다. 이거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거대!

문신에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팔뚝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도 해보고 싶지만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웃음)

짧은 머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 부터 오해를 받진 않나?
동성 친구랑 둘이 다니다 보면 "재네 레즈 아냐?"라며 수근대는 소릴 듣기도 한다. 나만 아니면 그만이니까 신경 안 쓴다.

실제 성격은 어떤가?
여자들과 있을 때와 남자들과 있을 때가 좀 다르다. 남자들이랑 있으면 오빠들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털털하게 행동하고 여자들이랑 있으면 여성스러워진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땐 어떤가?
없는 애교를 부리고 좋아한다는 걸 어필한다. 그렇게 여자를 주다 보면 상대가 먼저 대시 하던데?(웃음)

어떤 남자한테 첫눈에 반하는데?
남자답게 날카롭고 강하게 생긴 사람. 남한테는 강해도 나에게겐 약한 남자에게 반한다.

그렇다면 남자의 재력, 외모, 능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잘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는 역시 외모가 아닐까?

처음 만난 남자와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나?
남자의 박력에 달렸다.(웃음)

그리고 보니 여름이 끝나간다. 울머음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올해 바다를 못 갔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 같이 갈 사람?

절대 결승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도전자 가 있다면 말해봐라.
엄상미 씨(웃음). 이유는 굳이 말 하지 않아도 알잖아?





최현아 

취미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연주, 옷 리폼하기

좋아하는 운동
복근 운동(누워서 다리 올리기, 요가 등)

자신 있는 신체 부위
키에 비해서 긴 다리와 치골.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샤워할 때, 물을 좋아해서 샤워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주요 서식지
동네 친구들이 많아 주로 동네(명택)에서
논다.

코르셋과 팬티 에블린





우리 해군의
파워 보트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전쟁 영화에서는 공중전과 육지전에 비해 해전이 크게 다뤄지지 않지만, 삼면이 바다와 접한 이 땅에서 해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싸움이다. 산전수전(山戰水戰)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상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빠센 전투라는 해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우리 해군은 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의 이름을 따 저글링급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고속함을 만들어 냈다.

BY 김대영 DESIGN 전은경 IMAGE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해군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런던 올림픽과 폭염으로 온 나라가 뜨거웠던 지난 8월, 동해의 모항구에서는 우리 해군의 유평하급 유도탄 고속함인 MAXIM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평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가운데, 바다의 레이스 카 '파워 보트'에 견줄 만큼 빠른 항해 속력을 자랑한다. 이날 취재를 위해 승선한 정공모함은 2011년 12월 취역한 함정으로, 실전 배치된 유평하급 유도탄 고속함 가운데 최신에 함정에 속한다.

고속정? 고속함?

대개 해군의 전투함 하면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대형 함정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해군에는 대형 함정 외에도 소형 함정으로 분류되는 고속정과 고속함이 있으며, 500t 미만의 함정을 '정'으로, 그 이상을 '함'으로 표기한다. 고속정은 크기가 작은 만큼 빠른 속력을 우선시하는데, 보통 30~40노트(55~74km/h)는 기본이고 어떤 고속정은 50노트(92km/h) 이상의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100km/h를 가뿐히 뛰어넘는 자동차에 비하면 속도 면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다. 유평하급 유도탄 고속함의 경우는 500t을 초과하면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고속함으로 표기하고 있다.

연근해 작전의 핵심 전력 고속정

고속정은 연안 방어 전력의 핵심 전투함이다. 우리 해군이 고속정에 '뿔'이 꽃히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북한은 호시탐탐 간첩선을 이용해 수많은 간첩을 남쪽으로 내려보냈고, 특히 196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간첩선은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각종 무장과 고성능 엔진을 장착해 화력이 세지고 항해 속도가 빨라진 간첩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은 고속정에 주목하게 되었고, 1972년 국산 고속정 시대가 열리면서 고속정 전력이 급성장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해군의 주력 고속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1978년 건조했다. 현재는 총 70여 척의 참수리급 고속정이 대 간첩 작전, 북방 한계선 작전, 어로 감시, 항만 방어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해군의 주력 고속정인 참수리급 고속정의 모습.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이 경계하는 해군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차기 고속정의 개발

참수리급 고속정의 등장 이후 간첩선의 침투는 거의 사라졌으며, 심지어 지난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는 격전 끝에 북한군 경비정을 대파한 바 있다. 그러나 제2연평해전에서는 북한군과의 교전 과정에서 참수리급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적 함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의 차기 고속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검독수리-A'로 알려진 차기 고속정(PKX) 사업은 2004년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 완료 후 2005년 8월부터 2년 여의 건조 기간을 거쳤으며, 2007년 6월 28일에는 1번함의 진수식이 거행되었다.

불굴의 6용사의 귀환

차기 고속정의 초도함은 지난 2008년 12월, 진해 해군 기지의 취역식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故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 '윤영하함'이라 이름 붙였다. 우리 해군은 여태까지 전투함의 함명으로 도시나 호수 혹은 산봉우리의 이름이나 역사 속 위인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동시대의 인물, 그것도 공을 세운 전사자의 이름을 쓴 것은 윤영하함이 처음이다. 또 윤영하함의 뒤를 이어 나머지 5척의 유도탄 고속함도 전사자의 이름을 따 차례대로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함으로 명명했다. 박동혁함 이후의 함정부터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대간첩 작전 등에서 공을 세운 장병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일발필중의 위력적인 함포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는 40mm 함포와 함께 그동안 해군 전투함 가운데서도 몇 안되는 함정에만 탑재하던 76mm 함포를 장착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고속정은 북한군 경비정에 많은 기관포탄을 명중시켰지만, 위력이 약해 함정을 격침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1,000여 미만의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경비정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는 76mm 함포를 장착하게 된 것이다. 또 함께 장착된 40mm 함포는 분당 최대 600여 발을 쏠 수 있으며, 빠른 발사 속도 덕분에 적 함정 외에 항공기 요격에도 사용된다. 그뿐 아니라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 장착된 두 종류의 함포는 최첨단 전투체계와 결합되어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한다. 취재를 위해 승선한 정공모함의 경우는 사격 훈련에서 76mm 포탄 단 한 발로 대공 표적을 정확하게 요격했다고 한다.



보기만 해도 시원시원한 이 함포는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 장착된 76mm 함포로, 북한군 경비정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다.

강력한 대함 미사일과 스텔스 성능

각종 함포 외에도 유도탄 고속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국산 대함 미사일인 '해성'을 탑재하고 있다. 해성은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최신형 대함 미사일로, 북한군 미사일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미사일에 비해 4배 가까운 사정거리를 자랑한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목표에 다가가는 시스키밍(Sea Skimming) 기능도 갖췄다.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최대한 단순화했으며, 선체 전체에 10° 정도의 경사각을 적용해 강력한 공격력과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한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레이더 상에서 조그만 어선 정도로만 나타난다.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워터제트 형식의 추진 장치를 장착해 최대 40노트의 출력을 낼 수 있어 해상 탐지력이 뛰어나다.



경사설계를 통해 제작된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춰, 레이더 상에서는 겨우 새우잡이 배 정도로 잡힐 뿐이다.

독특한 선형과 워터제트 추진 방식 채용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고속으로 항해할 수 있는 활주형 선형을 채택했으며, 해군 주력 전투함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프로펠러 추진장치가 아닌 워터제트 추진 장치를 채택했다. 워터제트 추진장치는 비행기의 제트엔진과 같이 엔진과 연결된 펌프를 가동해 배 밑바닥에 있는 흡입구로 물을 빨아 들인 뒤, 배 내부에 설치된 관을 거쳐 노즐을 통해 가속된 물을 배 뒤쪽으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프로펠러 추진장치가 40노트 이상으로 고속 항해할 경우, 프로펠러에 기포가 생기며 헛도는 공동현상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프로펠러 자체가 침식되기도 하는 반면, 워터제트 추진 장치는 4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을 내면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프로펠러가 없어 어망 등 연안 장애물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해 중 돌발 상황이 적은 편이며, 워터제트 추진 장치가 함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타 장치 역시 필요 없다.



추진 계통 문제가 모두 보완된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현재 별다른 문제 없이 활발하게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쉽지만은 않았던 실전 배치

하지만 이 워터제트 추진 장치 때문에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험 항해 도중 워터제트 추진 장치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윤활유가 노출되는 등 크고 작은 고장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도함인 운영하급의 경우, 이례적으로 진수 후 실전 배치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2번함인 한상국함은 2010년 고속주행시 갈 지(之)자 항해를 하는 문제를 드러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이탈리아의 오토브레다사에서 운영하급에 탑재하기로 한 76mm 스텔스 함포에 대해 '기술 도움'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었다. 운영하급에 탑재하기로 한 스텔스 함포는 오토브레다사의 76mm 함포를 토대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76mm 스텔스 함포는 운영하급에 장착되지 못했고 그 뒤에 진수된 함정에만 장착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앞서 제기되었던 추진 계통의 문제들은 그나마 모두 보완해, 운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현재 이상 없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



Special Thanks To...

취재에 협조해주신 해군 본부와 제함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공모함 함장님 예하 장병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Naughty



동영상
기분으로
예고편
보기



Dreams Come True, **Ali Cobrin**



당신이 몰랐던 이웃집 꼬맹이가 섹시 핫걸이 되어 나타난다면?
거기다 어릴 적부터 당신에게 처녀를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면?
(아메리칸 파이: 19금 동창회)에서 이 당혹한 섹시걸을 연기한
알리 코브린을 MAXIM이 만났다.

BY 송종민 IMAGE 영화사 하늘 DESIGN 전은경

Ali Cobrin

생년월일: 1989년 8월 8일

실제 18번째 생일

뮤지컬 여름 캠프에 참여
중이었다.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특별한 건 없었다.

트위터

@alicobrin 대부분 내
고양이 사진들이지만.



〈아메리칸 파이 1〉이 개봉됐을 때를 기억하나?

그때 나는 일곱 살이었다.

언제 처음 〈아메리칸 파이〉 시리즈를 봤나?

아홉 살 때였다. 오빠가 친구들이랑 보고 있길래 같이 봤다.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배우들이 정말 웃겼던 건 기억난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 다시 보니 어렸을 때 봤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더라.(웃음) 나중에 촬영장에서 제이슨 빅스(짐 역)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어린 나이에 섹스에 대해 배웠다”라고 말했다.

기존 배우들은 거의 12년을 함께했다.

다. 무리에 끼어드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누가 뒷세를 부렀다든지?
조금 긴장되긴 했다. 이 영화는 오랜 친구들이 다시 모이는 내용인데, 과연 내가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조금 망설여졌다고 할까. 하지만 거짓말처럼 모두 진심으로 나를 환영해주었다. 우리는 촬영장 안에서건 밖에서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메리칸 파이〉 시리즈는 섹시 코미디이니만큼 화끈한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섹시한 장면을 고른다면?

‘오즈(크리스 클라인)’가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서 춤추는 장면 봤나? 뱀이 나갈 정도였다.(웃음)

전편에서 어린 옆집 소녀로 등장한 카라가 이번 영화에서는 훌쩍 성장해 18번째 생일을 맞은 섹시한 성인이 된다. 당신의 실제 어린 시절은 어땠나?

어렸을 때부터 거칠고 기운이 넘치는 아이였다! 항상 무리의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다. 친구들이 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크레이지(crazy)였다. 지금은 조금 순해진 편이다.

〈아메리칸 파이: 19금 동창회〉에 등장하는 남자 배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꼽아달라.

카라에겐 당연히 짐이지! 실제로도 제이슨 빅스는 멋진 남자다. 이상적인 오빠의 느낌이라랄까. 난 그의 영화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도 해서 그

와 함께 연기를 한다는 게 꿈만 같았다. ‘카라’라는 캐릭터를 잡는 데 그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코미디 배우가 분명하다!

당신이 연기하는 카라는 권태기를 맞은 집 부부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존재다. 만일 실제로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있다면, 그에게 연인이나 아내가 있어도 사랑을 쟁취할 용기가 있나?



절대 빼앗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서로 함께할 운명이라면, 지금 말고도 타이밍이 맞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당신을 남자들이 집에 데려다주는 장면이 있다. 무려 당신의 X두까지 노출되던데... 민감한 부분인 건 알지만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

각했다. 세트장에서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고, 제이슨 빅스도 정말 즐겁고 편안하게 대해줘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다. 모두가 정말 ‘프로페셔널’했다.

언제부터 연기자를 꿈꿨나?

아마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는 화가였고, 할아버지의 부모님은 서커스 극단에 계셨다고 한다. 우리 가족 모두 끼가 넘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기와 노래, 춤으로 이어졌다. 시카고의 공연예술학교에서 보낸 학창 시절은 정말 끝내줬다. 시카고 서쪽 동네의 작은 건물에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지금의 내가 있도록 만들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다 L.A.에 오게 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L.A.로 이사 왔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그냥 무작정 온 거다.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꼽자면?

〈LOOK〉이라는 TV 쇼에 출연한 것. 시청률이 좋지는 않았지만 감독님이 열정을 갖고 기획한 프로였다. 내가 처음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작품이기도 했고.

그때는 조금 통통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살이 많이 빠졌다. 도대체 얼마나 독하게 몸매 관리를 한 건가? 몸무게는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다. 관리를 할 때는 마라톤이나 킥복싱, 핫요가도 해봤다. 그러다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만 먹을 때도 있다.

한국 관객들이 〈아메리칸 파이: 19금 동창회〉를 봐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말해보라! 당신의 한 마디가 영화를 박스오피스 1위로 만들지 모른다!

1. 오리지널 멤버들이 모두 돌아왔다!
2. 10대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공감하며 웃을 수 있는 영화다!
3. 새로 합류한 멋진 캐릭터들이 있다. 나를 포함해서! 🍷



“

친구들이 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크레이지(crazy)다

”



**아메리칸 파이:
19금 동창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네 명의 친구들. 그들이 동창회를 계기로 다시 뭉쳤다. 어릴 적 베이비시터 일바를 했던 꼬맹이가 발가벗고 덤비는가 하면, 핀치에게 엄마를 빼앗겼던(?) 스티플러 앞에 핀치의 엄마가 나타나는 등 온통 자극 투성이의 동창회가 기다린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영?)



CASE 2. “...잖어?”

친구들 중 첫 경험을 한 친구들이 속속 생겨나는 시기, 이제 대화가 중, 고딩 떡볶이 먹는 수준에서 어른 수준으로 막 올라오는 단계다. 이때는 섹스가 쾌락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저 설레고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대상으로, 섹스란 걸 과연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다. 집에서 학교에서도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거든. 주위 친구들이 모두 한 번 이상씩은 해본 나이가 되면 ‘소개팅을 했다’, ‘그저께 아무개를 알게 됐다’ 류의 대화 중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잖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수줍게 “...잖어?”라고 물어본다. 아직 남자들의 “손만 잡고 잘게”란 말을 굳게 믿는 시기다. 때문에 질문도 손만 잡고 잤냐, 그냥 옆에 눕기만 했냐, 아님 껴안고 잤냐, 다음 날 아침엔 생얼이 나서 어쨌냐 등 “좋았어?”라는 본격 질문에 돌입하기 전 온갖 질문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 첫 경험을 한 여자는 친구들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고도 수줍게 일일이 답변을 해준다. 그러기를 한참하고 나서야 삽입 이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때 진짜로 궁금한 건 어떤 과정을 거쳐 삽

입이 성사됐는지다. 남들은 대체 어떻게 섹스를 하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의 집에서 했는지, MT에서 했는지, 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그의 손가락이 그곳으로 들어왔는지, 그가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또 응답하는 친구 역시 자세히 묘사해 준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할 때는 안 부끄러운지, 남자의 그것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래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등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와의 섹스를 위해 행한 모든 행동들이 그녀의 친구들에게 죄다 보고가 되는 거다. 하긴 뭐 첫 경험 때나 이렇게 자세한 온갖 것들이 다 궁금한 거지 그 뒤로는 친구가 새로운 남자 얘기를 꺼내자마자 “했네, 했어”라며 응수하게 된다. 어쨌든 이런 대화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자는 삽입의 그 순간만큼이나 삽입까지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크고 굵고 좋은 공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삽입 전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지 않으면 말짱황이라는 거다. 전히, 그거 여자들한테 진짜 중요하다니까?

뒷담화 2단계

수지야, 나 할 말 있어. 나 남친 생겼다~ (남친 생겼단 얘기를 왜 사랑고백 하듯이 하는 걸까?)

뭐? 진짜? 야, 대박!!!!!!!!!!!!!!!!!!!! 너 근데 진짜 배신이다. 혼자만 연애하고! 얼마나 됐는데?

오늘이 28일 짜야.
그저께는 부산 다녀옴 ㅋㅋㅋ

뭐 부산? 가, 같이 자..잖겠네?

(끄덕끄덕)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거’ 했냐고..

아... 응... 데헛 (이 시기의 여자들은 ‘자다’의 의미를 ‘SLEEP’과 ‘SEX’로 나눠서 사용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남녀 사이에 SLEEP 따윈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다시 태어난 느낌이야.
오빠랑 자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야, 근데 괜찮아? 아프진 않아?

내가 너무 긴장해서 처음엔 계속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오빠가 내 위에 올라타서 계속 키스하고 막 그랬는데도 몸이 얼어 있어서 몇 번 실패했어. 좀 있다가 오빠가 다시 시도했는데 그제서야 됐어. 좀 아프긴 한데 처음에만 그래.

그래도 에프킬라 같이 굵고 큰 것이 몸에 비집고 들어오는데...

야, 그거 아니야. 나도 그럴 줄 알고 더 무서워서 긴장했는데 에프킬라는 진짜 오빠야 ㅋㅋㅋ 근데 그거 처음엔 작은데 엄청 커져. 진짜 신기해.

뭐야!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CASE 3. “좋았어?”

도대체 어떤 산을 넘고 넘어야 섹스를 하게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했던 시기가 지나고, “섹스란 건 좋은 것”이란 생각이 드는 시기가 된다. 무엇이건 처음 맛볼 때 그게 환상의 맛이 두 번, 세 번 먹어보고 많이 먹게 되면 뭐가 맛있고 맛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도 있잖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섹스 또한 마찬가지다. 많이 해볼수록 좋은 섹스와 나쁜 섹스를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아, 정확히 말하면 나쁜 섹스는 없다. 세상에는 진짜 좋은 섹스와 조금 덜 좋은 섹스가 있을 뿐이지.

하지만 아직 섹스에도 ‘스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단계로, 섹스의 덜 좋음과 더 좋음은 아랫도리의 ‘크기’ 차이에서 난다고 생각한다. 친구가 “응, 좋았어”라고 하면 “니 남자친구는 커서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닥...”이라고 하면 “훗, 별로 안 크구

만”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크기는 큰데 스킬이 없는 게 제일 짜증나는 일이란 걸 어떤 아직 모르는 거지. 이 단계가 지나면 여자들끼리 서로 자신의 섹스 스킬을 공유하게 된다. 젖꼭지를 자극해 봐라, 뒤로할 때 상체를 완전히 아래로 숙이고 엉덩이를 더 들어주면 완전 좋아하더라, 남친이 입으로 해줄 때 엉덩이를 살짝살짝 흔들어 주면 더 짜릿하다는 등 그가 좋아했거나 혹은 내가 좋았던 스킬들을 마구 쏟아내는 지식 공유 단계가 시작된다. 결론은 이렇게 끝나지, “나도 다음엔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녀가 평소엔 당신에게 절대 하지 않던 그 무언가를 갑자기 시도한다면 백퍼 친구가 알려준 걸 써먹는 거다. 조금 어색하고 뜬금없어도 잘 따라주고 좋아하는 척 해라. 그래야 자신감이 붙은 그녀가 다음 번에 더 업그레이드된 무언가를 당신에게 시도해 주지.



CASE 4. “어떻게 생겼어?”

단순히 큰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이제 크기 뿐만 아니라 모양, 굵기,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시기다. 아래로 휘었는지 위로 휘었는지, 길고 가느다란지, 굵고 굵은지, 각각의 느낌은 다 어떨지 그런 게 너무나도 궁금하다. 당신은 좀 찝찝하겠지만, 여자들은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남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게 된다. 섹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친구들이랑 남친 거시기의 굵기나 흰 정도에 관한 이야기를 트게 되면 내 친구의 남친은 섹스를 하기 전에 어

떻게 하고, 취향은 어떨고, 섹스를 얼마나 하고, 섹스가 끝난 뒤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까지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친이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당신은 여친 친구들과 초면이지만 여친 친구들은 당신과 구면인 셈이다. 당신의 여친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흐뭇한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조커 같은 웃음을 날릴지도 모른다. 그날 처음 본 여친의 친구가 당신을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면 분명 당신의 여친이 당신과의 섹스 이야기를 친구와 공유한 거다.

뒷담화 3단계

좋았어?

(고덕고덕)

얼마나?

넣었을 때 딱 찬 느낌. 야, 난 이제까지 섹스는 다 거기서 거기겠지 했는데 완전 새로운 느낌을 알아버렸어. 완전 미지의 세계임! 또 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너무 소리를 크게 내서 민망할 정도야...

넌 섹스할 때 신음 소리가 저절로 난단 말야? 그것도 크게?

넌 안 나?

나는 아직 소리 내본적 없는데...

안 좋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좋으면 참는 게 오히려 더 힘들지.

뒷담화 4단계

너는 남친이랑 하면 어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아. 이제까지 그곳을 건드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커?

크다기보다는 길어. 근데 문제는 남친이 뒤로 하는 걸 좋아해.

왜? 너도 좋아했잖아. 취향 바뀌었나?

나도 완전 좋아하지. 근데 길어서 뒤로 하면 아랫배가 아파.

긴 게 그런 단점이 있구나. 난 요즘 멘붕이야. 섹스는 예전 남친이랑 할 때가 훨씬 좋아... 예전 남친이랑 다시 사귀고 싶은데 섹스는 하고 싶어.

하긴 너 예전에도 좋다고 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공룡길래 그래?

크고 굵은 데다 위로 살짝 휘었어.



CASE 5. “잘해?”

앞에서도 얘기했듯 여자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남자친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한다. 섹스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남자친구는 곧 여자의 자존심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과의 섹스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남자친구의 부족한 부분은 감춰주고 당신이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것처럼 부풀려 이야기 해주는 게 여친 마음. 단,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 한정된 이야기다. 예전 남친이 되는 순간 친구들한테 적나라하게 까발려진다.

피스톤 운동만 하면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섹스에도 스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대화 주제에 다양한 스킬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지면이 모자라니 당신이 가장 궁금한 그것,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환영 받는 남친의 잠자리 스킬 1위를 말해줄게. 자, 이런 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 바로 ‘오럴 섹스’다. 의외로 오럴 섹스에 인색한 남자들이 많은데 오럴 섹스를 잘해주는 남친이 여자들 사이에서는 최고가 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당신이 섹스 잘하는 남자로 평가 받는 방법 하나 더. 실제 삽입 시간이 20분이더라도 당신이 그녀의 몸 곳곳을 어루만져주고 자극하는 시간들까지 합쳐 1시간이 소요됐다면 당신은 1시간 동안 섹스한 남자가 된다. 남자들의 섹스 시계는 삽입부터 사정까지일지 모르지만 여자들의 섹스 시계는 키스부터다.

이렇게 쪽 얘기하고 나니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당신이 “여자들은 뭐가 저렇게 불만이 많아?”라고 생각할까봐서다. 솔직히 말하면 맞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아주 사소한 불만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자들이 원래 불만 투성이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당신이 이렇게만 해주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쾌락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는 속궁합 까지도 완벽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가 당신과의 섹스에서 “다음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요구 사항 없이 무념무상으로 당신과 섹스를 하는 것 같다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다. 그런 그녀에게는 현재 속궁합이 환상적으로 맞는 또 다른 섹스파트너가 있을 가능성이 99.9%다. 당신과의 섹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그녀라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섹스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거든.

뒷담화 5단계

니 남친은 입으로 해주나?

당연한 거 아냐? 야... 너 설마... 아직 남친이 입으로 안 해줬어? 헤어져!

흑흑... 입으로 해주는 건 삽입할 때랑 어떻게 다른데?

삽입할 때는 자극되지 않았던 예민한 신경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야, 이 좋은 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냐?

아, 진짜 니 남친이 최고다! 니가 세상에서 젤 부러워! (일단 오럴 섹스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애긴 안중에도 없음. 당신은 그냥 최고의 섹스 머신이 되는 거임)

그러니까 그녀가 이것저것 요구하고 당신과의 섹스에 살짝 불만이 있다는 건 좋은 신호다. 그녀에게 섹스파트너는 현재 당신 뿐이며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한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그녀의 진짜 취향을 알아내기 위해 자꾸 연구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 그녀의 판타스틱한 서비스가 분명 돌아올 거다.

기브 앤 테이크. 알지? 🍷

SEXY
MEXICANA
JACKE CARDONA

입안이 얼얼해지는 핫 소스만큼 자극적인 재키 카르도나의 매력으로 늦더위를 날려보자!

BY MACHO CABRIO PHOTOGRAPH FELIPE BOHORQUEZ/FelipeBohorquez.com
STYLING GLORIA PATRICIA SIERRA PRODUCTION EDUARDO ZAPATA DESIGN 신속희

GO TO
MAXIM
iPAD
마공개컷





전 세계 MAXIM 편집부 중에 핫한 걸들이
즐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 멕시코.
그들의 까다로운 눈이 선택한 커버 걸 재키 카르도나는
남자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다.



“
내 몸의 장점을 아찔하게 보여주니
란제리 화보 촬영을 사랑할 수밖에!
”



뜨거운 남미의 피가 흐르는 섹시 미녀를 마주 할 때마다 매운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온몸의 땀 구멍에서 땀이 줄줄 난다. 혹시 매운 음식 좋아하나?

타코, 브리또 다 좋아하는 편인데 유일하게 매운 음식은 정말 내 체질이 아니다. 매운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

가장 인상적인 화보 촬영을 꼽는다면?

이번 MAXIM 촬영 빼고? 최근에 'Standing On A Model's Heels'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했는데, 전직 멕시코 플레이보이 모델이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 등장해 화제가 된 사건을 주제로 했다.

흥미로운 주제군. 미녀와 정치라니!

실제로 나는 그리 사회성이 좋거나 뻔뻔한 사람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어색해하고,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다.

화려한 직업이니만큼 사생활도 아주 화려할 것 같은데 의외다.

고급 식당보다는 편안한 장소를 좋아한다. 평소에도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하지만 술에 완전히 취해 길거리에 널브러지는 건 질색이다. 술은 가까운 친구들과 적당히 마신다.

노출이 많은 화보 촬영을 하면 자기 보디의 장점을 잘 알 텐데, 몸매 자랑 좀 들어보자.

내 몸의 장점? 아주 잘 알고 있다. 엉덩이, 특히 등과 엉덩이 라인에서 흐르는 멋진 곡선이 예술이다. 그러니 내 몸의 모든 부위가 아름답고 아찔하게 드러나는 런제리 화보 촬영을 사랑할 수밖에!

그럼 단점을 꼽는다면?

키...키가 작다는 것.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정말 완벽하지 않나?(웃음)

여자인 당신이 봐도 반할 것 같은 여자는?

메간 폭스. 지구 상에서 가장 섹시한 암컷이다. 하지만 발가락이 정말 이상하게 생겼던데...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작업 방식은 무엇인가?

한번은 클럽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와 "친구가 당신이 맘에 들어서 저녁을 사고 싶대네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과는 예상했겠지만 "싫어요". 수줍음 많은 남자보다 직접 대시하는 남자가 좋다. 약간의 유머를 동원해서 말이다. 그렇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작업 티를 팍팍 내면 오히려 신비감이 떨어진다. 여자들은 호기심을 약간 자극하는 남자에게 끌린다. 



재키 카르도나

태어난 곳: 콜롬비아, 메델린

생일: 8월 14일

스리 사이즈(cm): 80-60-92 (머리, 가슴, 배 아니고, 가슴, 허리, 엉덩이)

얼굴만 예쁜 게 아니야

"회계를 전공했다. 내 소유의 사업체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늘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근데 내가 너무 섹시한 걸 어떡해?"

그러지 말고 자랑 결혼합시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멕시코 욕

"노 마에스"

한국말로로는 '지랄하네', '꺼져', '닥쳐', '쫓까' 등의 뜻이다.

트위터 @JackeCardona



“
여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남자에게 끌린다
”

오늘부터 MAXIM 편집부는
야식으로 비비큐 말고
멕시코나 치킨만 먹기로 했다







PARTY

오빤 강남 스피얼~



FASHION STYLING PARTY

TOGETHER
PARTY WITH PURPOSE

강남스타일

강남 스타일은 개별 훈남 스타일만 먹히는 더러운 세상.
BY 조용재 DESIGN 천은경 장소 협찬 Club Holic PHOTOGRAPH Kimhaze

천조국에까지 콘돔 스타일을 유행시킨 사이의 그 노래처럼 궁극의 스타일이
궁금했던 에디터는 클럽 Holic에서 열린 동명의 파티 '강남스타일'로
발걸음을 돌렸다.



THE HOTTEST PLACE IN GANGNAM

현장에 들어서자 젊은이들이 용기종기 모여 뜨겁게 마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던지,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려 공양미 300석이라도
준비해야 할 지경이었다. 낮에는 커피 한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들이 이곳에서는 주화임을 당해 서큐버스로 변신한 듯했고, 수컷들은
꿈에서나마 그녀들의 노예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STYLEHOLIC

스타일 파티라는 주제답게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 꽃단장하고 온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 자신의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평가받는 잔인한 시스템을 도입해, 이성들에게 강남 스타일, 싹티 스타일, 개성 스타일 등의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에디터에게 싹티 스타일 스티커를 들고 황소처럼 달려드는 여성들을 뿌리치며 스테이지로 쫓기듯 도망치자 그곳에서는 공연의 열기가 찬장을 찌르고 있었다.



INCREDIBLE GUESTS: TOGETHER & DJ ROEM

이날 공연에서는 퍼포먼스 팀 TOGETHER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강남 최고의 스페셜 게스트 DJ 로엠의 공연이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무려 '지옥문 소환술사'라는 별칭답게 비트의 헬게이트를 연 DJ 로엠은 주지육림의 현장을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어주었다. 



HOTTEST STYLE

현대 파올래?

그녀와 매일 입을 맞추는 림보르키니가 부럽다. 젠장.



*the
MAXIM
 : 2012.07.21 Party*

한여름 밤의 꿈 같은 하루였더라.

BY 김희성 PHOTOGRAPH HOSPITAL PHOTOGRAPH, MS PHOTOGRAPH, MAXIM 편집부 DESIGN 서윤정

MAXIM
 PARTY
 난입하기



지겨웠다. 이름만 다를 뿐 겁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비슷한 페스티벌이 우후죽순으로 넘쳐났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는 기껏해야 서울 근교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MAXIM은 우리만의 파티를 열어 백적지근하게 놀아보기로 했다.

날씨는 마감이 끝난 직후인 7월 21일, 장소는 밤만 되면 동물의 왕국으로 변하는 대천 해수욕장이 좋을 것 같았다. 불벌더위에 심신이 지쳐있을 남자 직원들의 수컷 본능을 깨우고 덤으로 바키니 미녀들을 마음껏 감상할 수도 있니까. 게다가 놀다가 더우면 언제든지 바다로 침범 뛰어들 수도 있는 천혜의 장소였다.





대낮부터 파티를 하기엔 날씨가 너무 더웠다. 일단 낮에는 'MAXIM BAR'를 만들어 음료를 팔기로 했다. 우리는 대천에 도착하자마자 BAR를 설치할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수맥이 흘러도 되고 기운이 안 좋아도 상관없었다. 비키니 미녀들이 잘 내려다 보이면 그곳이 명당이었다. 마침 그곳에 열리고 있던 그린루브 페스티벌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입장객들이 드나드는 그곳 입구 2층에 컨테이너를 올려 MAXIM BAR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햇빛이 강철 컨테이너를 달궈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했지만 그냥 태닝하는 셈 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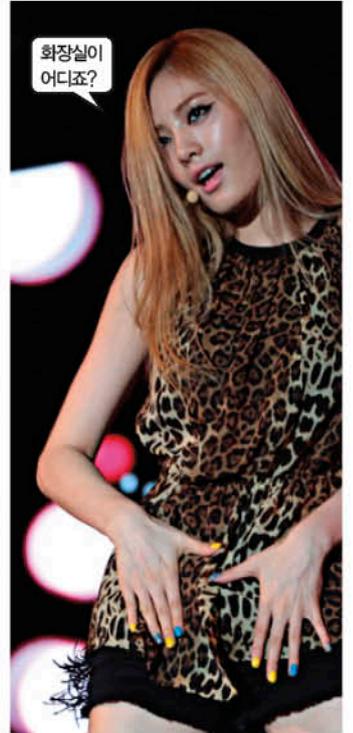
“도대체 저 위에 가면 뭐가 있나
요?” 살이 타들어가는 위험을 감
수하고 MAXIM BAR를 만든 보람
이 있었다. 2층 컨테이너 위에서
흰색 비키니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미녀들의 정체가 궁금했는
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여기가 자이로드롬으로 보였는지
급기야는 놀이동산 돌는 대기 줄
이 생기기도 했다. 하긴 그럴 만
도 했다. 잡지에서나 보던 MISS
MAXIM들을 직접 보는 걸로도 모
자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
게다가 본업이 미술 선생님인
2010년 MISS MAXIM 최혜연 양
이 비키니 차림으로 사람들의 몸
에 예쁜 그림을 그려줬다.



함 거. 거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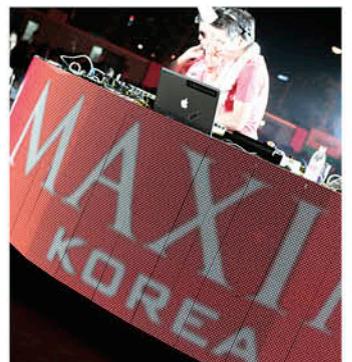


그뿐 아니라 돌리기만 하면 무
조건 선물을 하나씩 건질 수 있는
'MAXIM 룰렛'도 있었다. 한정판
으로 제작한 MAXIM 티셔츠를 비
롯해 연극 티켓,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MAXIM 신간 등 여
러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그 중
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6개월
정기구독권'과 'MAXIM T팬티'였
다. 그린그루브 페스티벌에 미처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운
대로 2층에서 왔다갔다하는 비키
니녀들의 자태를 두 눈에 담았다.
아, MAXIM T팬티와 한정판 티
셔츠는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에서 아직 구매
가능하니 서둘러라.



MAXIM BAR에서 MISS MAXIM들과 룰렛을 돌리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왔다. MAXIM PARTY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전까진 10cm, 버벌진트, 델리 스파이스, 스컬&하하, 하우스룰즈, 원더걸스, 손담비, 애프터 스쿨, 킹스톤 루디스카, 마יתי마우스, 에이콘(AKON)의 무대를 보면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AKON은 그날따라 약이라도 빨고 왔는지 초흥분 상태가 돼 자정을 넘기도록 무대를 떠날 줄 몰랐다. 그리고 시작된 MAXIM PARTY.





모래밭 한 가운데 설치된 DJ BOX 에 MAXIM 로고가 현란하게 돌아가고 음악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쯤비처럼 DJ BOX 근처로 모이기 시작했다. MISS MAXIM으로 구성된 MAXIM 파티 플래너들과 필 받은 에디터 몇 명이 DJ 박스에 올라가 흔들여했다.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던 탓인지 광분한 사람들이 DJ 박스로 난입하기도 했지만 음악과 술, 땀에 젖은 젊음들이 모인 한여름 밤의 해수욕장에서 이를 아랑곳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당신 손으로 MISS MAXIM 뽑는 법

1. www.maximkorea.net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페이지 우측에 있는 MISS MAXIM CONTEST 배너를 확인한다.
3. 둘 중 마음에 드는 처자에게 한 표를 던져라 현재 득표 스코어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 ✓ 현재 MISS MAXIM 8강이 진행 중이다. 올림픽 축구 보는 기분으로 참여하도록!
- ✓ 로그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귀찮은데 잘됐지?
- ✓ 아이폰 등 태블릿 PC나 모바일에서도 투표하러 다 된다!



기다리고 있겠다.

못 믿겠으면
해봐.



● VOTE FOR MISS MAXIM! ●

MAXIM KOREA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다 못해 폭파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 MISS MAXIM 콘테스트에 당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라 당신이 지지하는 그녀가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게!

 김보민	1회 VS.	 Danning Fu	2회 VS.	 박세미	3회 (진행중) VS.	 김수아	4회 VS.	 정지은	5회 VS.	 엄상미	6회 VS.	
--	------------------	---	------------------	--	---------------------------	--	------------------	--	------------------	--	------------------	---

여기서 끝이 아니다. 8강이 끝나면 더욱 치열한 4강이 시작된다! 이미 4강 리스트에 오른 엄상미, Danning Fu와 당신 손으로 뽑은 나머지 두 후보자 간의 뜨거운 격돌! 섹시한 그녀들의 살 튀는 배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달의 도전 과제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뭘 이만하게 만들어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순진무구한 에디터는, 결국 닉네임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루돌프를 상대로 썰매에 앉아 책꽂이로 스텡킹을 일삼는 나쁜 산타 새끼가 문제인 것 같아.

응모하기

1. 위 사진에 채워 있는 말풍선을 달아라. 그리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옥체에서 빛이 난다!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 가장 MAXIMS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스웨거 헤어 스테너 왁스**를 선물로 주겠다.



말풍선
달라가기



MAXIM BUYER'S EDGE



OSMIUM(오스뮴) 포맨 셀룰러 리뉴 크림

피부가 습습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인다면 오스뮴을 주목하자. 오스뮴 포맨 셀룰러 리뉴 크림은 식물 구성 포몰러를 사용해 피부 재생력을 높이는 재생 크림. 레티놀, 히알루론산 등 피부의 재생을 돕는 물질을 포함하고 비타민 A, C, E 성분을 다량 함유하여 피부 톤을 밝게 한다. 게다가 포맨 셀룰러 리뉴 크림은 96% 이상 천연 식물성 물질로 구성되어 자극 없이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맑고 자신 있는 2030 피부, 문제없다.

가격 63,000원(100mL)

문의 앤디스그루밍센터(www.andys.co.kr)



마일드세븐, 슬림형 숯 필터 담배 E-STYLE 출시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에서 국내 최초의 슬림 스타일 담배 마일드세븐 E-STYLE을 출시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얇은 박스 포장으로 휴대가 간편하다. 스타일리시한 패키지 앞면의 라운드 디자인과 엠보싱 효과가 E-STYLE만의 고급스러우면서 모던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마일드세븐 고유의 부드러운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슬림형 담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인 마일드세븐 E-STYLE은 6mg 타르의 E-STYLE 6, 3mg 타르의 E-STYLE 3,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가격 2,700원 문의 JT코리아(080-777-7727)



류지혜가 내 여친? 애인 키우기 앱 출시

당신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할 최고의 무료 앱을 소개한다. 이 앱에서는 레이싱퀸 모델 류지혜 양이 바로 당신의 여친이라는 사실. 최고의 3D HD 영상은 그녀가 화면 밖으로 튀어 나올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또 지혜 양의 애교 섞인 모닝콜 기능이 당신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터치를 많이 하면 지혜 양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 그녀를 소중히 아껴주는 것을 잊지 말자.

문의 내 여친 류지혜(yeochin.com)



「PLATFORM」

플랫폼 라코스테 크루저 세일7 출시

플랫폼에서 2012년 F/W 시즌을 맞아 라코스테 크루저 세일7을 선보인다. 라코스테 크루저 세일7슈즈는 빈티지한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를 감각적으로 매치한 보트슈즈다.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를 기본으로 와이드한 스티치 장식과 투톤 컬러의 배색을 넣어 보트 슈즈의 클래식한 무드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라코스테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메탈 소재의 croc 로고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차치 무난할 수 있는 F/W 스타일링에 최고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가격 185,000원

문의 플랫폼(www.platform.co.kr)

EVENT 01
최고의 암살자를 가린다!

배우 각 1명씩, 3일간 최고의 KILL 수를 기록한 5명씩, 총 540명을 선발하여
1인칭 슈팅 게임 '데스매치'를 플레이한다.
게임 중 '10DEATH' 횟수 기록한 유저 10명씩, 총 180명을 추첨하여
1인칭 슈팅 게임 '데스매치'를 플레이한다.

• 당첨자 발표: 매주 수요일
• 이벤트 참여 기간: 매주 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기록한 KILL수대로 당첨자 선정

(이벤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최고 기록자가 높은 순위로 당첨자로 선정하며,
최고 기록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기록자가 높은 순위로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추첨
총 1명 108명	총 4명 162명	총 9명 108명	총 16명 108명	총 36명 108명	총 180명 180명

여기서 잠깐!
본인의 DEATH만 당해서는 분상을 주며,
10 DEATH 이상을 기록하면 분상 중 추첨을 통해 매주 각 서버별로 10명을 추첨하여 1만 개시를 위로상으로 드립니다!

MMORPG 퀸스블레이드, 출격과 함께 경품 폭격!

섹시한 여성 캐릭터가 가득한 게임 <퀸스블레이드>의 개발사 라이브플렉스가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우선 서버별, 직업별 최고의 전사를 선정해 매주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총 720명에게 준다. 또 반대로 패한 횟수가 10회 이상인 유저 중에서도 180명을 선정해 위로의 상품을 준다. 더불어 신규 가입자 중 선착순 5천 명에게는 PC방 무료 쿠폰을 제공하니 게임하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를 만끽하자.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라이브플렉스(02-3446-1711, queens.kr.gameclub.com)

CYPHERS 사이퍼즈



네오플, 신작 게임 사이퍼즈로 던전앤파이터의 전설을 잇다

〈던전앤파이터〉로 유명한 국내 게임 개발사 네오플에서 신작 〈사이퍼즈〉를 내놓았다. 〈사이퍼즈〉는 대전 액션과 공성전이 결합된 AOS(Aeon Of Strife) 장르의 게임으로 3D 액션에 실시간 전략 요소까지 가미해 현장감을 높였다. 게임이 복잡하지 않아 남성 유저뿐 아니라 여성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이미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8만 명을 넘는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으니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밤 친구들과 〈사이퍼즈〉 한번, 어떤가?!

문의 네오플(cyphers.nexon.com)

TROUBLE AGONUNT SPECIALIZED PREVENTER



- 트러블 예방
- 민감 피부 수분공급
- 자극없는 천연성분
- 끈적이지 않는 촉촉함

소유스킨 트러블 애고넨트 스페셜라이즈드 프리벤터

소유스킨에서 여름철 과다 피지 분비로 인한 트러블 예방을 위해 트러블 에센스를 제안한다. 땀과 번들거림을 없애려고 세수를 너무 많이 하면 유분뿐만 아니라 수분까지 없어서 주름과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스페셜 에센스는 세안 후 부족한 수분을 채워 신뜻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천연 성분들이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니 트러블 예방을 위해 소유스킨이 제안한 에센스를 내 피부에 선물해보자!

가격 32,000원

문의 소유스킨(www.souskin.com)



새로운 컬러로 선보이는 PUMA FAAS 300

PUMA에서 러닝화 파스 300(FAAS 300)를 새로운 컬러로 출시했다. 파스 300은 신발을 신지 않은 듯한 가벼운 착화감을 자랑하고 통기성이 뛰어나다. 또 독특한 디자인과 생생한 색감으로 눈길을 끈다. 이번 가을에는 편안함과 멋을 동시에 갖춘 푸마 러닝화를 신고 뒀다발을 해보는 건 어떨까?

문의 푸마(shop.puma.co.kr)



버튼(BURTON), BURTON STORE 국내 론칭

스노보드 브랜드 BURTON이 드디어 한국 시장에 상륙했다. 8월 10일 BURTON STORE를 오픈하며 공식적인 브랜드 론칭을 알린 BURTON은 스노보드용품뿐 아니라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라인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 기능성은 물론 스타일리시함까지 갖춘 BURTON의 가을 시즌 컬렉션 LAKESIDE IN VERMONT는 BURTON STORE 및 LG패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론칭 기념 BURTON 선글라스와 펠트 백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문의 LG패션 온라인 쇼핑몰

(www.lgfashionshop.com/burton)



피부를 환하게! 엠도씨 화이트닝 워터드롭 에센스

햇빛에 검게 그을린 당신의 피부를 촉촉하고 환하게 만들어줄 제품을 소개한다. 끈적임이 없어 신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엠도씨 화이트닝 워터드롭 에센스는 알파멜라이트 성분을 포함해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 손으로 몇 번 문지르면 바로 물처럼 변하여 피부가 촉촉해진다. 이제 여름휴가 때 혹사시킨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터득했는지?

가격 21,000원

문의 엠도씨(www.mdockorea.com)

제대를 명 받았기 이에
정기구독 합니다!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으로 접속
2. '전역 인증샷' 배너 클릭!
3. 본인의 전역증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게시판의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확인하도록!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후임들은 물론이요,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서 신청하라.
당신은 전설이 될 것이다.(아, 이미 전설이겠군?)

한창 좋을 때
더 좋아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혜택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대박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지!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과월호 12권 패키지를 보내주겠다.



셋. 2012년 9월 20일까지 응모한 독자 중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3명에게
간지 폭발 '대니시 디자인'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거미줄이나 미사일은 안 나가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무대

CHICAGO

THE MUSICAL



Ticket

한혈증 기증 할인
30%

한혈증 기증시 할인
(한혈증 1매 기증시 2명 할인)

평일 낮공연 할인
20%~30%

V·R·OP 석 20%/S·A석 30%
매주 수요일 3시공연 예매자 적용

뮤지컬 시카고

6.10 - 10.7

디큐브아트센터

MAXIM



KOREA



ALI COBRIN

〈아메리칸 파이4〉의 화룡점정

MUSIC

KOXX의 맥심 사무실 습격
가을 필수 신보

ICON: AKON

MAXIM 비치 파티를 미어터지게 만든 세계적인 뮤지션 AKON!
충남 보령에서 MAXIM KOREA 편집장과의 독점 인터뷰
"I JUST HAD SE~!"

MONEY

스포츠 도박에 대한 MAXIM의 고찰
MS 창립 멤버의 은퇴 후 재테크 비법
당신보다 잘 사는 동물들

외국인

GIRL

G컵 걸그룹 써니 데이즈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
미스맥심의 란제리 배틀
MAXIM MEXICO
〈사이퍼즈〉 미소녀 군단

CARTOON

배트맨 3부작의 시작, 그래픽노블 6권
야구 선수들도 챙겨 본다는 〈프로야구 카툰〉의 최훈
급시니스트의, 교육상 안 좋은 역사 강의
만화가 이말년 죽기 전 24시간

SEPTEMBER 2012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